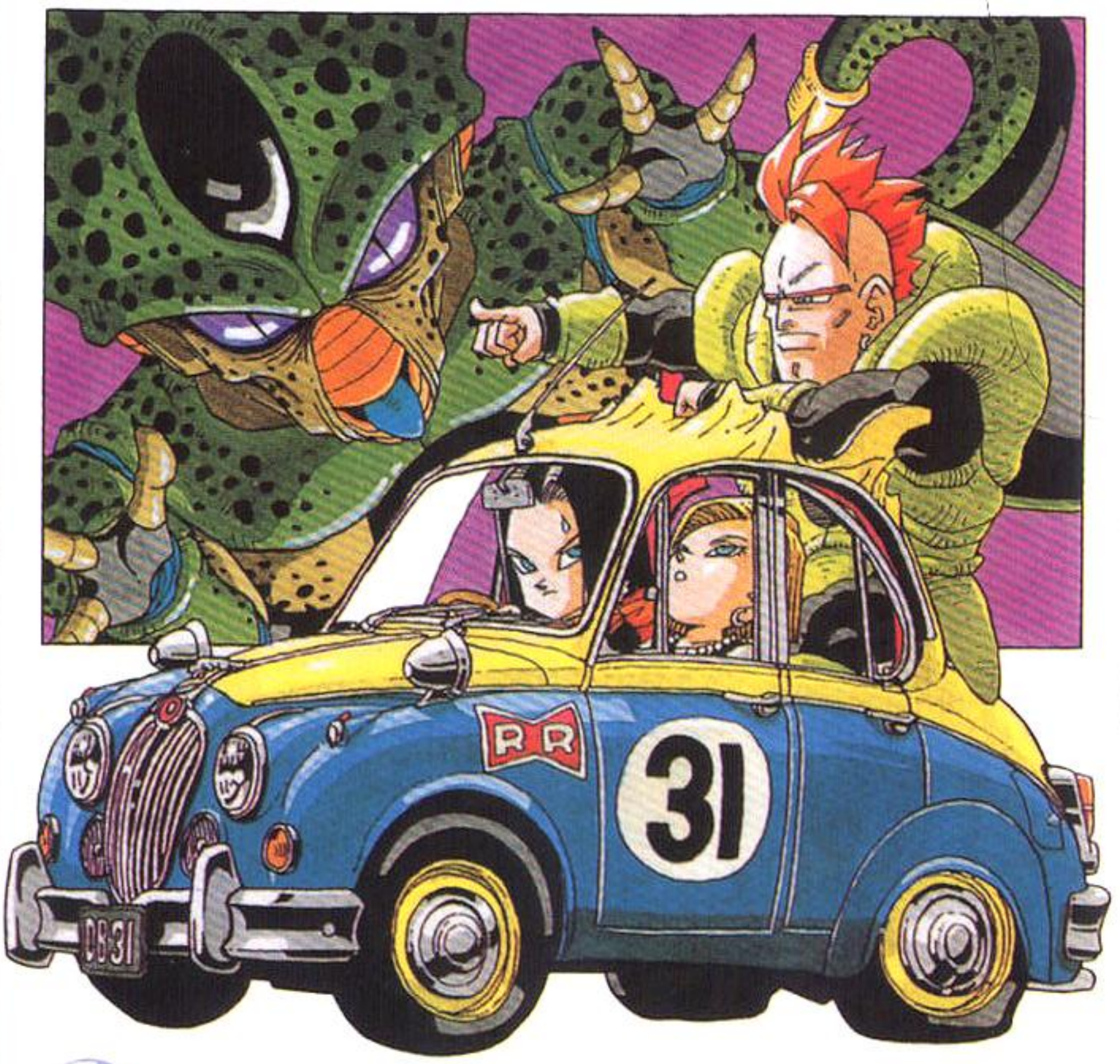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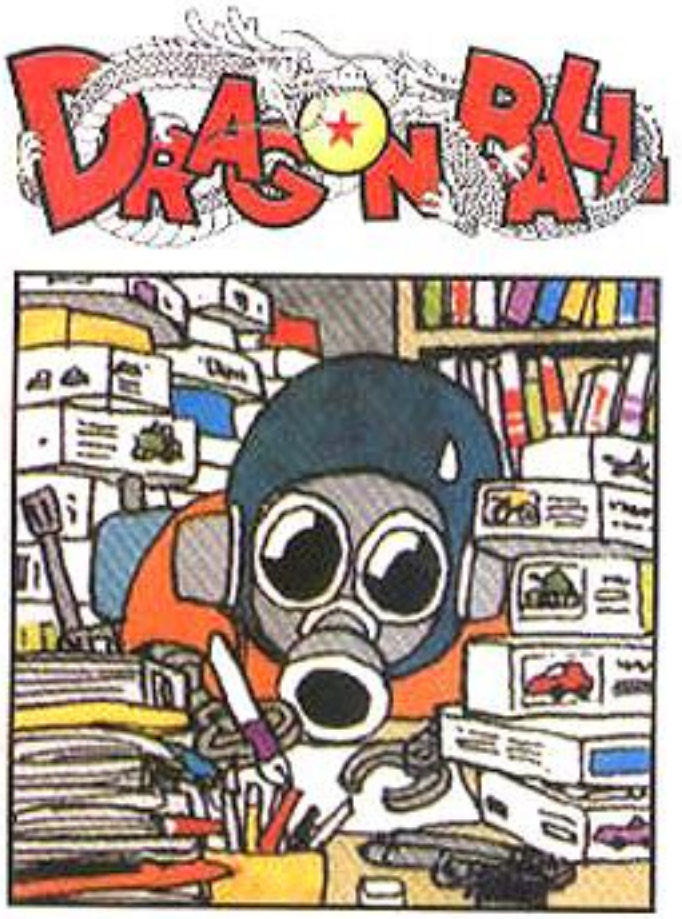
AKIRA TORIYAMA



31 셀의 접근

개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사이즈, 파일이름, 스탬프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자료를 상업으로 이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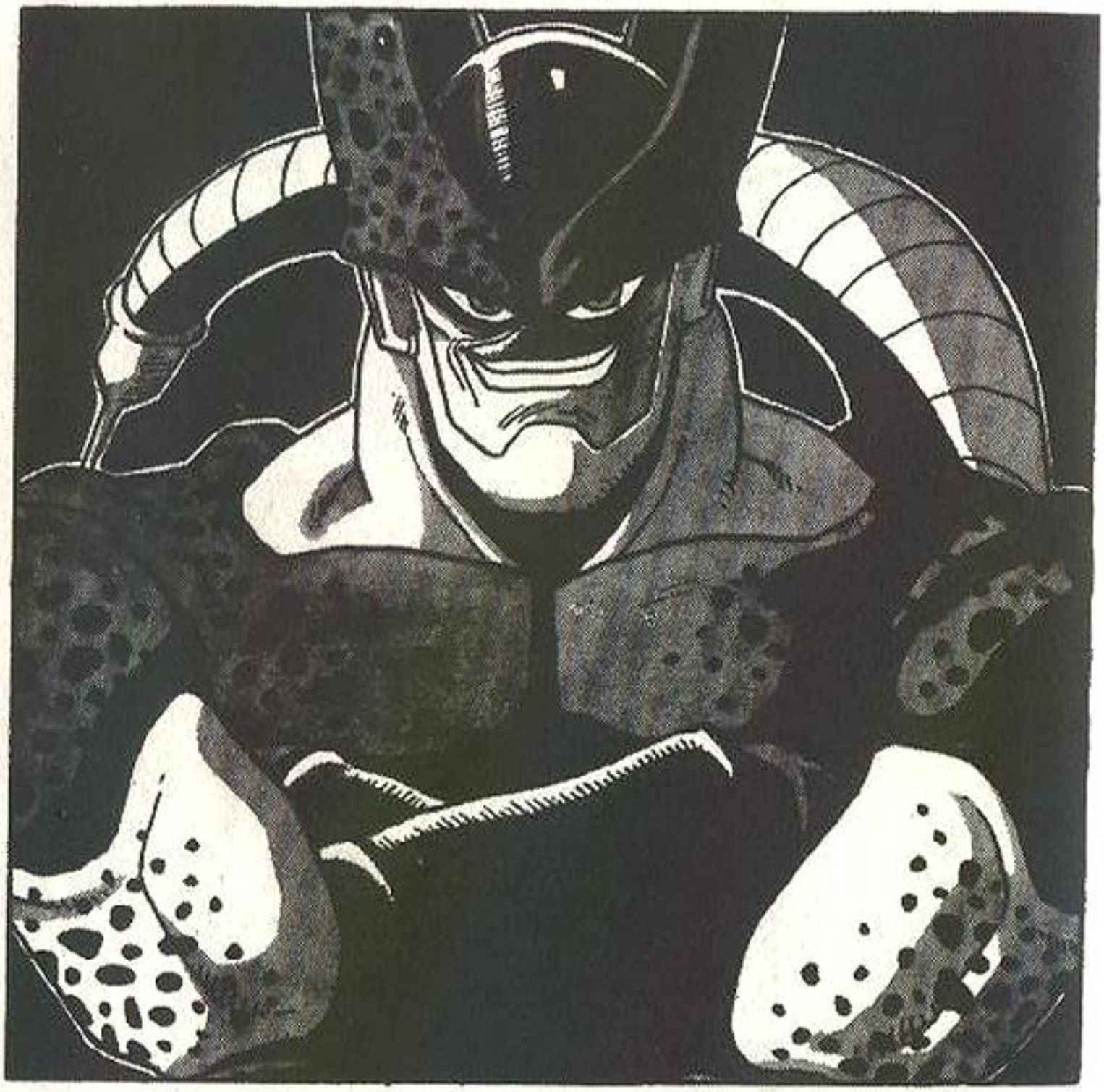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언제부터인지 내 작업실은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잡지, 프라모델, 모델건, 에어건, 그밖에 잡다한 것들이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중에서 조수인 마츠야마 군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하루밖에는 이 방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대부분은 아이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d by raprnb

이건 공
의 수정
적목적
다. by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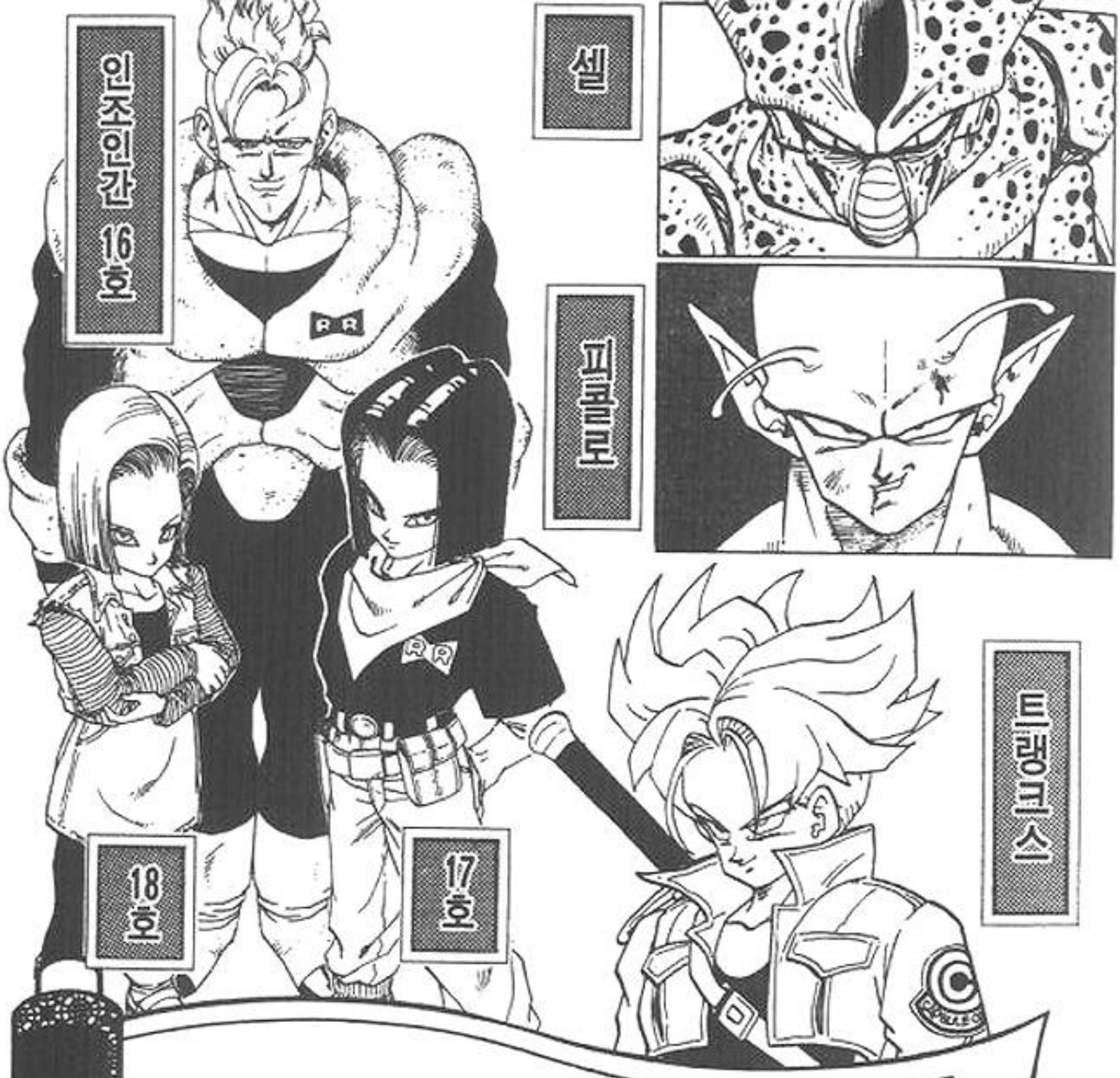
제31편 셀의 접근

AKIRA TORIYAMA

scann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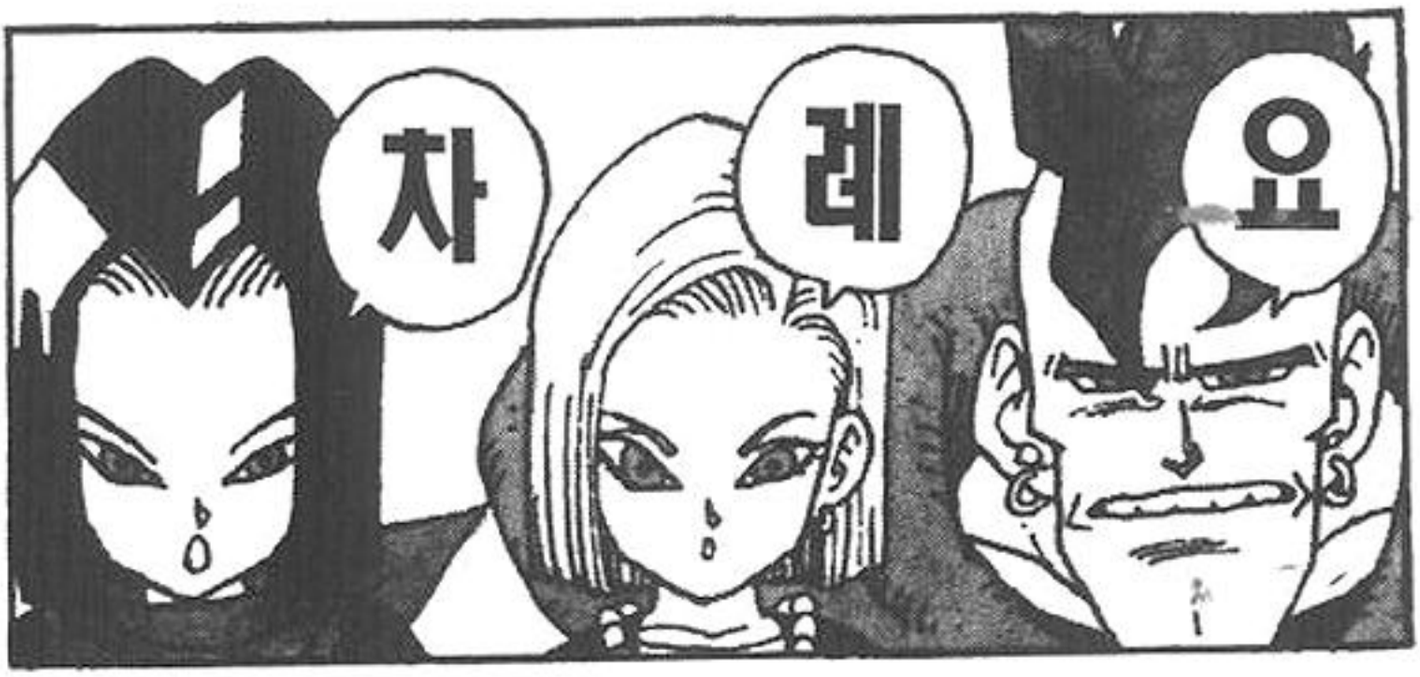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이룬다. 그 후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 쟁탈전에서 최강전사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승리를 거둔 오공. 하지만 3년 후, 인조인간과의 전투 도중 심장병에 걸리고, 폐해버린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인조인간 3명이 오공의 목숨을 노리며 등장. 게다가, 거대한 기를 가진 수수께끼의 괴물이 나타났다…!!

DRAGON BALL 31

셀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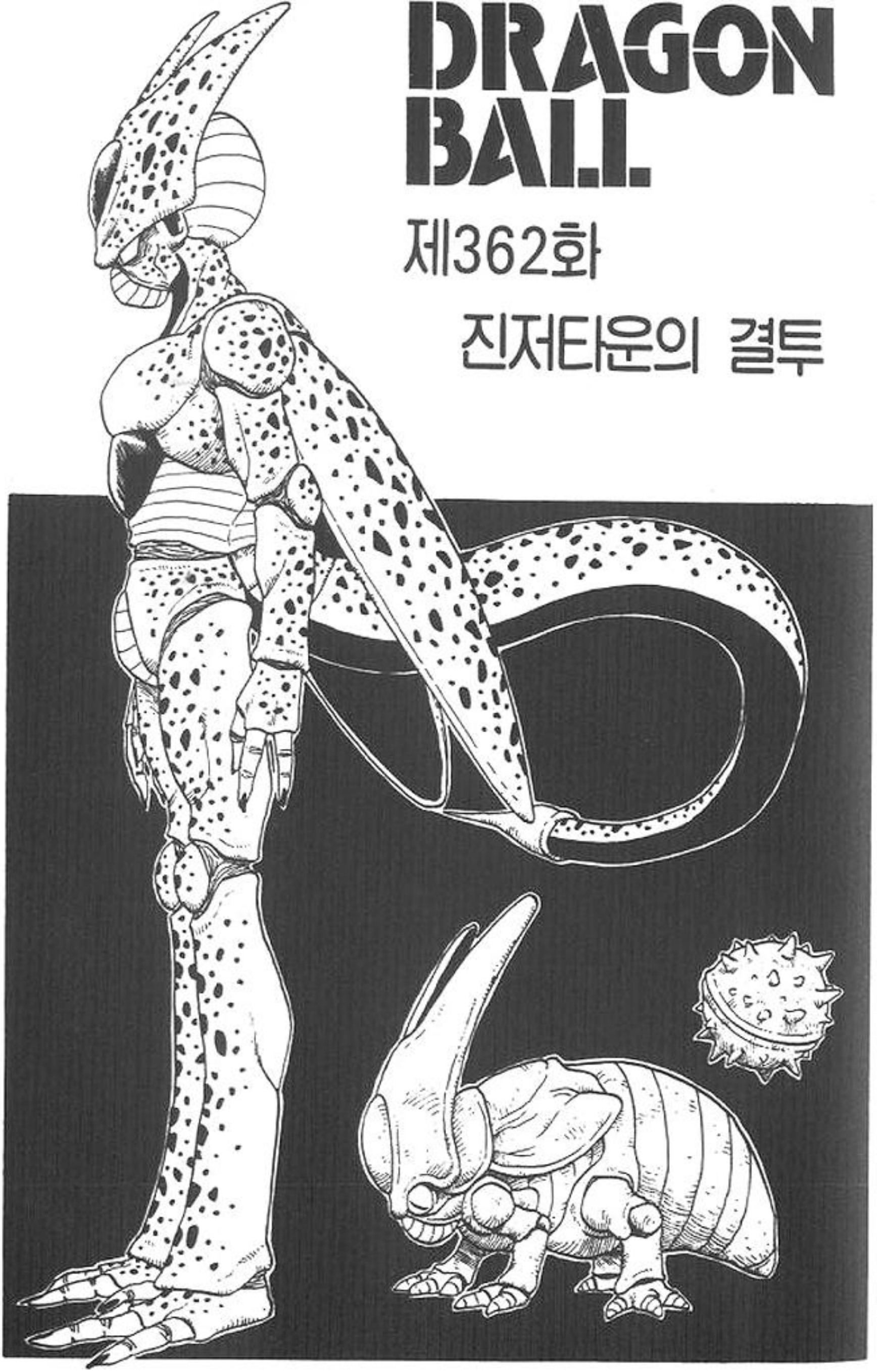


제362화 진저타운의 결투 ····· 7
제363화 밝혀진 괴물의 수수께끼 ····· 22
제364화 셀의 웃음 ····· 36
제365화 눈을 뜬 손오공 ····· 51
제366화 사이어인들의 수련 ····· 67
제367화 신생 피콜로 대 17호 ····· 82
제368화 셀의 접근 ····· 96
제369화 인조인간 대 셀 ····· 110
제370화 신생 피콜로 결사의 저항 ····· 125
제371화 움직이기 시작한 16호 ····· 140
제372화 결사적인 16호 파워!! ····· 156
제373화 셀의 완전체를 저지하라! ····· 170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X ····· 185

DRAGON BALL

제362화

진저타운의 결투



그럼 네가 피콜로 대마왕이 아니란 말야!?

사람을 잘못 봤다고?

!

바로 그거지.

!!

또 한 명의 뭔가가 나타났어…! 그것도 어떤 놈인지 모르는 놈이….

또, 또 엄청난 기가…!

진짜 융합 했구나…!

죽이는데…!

이건 피콜로야!

엥!? 그, 그렇지만 이 기는….

이… 이렇게까지 파워업할 수 있는 건가….

대… 대단하다…!

혼자서도 무자게 강했던 피콜로가….

그래…!

이, 이건 초나메크 성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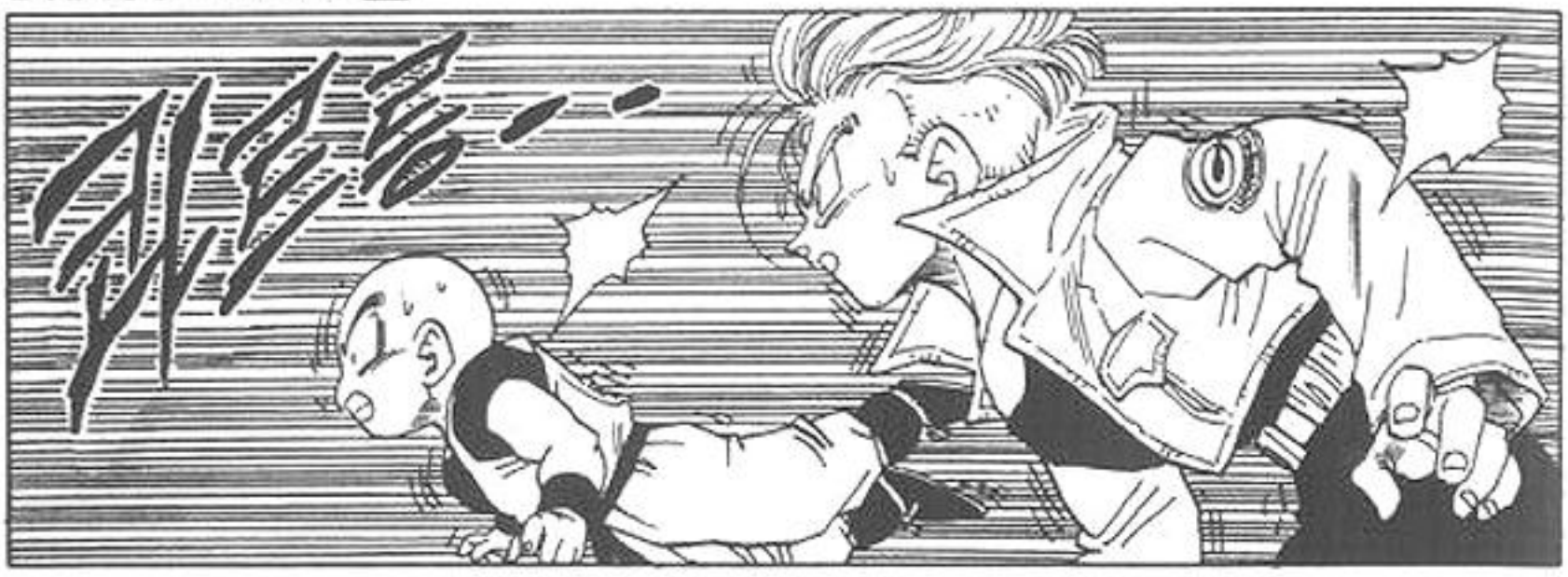
엥…! 융합이라면…, 지난번 얘기한 그 신님과…!?

원래는 한몸이었다 떨어졌다는….


게다가 네놈이 이 마을 주민을 모두 청소한 것은 내겐 아주 좋은 기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마음껏 파워를 쓸 수 있으니까!
뭐시!?
파탓




OK


싸우-


저… 저쪽
하늘이…!
싸움이
시작됐나봐…!


지금의
충격파는
…!?
윽!


끼끼끼…



LUCKY FOOD

철컥

끼익!!

아무튼 먼 곳인데….

화산의 대폭발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그래….

지금 분명 대기가 떨렸어. 느꼈니?

서쪽 도시의 교외야….

분명 두 개의 거대한 파워가 싸우고 있어….

하긴….

그럼 입을 연 김에 언놈들이 싸우고 있는지 가르쳐 줄래?

네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16호, 네겐 파워 레이더가 붙어있었냐? 왜 여태 얘기 안 했어?

그렇지만, 한쪽 파워는 너희들과 대등할 정도로 큰걸.

몰라. 둘 다 데이터에는 없어.

헛소리 말고 가자, 16호.

……

닥터 게로는 또 실수한 것 같군. 너의 그 레이더는 고장났어.

내 파워와 대등할 정도의 놈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거든.

뭐!?


쿠웅..
벌떡

OH

OH



후후후….
생각보다 꽤 까부는걸….
아무리 내가 완전체 상태가
아니라 해도 말이지….

겨우
그 정도였냐…?
네놈이 엄청난
괴물이라고 느낀 건
단순히 내 착각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네놈은
그것 때문에
인간을
습격해서…!!

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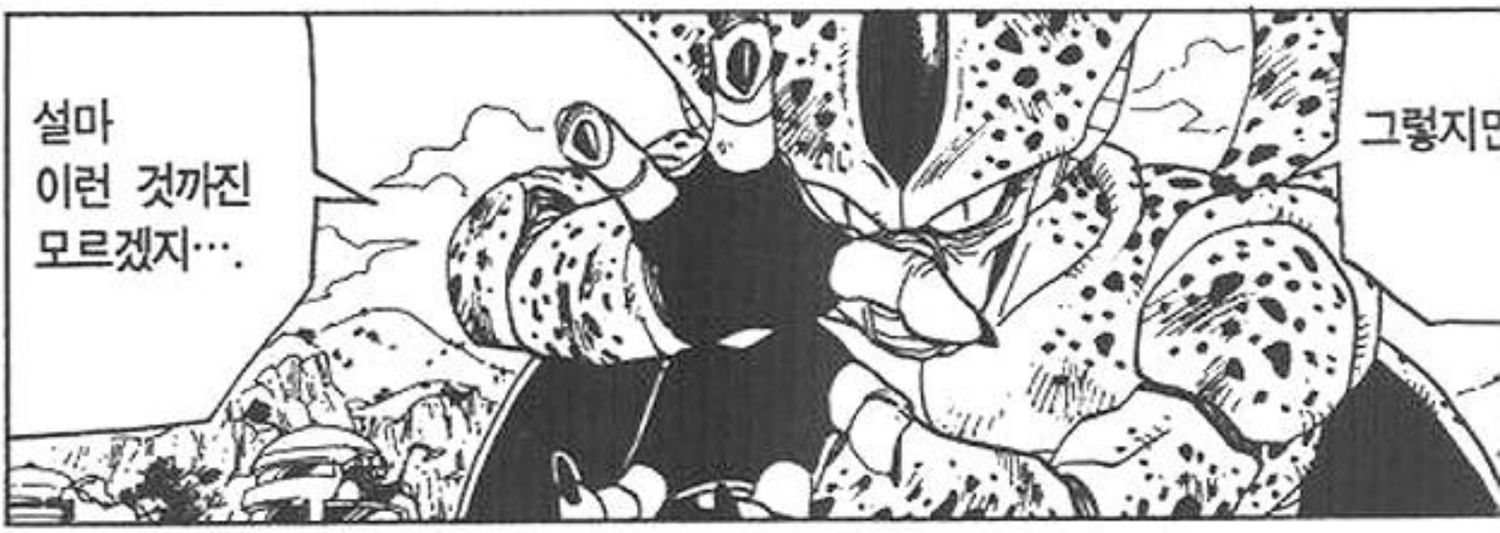
대답해! 너를 타임머신으로
이 시대에 보낸 게 누구지!?
네놈의 동료냐!?

……

생체 엑기스를
에너지로
빨아들이는
거야.

후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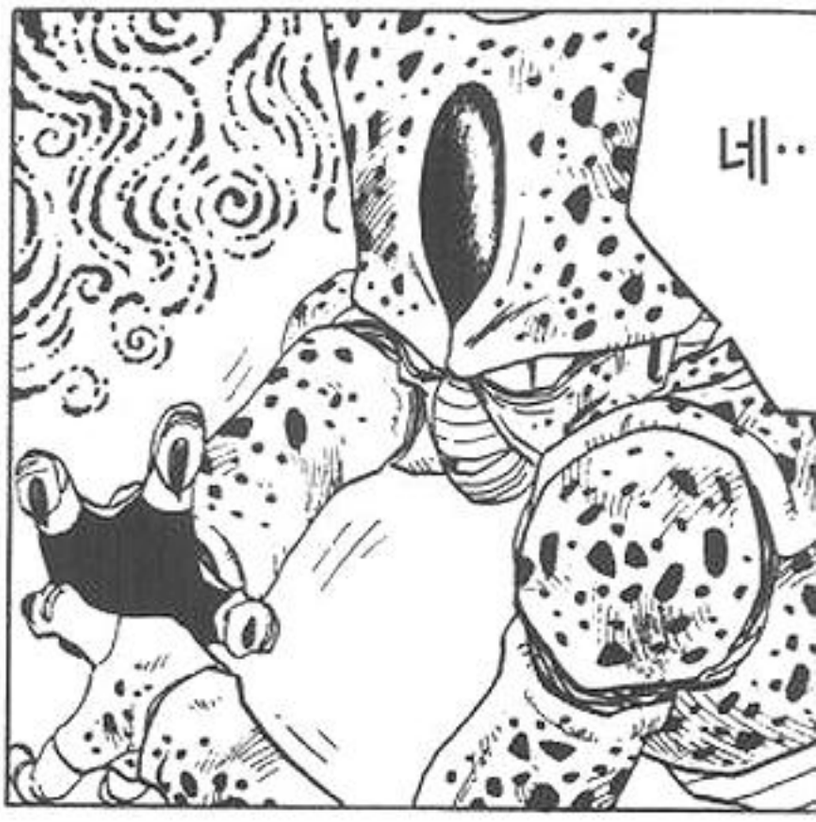

근데…, 네가
타임머신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운걸….
보낸 건 바로 나 자신이다
그 타임머신은 이 몸엔 작아서 말
내 자신을 알까지 퇴화시
필요가 있었던 거야


설마
이런 것까진
모르겠지….
그렇지만


에….


!
샥











다음은, 제363화 밝혀진 괴물의 수수께끼


에….
네…
르….
기….
파—앗!!
이…
이럴 수가…!


진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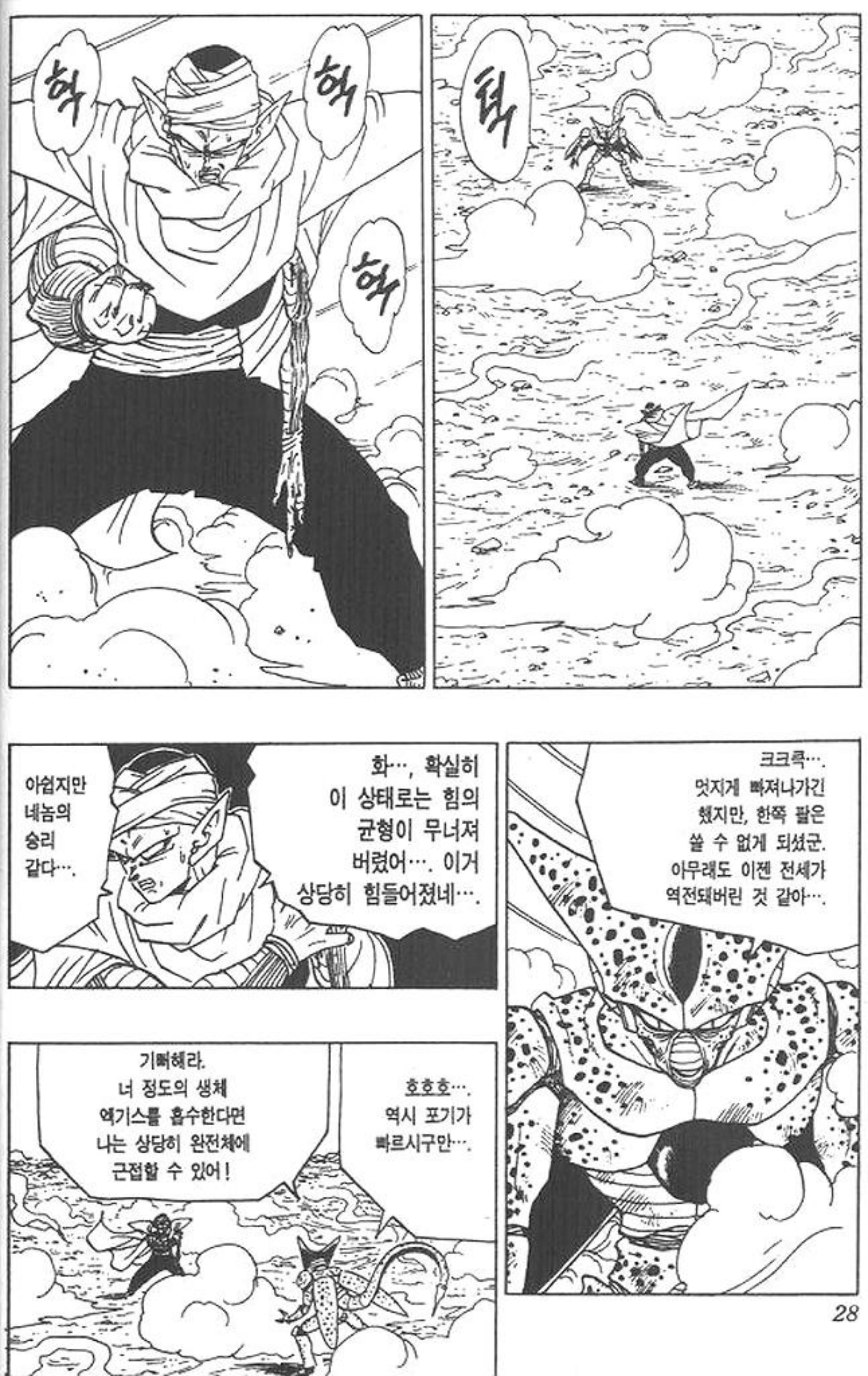



크아아!!
!!


!!
넌 이제
세상
하직이다!


우우욱!!
쾌야
쾌
아윽!!
쳇! 팔에 꽂혔잖아.
하지만 팔이라도 상관없어. 네놈의 강력한 생체 엑기스는 이제 내 거다!
우오우… 우욱…!!


쭈우우…욱
끄윽…!!
퍼억
팔팔
터억



헉
헉
헉
헉
크크큭….
멋지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한쪽 팔은
쓸 수 없게 되셨군.
아무래도 이젠 전세가
역전돼버린 것 같아….
화…, 확실히
이 상태로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 이거
상당히 힘들어졌네….
아쉽지만
네놈의
승리
같다….
호호호….
역시 포기가
빠르시구만….
기뻐해라.
너 정도의 생체
엑기스를 흡수한다면
나는 상당히 완전체에
근접할 수 있어!

네놈 정체는 대체 뭐야?
왜 손오공이나
프리더일당의 "기"를
지니며,
에네르기파까지
가능한 거지…?

너에게
흡수당하기 전에
꼭 듣고 싶은 것이
있다….

내 이름은
'셀', 인조인간
이다….

좋아.
어차피 넌
죽은 목숨이니
가르쳐주마….

…….

또…
또 닥터
게로냐…!?

날 만들어준 건
닥터 게로가
사용하던
컴퓨터야.

그 옛날, 닥터 게로는
전투의 달인들의 세포를 모아,
그 세포를 합성시킨 인조인간
연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
도중에 단념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 작업을 그대로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지….

손오공…, 피콜로…,
그리고 베지터의 세포는
베지터 일당이 지구에
왔을 때 벌인 전투에서
채취했다….

또한 프리더와
그의 아버지가
지구에 와서 그들의
세포가 손에 들어온 것은
행운이었다.

트랭크스라는
꼬맹이의 세포도
손에 넣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사이어인은 이미
충분했어….

…….

그… 그
당시의
오공이라….

그래서 지금의
에네르기파는
별로 위력적이지
못했군….


어…
어떤 식으로
세포를 모은
거지…
그… 그때는
수상한 놈 따위는
전혀 없었는데….
닥터 게로한
들었을 텐데
너희들의 행동
스파이 로봇
탐지하
있다고…
작은 로봇이다.
그게 세포까지
수집해온 거야.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걸.
눈 좀 크게 뜨고 잘 봐라.
바로 지금도 여기 와서,
이 상황을 데이터화해서
컴퓨터로 송신하고 있다.
혹시
네 세포를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
!?
빌어
먹을!!

당연히 내가 완성되는 건 24년 후에 있을 미래의 일이지만.

크크큭…. 지금 파괴해봐야 이미 늦었어…. 벌써 필요한 세포를 모아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

꽝!!

그랬군….

컴퓨터가 있는 곳은 그 연구소의 더 깊숙한 지하방이라네.

떨떠름한 자식! 닥터 게로의 연구소는 파괴되었어!

네가 일부로 미래에서 온 이유는 뭐냐!?

마지막 질문이다!

슬슬 너를 흡수 하겠다.

이상이야….

한 번 알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숙성하는데 땅속에서 3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이 시대에 온 후, 알에서 그 모습이 되기까지 3년이나 걸린 이유는…?

컴퓨터가
가르쳐준
그 두 명의 특수
생명체란….

내가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생체 엑기스
흡수만으론 부족하다….
어떤 두 명의 중요한 특수
생명체를 합체시킬
필요가 있어….

닥터 게로가
만들어낸
인조인간
17호와 18호다!

하지만 운좋게도
트랭크스는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었지.
트랭크스를 죽이고,
나는 17호와 18호를
찾아 타임머신으로
이 시대에 온 거야….
이유는 그거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
나의 미래에는
어찌 된 일인지
모르지만, 17호와
18호는 그 트랭크스란
놈한테 당했는지
보이지 않았어….

뭐
야
!?

그랬군…. 이마 트랭크스가 미래의 인조인간을 무언가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세트해둔 타임머신이겠지….

글쎄…, 트랭크스의 타임머신이 이 시대로 세트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난 그냥 스위치만 눌렀을 뿐이라구.

왜… 왜 이 시대를 택한 거냐…?

뭣 때문에 그런 압도적인 힘을 가지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컴퓨터는 그런 얘기도 했다!

컴퓨터는 무조건 강한 자를 만들도록 입력되어 있다구. 생각할 수 있는 한계까지 말야….

이유라고? 시덥잖은 걸 묻는군….

그렇지 않으면 내게 흐르고 있는 사이어인이나 프리더, 피콜로의 피가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지….

완전체가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군….

우오오
오옷… !!

두둑

미안하다,
덕분에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어….

!!

빌싹

많은
참고가
됐다.

너, 임마. 내 피도
흡수한 주제에
팔의 재생도
눈치 못채다니,
진짜 띨빵하다.

완전체란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될 거다….

내게
비밀을
들으려고
… !!

너… 너,
이 자식… !!

다음은, 제364화 셀의 웃음

셀…. 네놈에게
흡수당한 한쪽 팔만큼의
에너지 양을 더해서
계산한다 해도 아직은
내 실력이 위다….
각오 단단히 해.

지금 이건
원래 신이었던
친구의
지혜야….

나쁜 쪽으론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네.

땅구를
굴리셨구만….
팔을 잃는
척하면서
내 이야기를
다 듣다니….

피콜로와
신이 합체한 게
바로
네놈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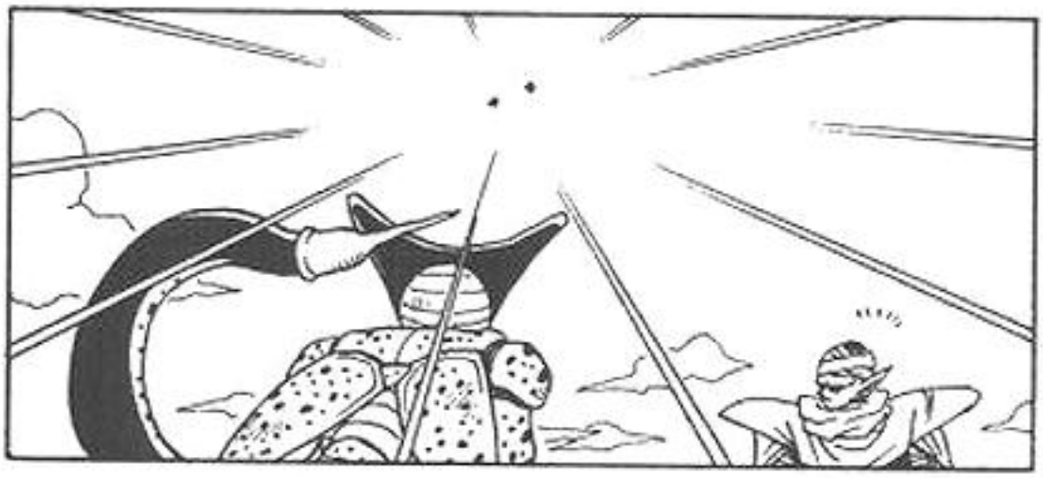
그랬
구만!

뭐야!?


크크큭…. 오히려 잘됐어….
그렇다면 드래곤 볼도 없어졌단 얘기잖아…. 이젠 죽었다 되살아날 수도 없겠군.


이제야 눈치 채셨나….


겉모습은 피콜로 대마왕 그대로인데 말야….
어쩐지 세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






트랭크스…!! 어떻게 저놈이…. 그랬군! 저 녀석,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도…!


흥…. 멍청한 놈…. 미래에서 내 손에 죽고, 이 시대로 와서도 죽는다니….


분명 그놈이야…! 지난번 그 허물에서 나온…!
저, 저쪽 놈은…!



탁
차차
…….
와…, 완전 괴물이다….
이… 이놈이 진저타운의 사람들을 죽인 놈이야…?
그래.
꼬리를 조심해. 모두 그걸로 죽었다….
…….
그… 그런데 왜 이런 놈한테….
손오공들의 기가 느껴지는 거지…?
자세한 이야긴 나중에 할게.
이놈을 처치하는 게 더 중요해.
나를 처치 한다고?
그게 애들 장난처럼 쉬운 줄 알아?
우와…! 말도 하네!

이 상황에서는
너한테 코딱지만큼도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
이 자리에선
후퇴할 수밖엔
없겠군.

도망은
안 돼….

이미 아까
사용한 정도의
에네르기파
가지곤 택도
없으니까!

에네르기파
!?

이놈이
오공의
에네르기
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에네르기파
뿐만이
아니야,
크리링.

마음만
먹으면
원기옥까지도
아마 쏠 수
있을걸….

노…,
놀라운걸.
내 이름까지
알다니.

손오공한테
알려주면
놀라 뒤로
자빠지
겠네….

!?

호오….
손오공이
살아있냐?

다, 당연
하지…!

그래,
아직
살아있었군.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약간
달라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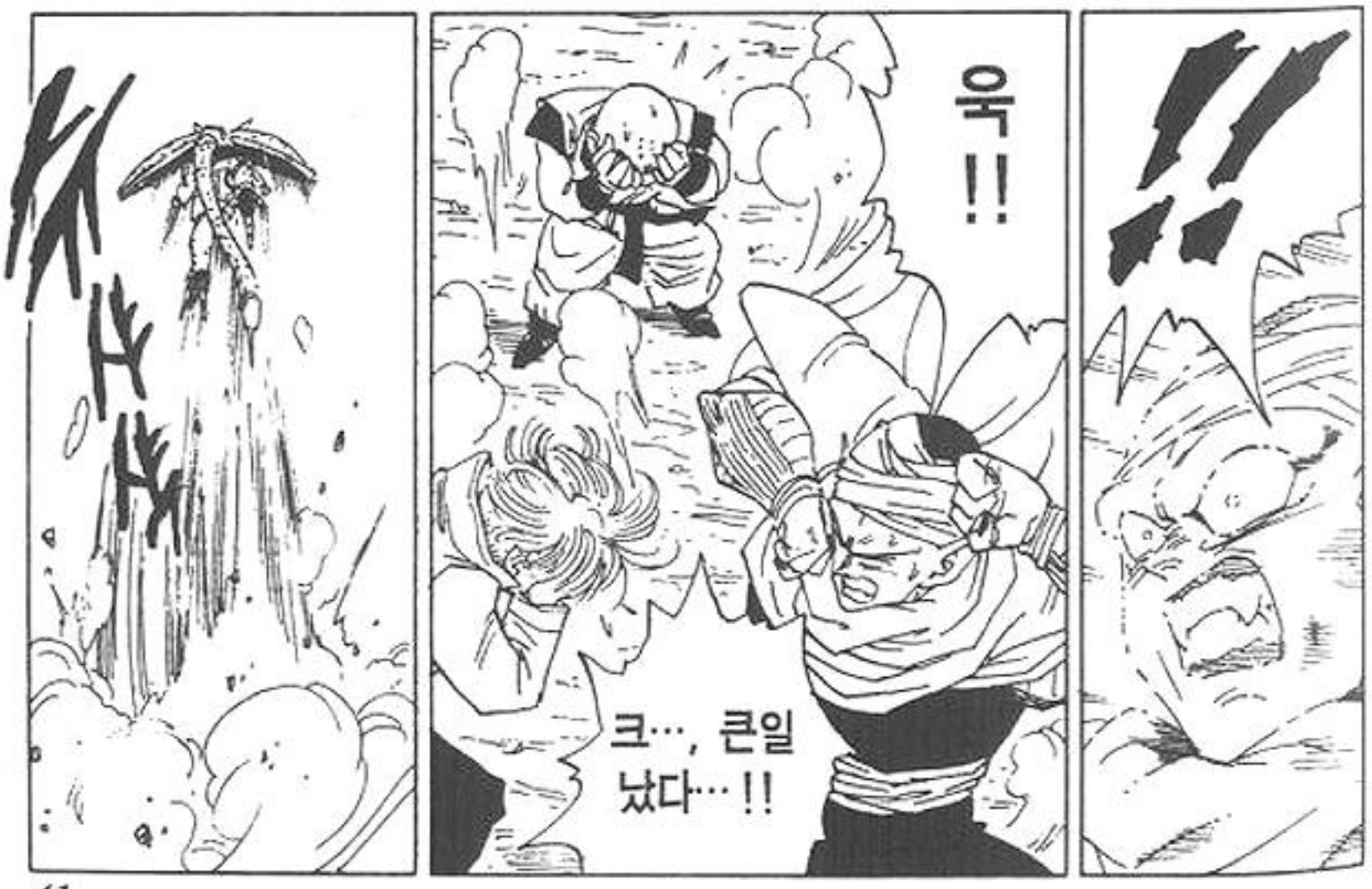
너희들이 내가
완전체 되는 것을
막으려 해도 쓸데없는
짓일 거다!
17호들과 조금은
제대로 맞장 뜰 수
있는 건 피콜로
한명이라구!

17호,
18호를
반드시
손에 넣고
말 테다!

앗!?

아니,
저건…!


태양권!!


!!
욱!!
크…, 큰일 났다…!!

태… 태양권은 천진반의 특기 아니었어!?

빌어 먹을!!

도, 도망쳤어!!

제… 제길…!

이놈…!!

깡!!

오공이나 나도 할 수 있다구….

태, 태양권은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야….

그 녀석,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나…!?

쳇…, 기를 숨기고 있다니….

이렇게 기를 죽이고 행동하면 무슨 재주로 찾겠어.

크크큭…! 날 몰로 보다니. 날 잡는 건 이제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걸.

그래서 파워가 17호들을 절대적으로 능가하면 전력을 다해 합체하는 거다…!

저놈들의 눈을 피해 계속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해, 파워를 지속적으로 올려갈 거야….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제아무리 강한 17호들이라고 해도 저놈들이 파괴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니까….

제일 두려웠던 건 17호들을 정지시키는 컨트롤러의 존재다.

하지만 그 컨트롤러도 이젠 존재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야.

슈슈

슈슈슈

그건 그렇고…,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텐데….
마음 푹 놓고 생체 에너지나
실컷 먹어볼까!
피콜로 애들이 눈치를 채면
다시 장소를 바꾸기만
하면 되고….

헤——앙

!

베지터 아냐…!?
저놈도 아직
17호들에게 죽지
않았네….

서두르는 게
좋겠다.

더구나
저놈까지
예상밖으로
파워가
크잖아….

17호인지 뭔지 하는 인조인간놈들이 아닌걸. 놈들에게는 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 도… 도대체 어떤 놈들이지…!!

두 개의 무식하게 큰 이상한 전투력을 지닌 놈들 가운데 하나는 사라졌어…. 하… 하지만 다른 한놈은 남아있어….

……

주…. 죽이는데 ….

완전체 되는 건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자식 …!

완전히 박살을 냈어야 했는데…!!

제길~!! 방심했어 …!!

!!

!!

……

슈!

피… 피콜로 …!!

설마 …!!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 말해 봐….

탓

이거 하나만 물어 보자….

그럼 그 전에 ….

그 친구가 도착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마….

천진반도 이리 오는 것 같군….

뭐라고…, 합체…?

뭐….

그… 그것만으로 ….

신님과 다시 합체 했대….

너 진짜 피콜로 맞아…!? 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전투력을 가지게 된 거야…!

왔다! 천진반이야.

이… 이럴 수가…. 저놈은 기껏 그 시시껄렁한 나메크성인인데….

그… 그때 느낀 전투력은 초사이어인인 나를 훨씬 능가했어….

알았어, 모든 걸 얘기하마….

저기…. 피콜로…, 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하지…. 천진반이 왔는데….

…어쩌지…? 17호와 18호, 게다가 16호까지 합쳐진 상태에선 아무리 내가 슈퍼파워를 손에 넣었다 해도 너무 벅차….

역시 셀, 그놈을 처치하는 수밖에….

그 괴물은….

베지터와 천진반은 보지 못했지만, 아까 그 괴물은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인조인간이야….

우… 우리의 세포를…!?

뭐… 뭐라고…!?


여러
인간들이
있구만….


후하하하…!
기다려라,
17호! 18호!

생각엔,
직 파워가
다지 강하지
은 셀을
러뜨리는 게
다고
각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셀이 완전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떡해서든 놈을 찾아내
죽이거나, 17호랑 18호를
역시 찾아내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이 자식들이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우주 최고의
초사이어인을
완전히 능가해
버리다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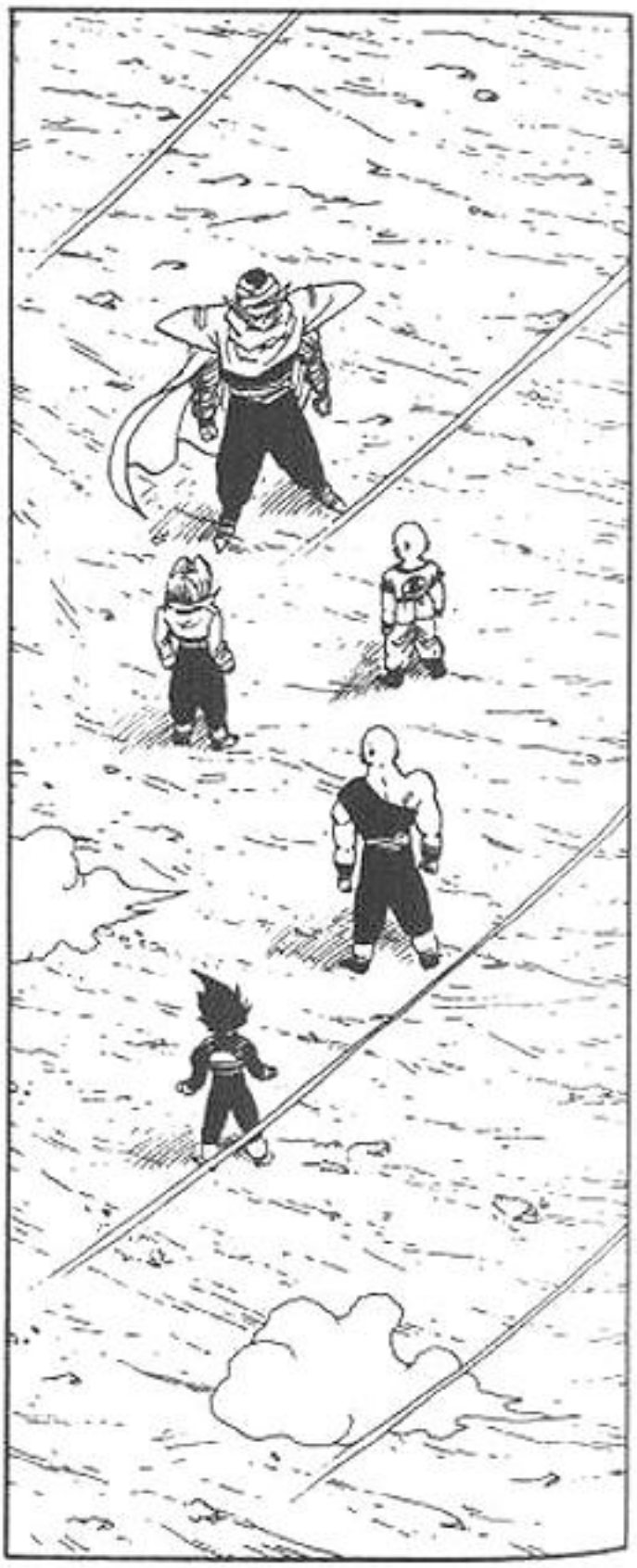
정말 뚜껑
열린다…!
그치,
카카로트…!



제365화

눈을 뜬 손오공









그놈에겐
프리더 부자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지구만이 아니야….
우주 전체의
별들도 위기에
빠질 거라구….

합체하고 싶어하면
시켜줘버리면 되잖아!
없애야 할 상대가
줄어드니 그것도
괜찮지….

쫀쫀하게
치사한 작전만
세우고
있군….

내 피도
말이지….

인조
인간보다
먼저 죽고
잡냐!?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잘난
척이야!!

죽여
버리면
그뿐이지.

난 적이
어떤 놈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전혀
쪽도 못썼던
17호들을 셀은
훨씬 초월하고
있다구.

만만히
보지 마,
베지터.


난 초월하고 말 거야, 꼭 초월할 거라구…!
초사이어인을 훨씬 더…!
초… 초사이어인을 훨씬 더 초월한다고 …!?
카카로트도 그렇게 되려고 할걸….
분명히….
…….
뇌들은 뇌들 멋대로 놀아보셔…!
파파

쟤 지금 맛이 간 거 아냐…!? 그… 그런 게 가능하단 말야…!?

초사이어인을 초월 한다고…!?

이, 이제부터 닥터 게로의 연구소로 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셀을 파괴해도 소용없을까….

아마 그쪽 차원의 미래는 그걸로 좋아질 지 몰라도. 지금 차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응….

17호란 걸 파괴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었지!?

저기…, 네 타임머신을 타고 악간만 과거로 가서….

…….

그러면, 적어도 이쪽 차원의 미래에서는 이제 셀의 탄생이 불가능해질 테니까.

아니, 파괴해 두자.

응!

너희들 둘이서 연구소로 가줘. 나랑 천진반은 이 근처를 좀 더 찾아볼 테니까….

그럼 셀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거북하우스로 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까….


초사이어인을
더욱 초월
한다고….
그딴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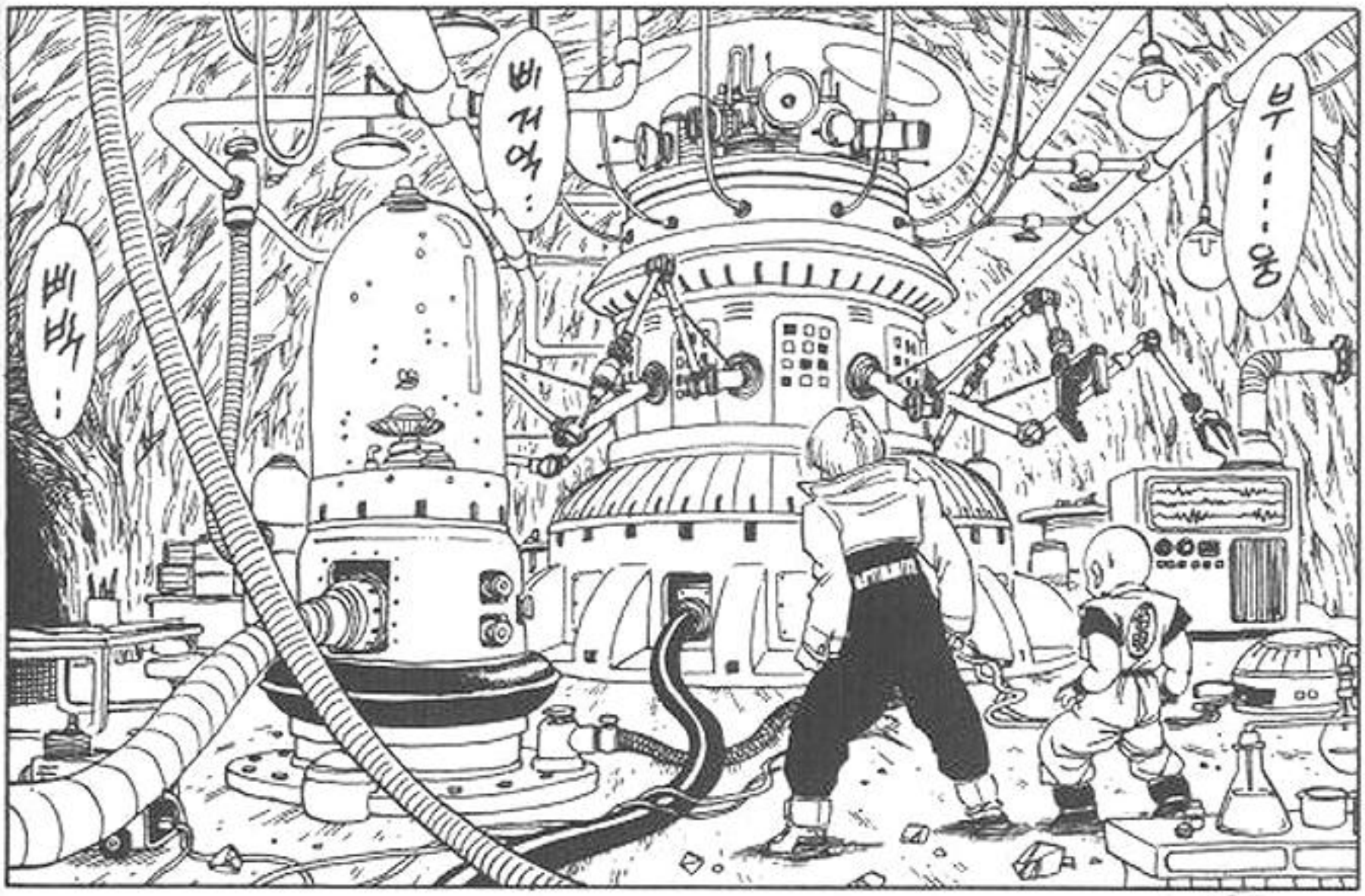

꽈뉴뉴뉴


진짜
지하실 같은 게
었었나…?
어떻게 찾지?
우우~!
아예
이 근처를
몽땅 날려
버릴까…?


와이이이


정말!
와이이이


있어!
아마
여긴가
봐.
크리링
아저씨!


뷔
뷔
뷔


혹시 17호들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이걸 엄마에게 보여주면….
아…! 이거 봐, 여기 17호라고 적혀 있어!


두두


두두두…


파바밧
마무리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야!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얻었네!
쿠콰콰..쾅
그래!

만약 진짜로 초사이어인을 초월할 수 있다면 나도….

난…, 아빠와 함께 수련을 해볼 생각이야.

저, 저기. 크리링 아저씨. 이 설계도를 엄마한테 좀 가져다 줄래…?

뭐!? 넌 같이 안 가?

그렇지만…, 혼자 수련하는 것보다 대전을 하면서 수련하는 게 완성 속도가 훨 빠르다는 건 아빠도 잘 알걸….

나… 나도 그런 아빠와는 함께 수련하기 싫어….

사, 상관 없지만, 베지터가 지 옆에 두려고는 안 할걸….

알았어! 힘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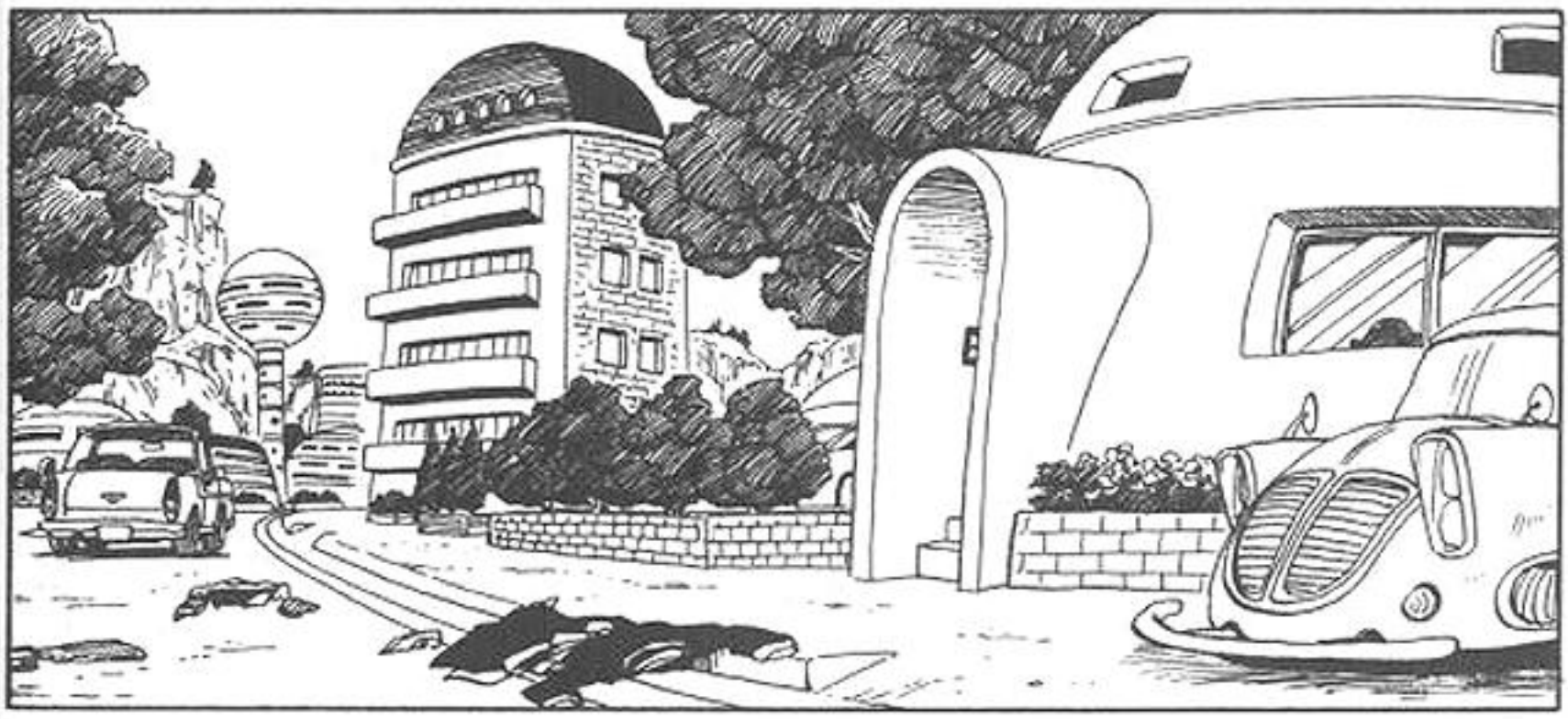
이!

피융

피융

희미하게 기의 흔들림이 있어…!

저쪽….



이…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 우리 기를 느끼고 도망을 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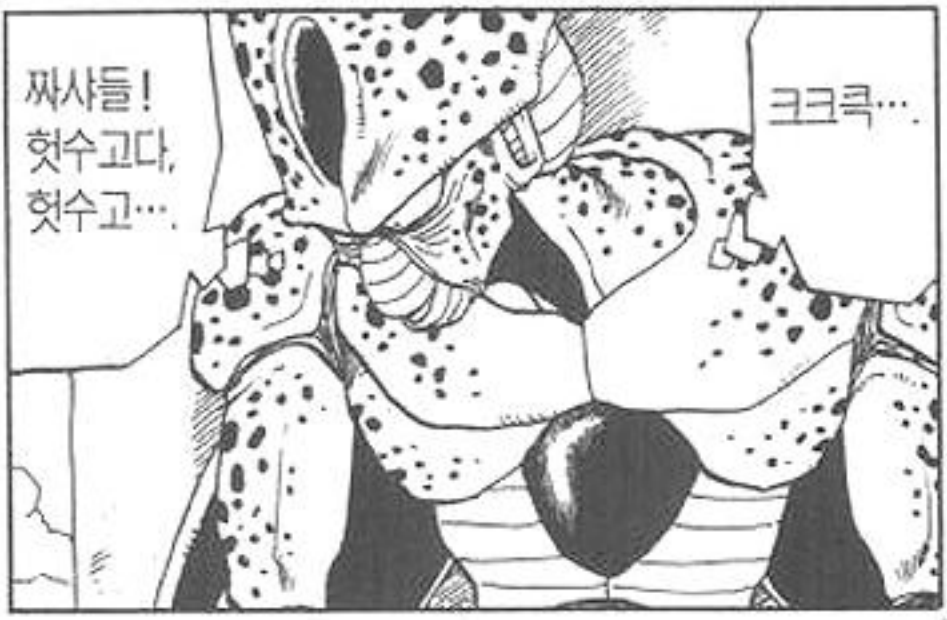
기를 죽이면서 오면 속도가 안 나고…!

늦었나봐…. 지…, 진짜 재빠른 놈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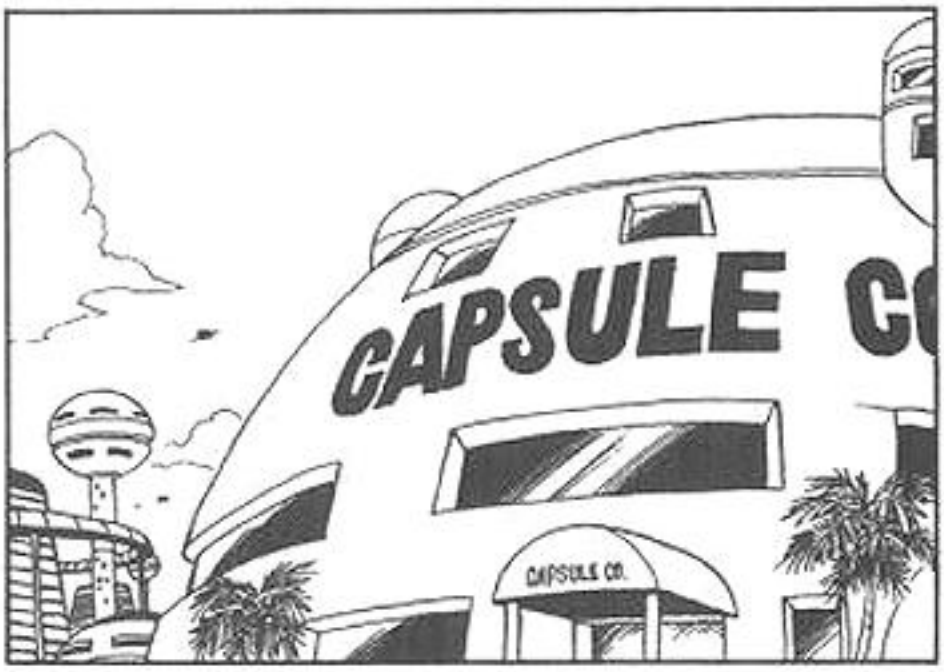
제길…!

타닷

차앗


짜샤들!
헛수고다,
헛수고….
크크큭….




CAPSULE
CAPSULE CO.


말하자면…,
이 설계도로
17호란 인조인간의
약점을 찾아내,
셀과 합체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지…?
이… 이럴
수가….

자세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작은 기계가 약점일지도 모르겠는걸….

이거라면 분명 세포 수준에서 융합하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

인간을 베이스로 해서…, 거의 유기질만으로 개조되어 있어….

나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끄~응…. 이거 진짜 대단한 물건이다, 물건….

아까비…. 닥터 게로도 이런 천재적인 머리를 좀더 좋은 쪽에 썼다면….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있었다….

부탁합니다!

서둘러서 조사할게, 크리링.

이번엔 남쪽지구 잖아!

제… 제길~!

지난번 그 괴물이 이번엔 남쪽 지구 48지점의 큰 마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미 주민의 반 이상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유
Z웅
이걸 타고 접근하면 셀에게 기를 들킬 염려는 없어…! 이번에야말로….
머리가 비상한 놈이야…. 가까이 접근해도 숨어 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는걸….
쿵쿵
철컥
어머?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찌찌….

병은 이젠 다 나았어.

오공!

이제야 깨어났니!

다행이네….

쏘옥…

뭐, 뭐 뭐 하는 거야?

또 나가려고?

아, 오공! 깨어 났냐!?

아니, 뭘 하려고!

더 누워 있어야 해!

꿈 속에서 모두의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대충 상황은 알아….

또 일이 골치 아프게 된 것 같군.

초사이어인 보다 더 위쪽의…!

후우욱

벌써 싸우려고!? 그러다 죽게 돼!

오… 오공….

걱정 마…, 아직 안 싸울 거니까….

지금의 베지터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도 못이기거든….

나도 더 수련해서 실력을 높일 거야….



제366화 사이어인들의 수련




















그럼 갔다올게.
사… 사라졌다….
어떻게 한 거지…?
글쎄….
부아아---앙
!!


안녕!
오공!!
아빠!!


이제 몸은 다 나은 거니?
응, 배는 고프지만.


예전에 말한 순간이동이란 건가!?
그래.
어, 어떻게 온 거야!?


오반을 데리고 수련하러 갔다올게.
난 지금 이 상태로는 인조인간에게도 셀에게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단 하루로 1년간의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름까지 합체시키지 마…! 기본은 거의 피콜로라구….
신콜로님.
그냥 피콜로라고 불러.

역시….
하지만 그 방에서 1년간 견디며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옛날의 너도 겨우 한 달밖에 지내지 못했잖아….

그래!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갈 생각이구나!

그 녀석들 이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베지터와 트랭크스도 데려갈게.

빨리 가라.
셀은 인간을 죽이면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어….

그래!

프리더보다 더 엄청난 적이 나타난 게 두렵니?
아님 기쁜 거니?

오공, 말 좀 해봐.

오반!
내 손을 잡아라.

아, 예….

사사삭

양쪽 다야….

……

참새 눈곱만큼이지만 희망이 보여….

저 녀석, 진짜 초사이어인을 능가할 지도 몰라….

됐어…. 아무래도 오공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구가 다 망해 가는 때에….

진짜 재수 뽕인 녀석이네….

!!

놔!

오공 아저씨!

어때? 특별 훈련의 성과는.

안 되겠어…. 아빠는 날 단지 귀찮은 훼방꾼으로밖에 봐주질 않아….

역시 베지터 답군….

희미하지만, 초사이어인보다 초월한 세계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아빠도 요즘 3일 동안 그냥 저렇게 서있기만 하고….

그런 소리 마. 난 수련하기 좋은 장소를 알려주러 왔다구.

꺼지라구….

카카로트, 방해하지 마….

탁

그래, 따라와. 꼭 나하고 같이 수련하자는 건 아니니까.

진짜냐…?

단 하루로 1년간의 수련이 가능한 방이 신님네 신전에 있어.

다만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상관
없어….

알았어…?

그렇지만,
그 방의 정원은
두명까지야.
시간이 없으니까
넌 트랭크스와 함께
들어가도록 해.

좋아.

16호, 알 수 있니?
놈이 숨어있는
장소를.

그럴
테지….

하지만 그놈이 동료들
있는 곳으로 갔다면
서쪽 도시의 캡슐
코퍼레이션이나,
남쪽 F지점에 있는
무천도사의
작은 섬이다.

레이더에는
오공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걸.

도망친
거야.

역시
손오공도
아무도
없어.

이런.
이런….

가자!

무천도사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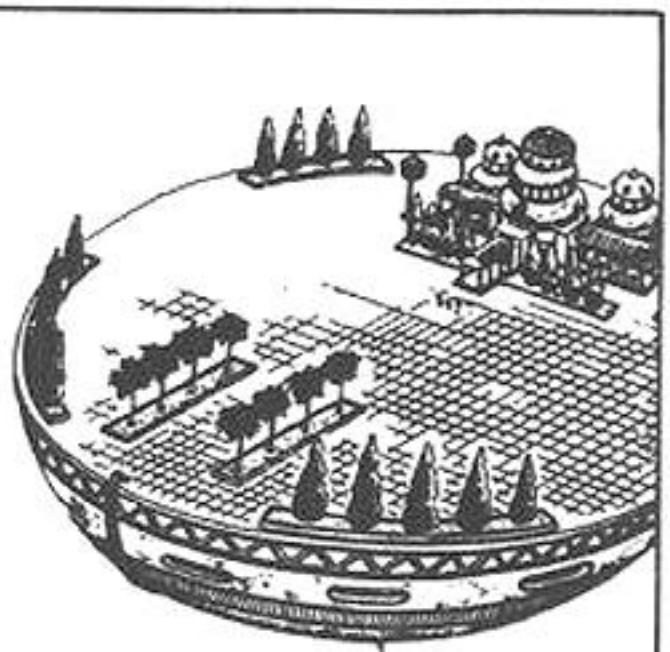
여기서
남동쪽으로
약 2,700km.

그 중…,
가까운
쪽은
어디지?

그렇군.

알았어….

따라와라.



목욕탕과
화장실, 식량,
침대 정도는 있어.
열심히 수련해.

그건 너도
느끼고
있을 테지.

이번 적은 분명
혼자 힘만으로는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냐.

내 최종
목표는
바로 넌데.

카카로트…,
왜 내게 수련을
권하는 거지…?

후회하게 될 지도 모를 텐데….

……

끼야-

먼저 할게, 오공 아저씨….

열심히 해! 둘이 잘 지내고.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먼저 들어간다.

여기야. 누가 먼저 쓸래?

중력도 몇 배나 더 돼….

공기도 별로 없고….

우…, 덥다….

덜썽

여긴 어디지?

어….

아… 아무것도 없네…!

그, 그냥 새하얀 공간이야…!

……

이… 이런 곳에서 아빠와 1년씩이나….

이걸로 됐어….

그렇군….

손오공 아저씨가 미칠 것 같아서 한 달도 견디지 못했다더니….

엄청나게 넓어….

이… 이런 곳이었나…?

역시 안 되겠군…. 숨을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 무리였나봐…! 제길…. 기를 지워 버리다니….

구아아 ····앙

이거 야단 났네….

이미 상당히 강해져 있을 텐데…. 언제 17호들과 합체해서 완전체가 될지 모르겠는걸….

이렇게 된 이상 오공들이 진짜 초사이어인을 초월하기를 바라며….

함께 17호들을 쓰러뜨리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꼬박 하루가 지나려할 무렵….

이 수수께끼의 악마는 여전히 신출귀몰하여, 이미 그 피해자가 수십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악마 때문에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억

세… 셀,
이 자식….
이제 그만 해라,
셀….

퍽

안뇽.

손오공은
있으신가… ?

제… 제길…. 타이밍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일어나…! 반갑지 않은 최악의 손님이 오셨다….

손오공은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런가…?

그냥 얌전히 돌아가주셔. 손오공은 여기 없다!

앗!!

그런 것 같네…. 그럼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래?

글쎄, 어떨까…. 가르쳐주지 않겠다면 억지로 불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순순히 가르쳐줄 것 같나?

어… 어떻게 여길 알았지….

어쩔씨구리 …

사람 귀찮게 만드는 놈들이네….

그러면 한 판 붙어볼까?

역시나….

저쪽에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하자….

저… 저놈들이 인조인간이란 말이냐….

파파팟

……

너희들은 오지 마. 덤벼도 소용 없다는 건 잘 알지?

그…
그때까지
어떻게든
부탁한다….

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공애들
네 명 가운데 누구든
두 명이 수련을
마칠 텐데….

무리야….
사…, 상대는
세 명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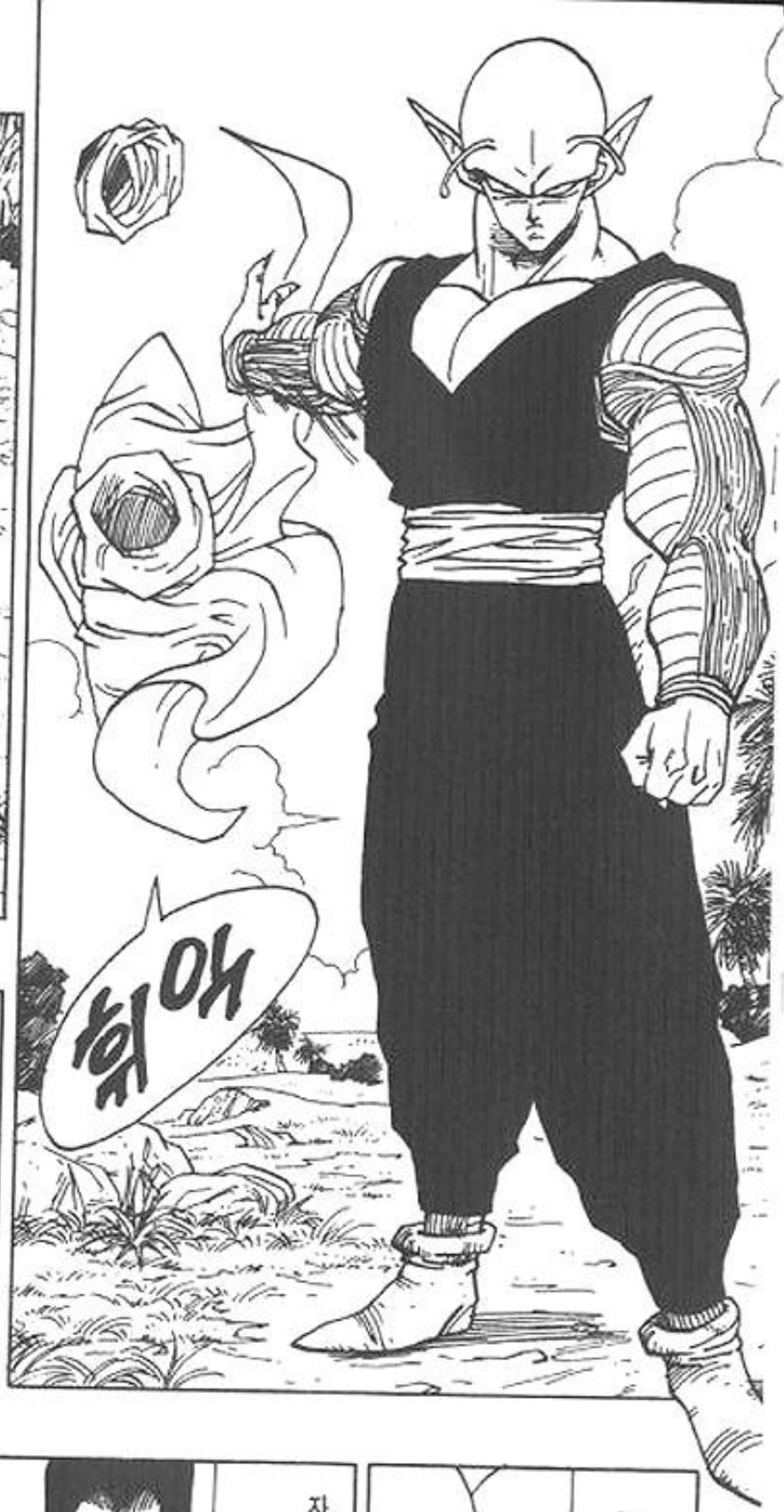
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이번엔 진짜
죽일 거야….
알겠지?

흥….
지난 번처럼
쉽진 않을걸…!

다음은, 제367화 신생 피콜로 대 17호




허아


단지
시간 벌기냐,
아니면 머리가
모자라냐…?
왜 절대
이기지도 못할
승부를 하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걸.


자,
덤빌 테면
덤벼라.


……
흥….


너 혼자 싸울 거냐…? 17호….
당근이지.
너 같은 놈 따윈 원래 나까지 상대할 필요도 없다구.
걸렸다…! 상대가 한명뿐이라면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을 지도 몰라…! 어느 놈이든 하나만 쓰러뜨리면 셀이 완전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부르르

피콜로가 아냐…!

뭐야!?

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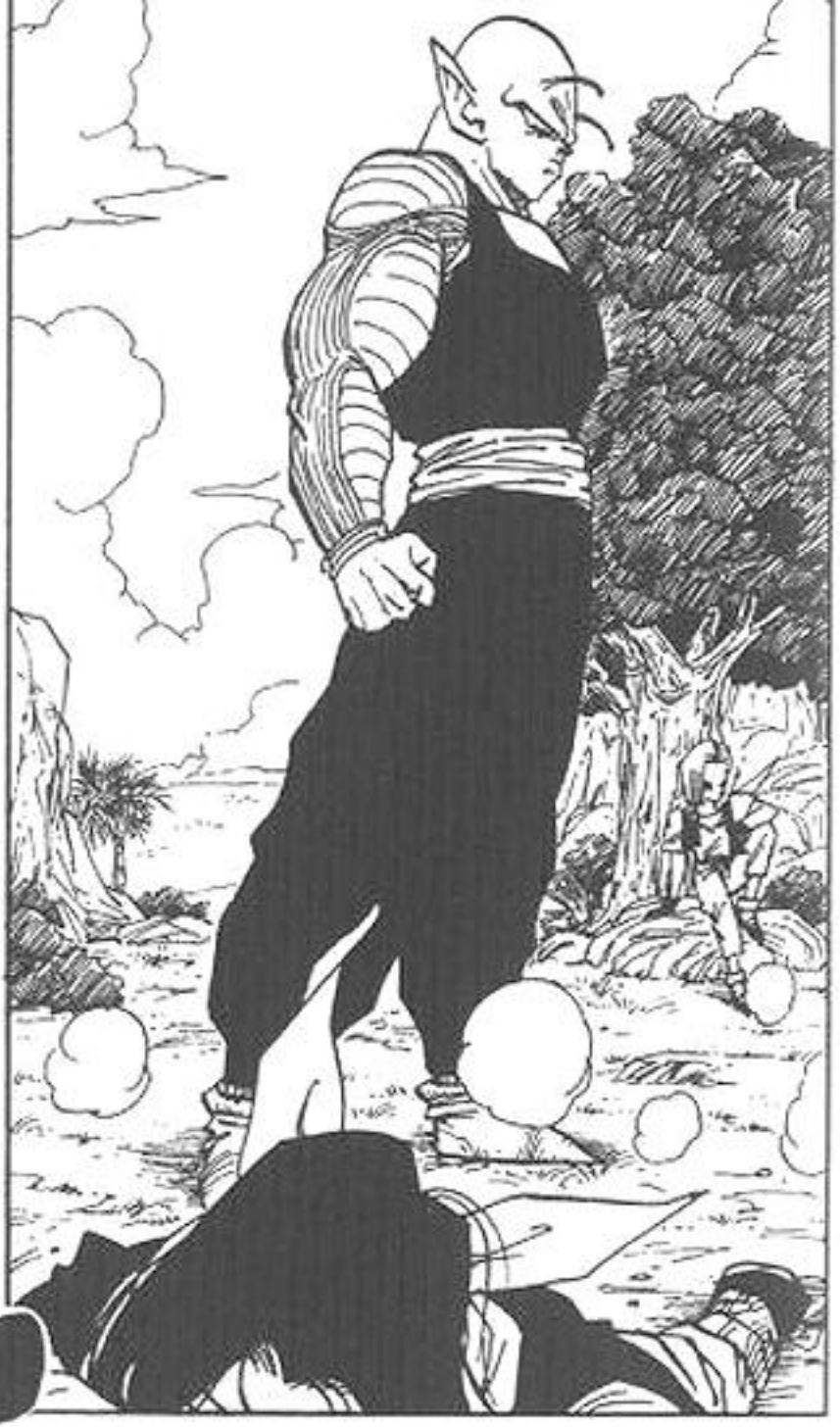
RR


ドカ
ドカ
ドカ



과당탕






ドドド


쿠쿠쿠쿠...
쿠쿠
부---음

사…, 상대는 셀이란 놈인가…!

시작됐다…. 피콜로가 싸우고 있어….



아니…, 상대의 기가 느껴지지 않아. 분명 인조 인간들이야.

피콜로 아저씨가 죽겠어!

그럴 수가…!

……!

분명 이제 곧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파워업해서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의 피콜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달인이 되었다구….

아직 멀었나…, 베지터…! 역시 초사이어인을 초월한다는 건 무리인가…!?

지금 상태로는 수준차가 너무 난다구! 괜히 방해만 되고 싶냐!!

가봤자 소용없어, 오반!



……!?

사라져라!!

넌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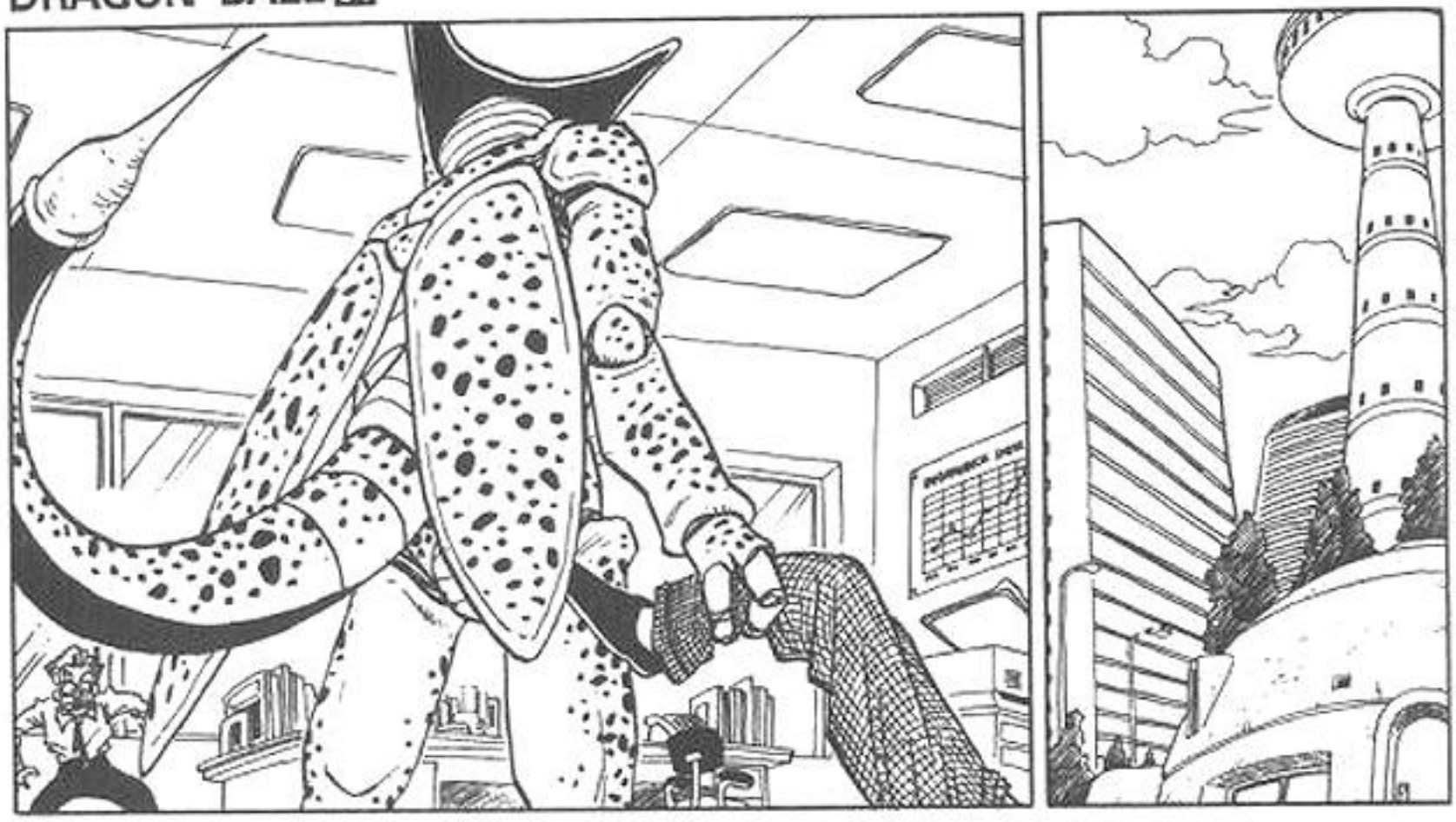

!!
KYOU


KYOU
KYOU
KYOU


쥐아아아아
!!
쥐아아아
뭐…
뭐지…!
대체 무슨
일이…!?
!!
HH
OH
!



바…, 바리어…?
안 됐군!
진짜 아까비였어….
…흥….
아직 멀었다. 이제부터 진짜라구…!
장소를 옮기자.
언놈께서 섬을 지워 버렸으니까.
자연을 소중히 간직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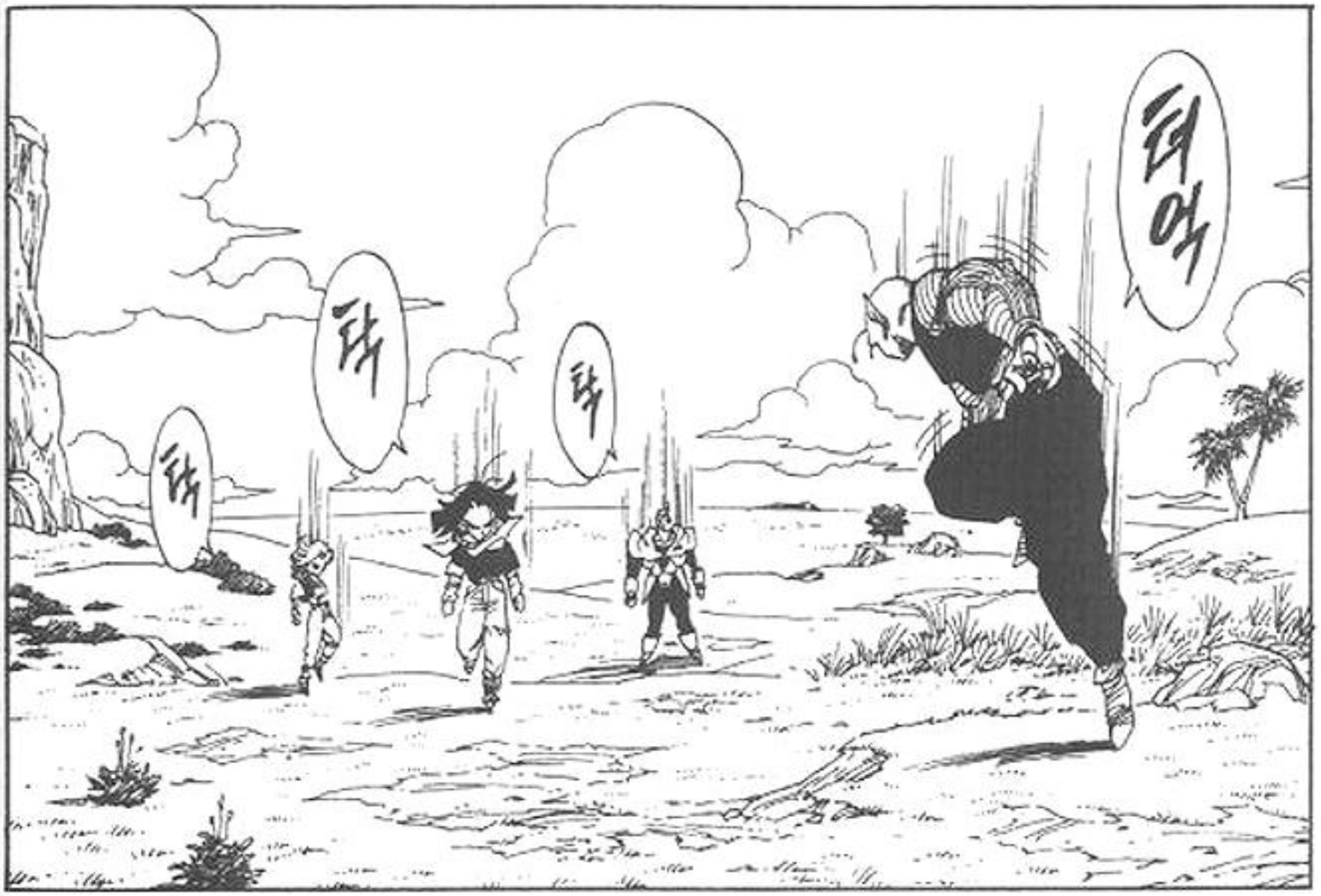








다음은, 제368화 셀의 접근


탁
탁
탁
더어


어차피 네 정체 따윈
관심 없어. 손오공이 있는
장소만 알고 싶을 뿐이니까.
여전히 가르쳐줄
생각은 없으신가?
분명 피콜로
대마왕은
아닌 것 같아….
인조인간도
아닌데 파워가
대단하군….


슥…
그럼 계속
싸워보실까….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말야….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줄 것
같냐.
네놈들의
목적은
오공을
죽이는
거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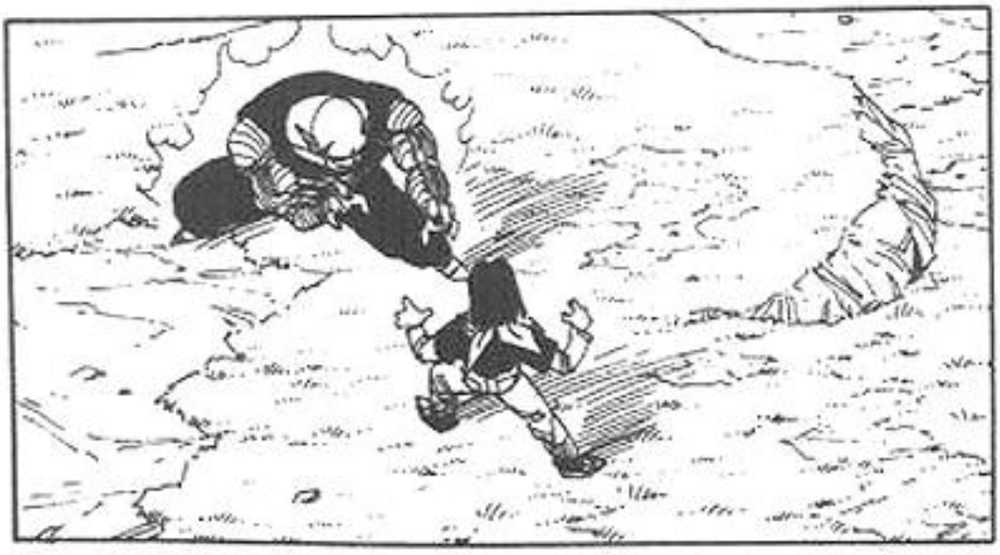

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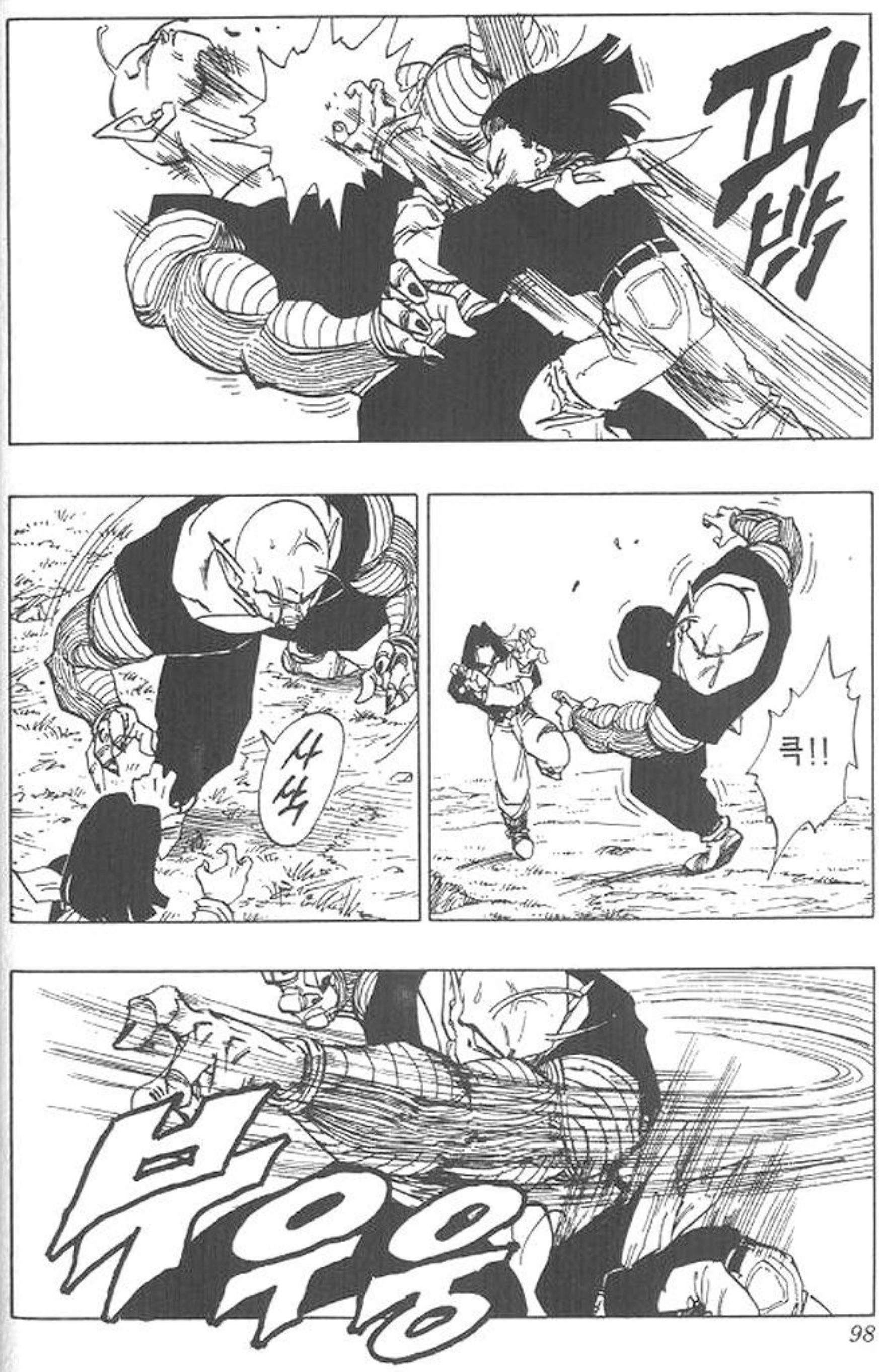

이번엔
진짜
파워를
내보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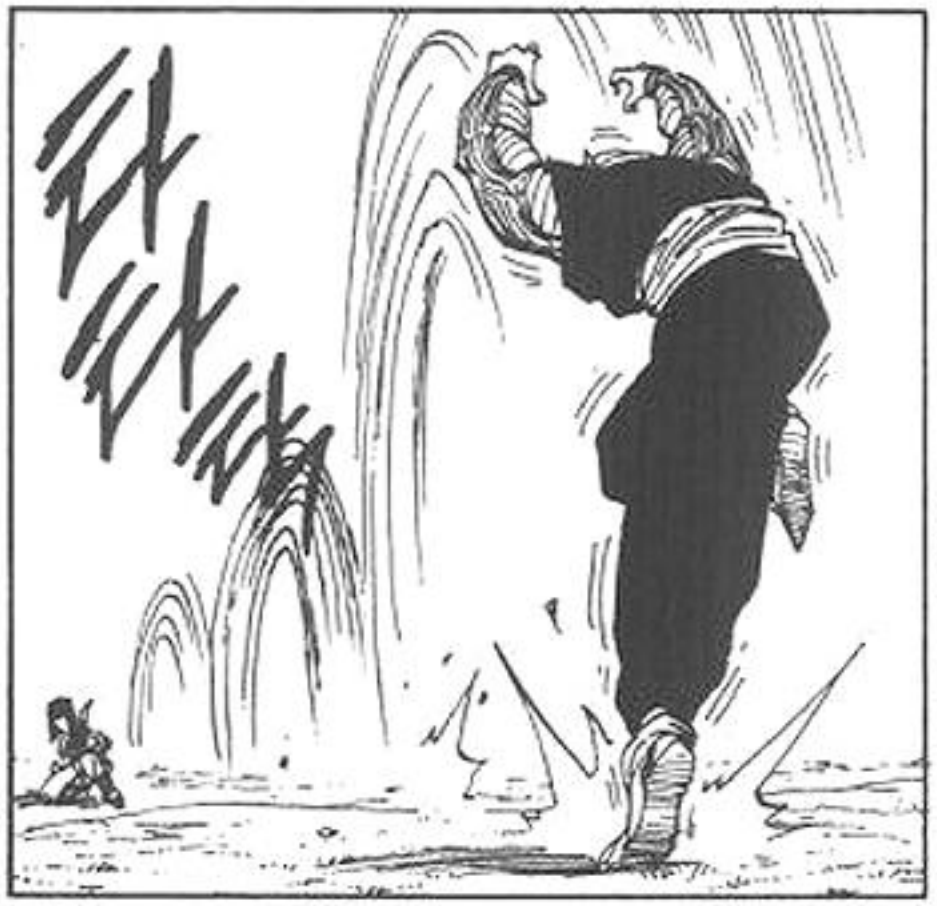

꺄!!!


탁




파박
큭!!
사삭
부우웅


어윽…!
파야
퍽
퍽
퍽


싸싸싸


부웅
퍼억


그렇지만 펀치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아.
스피드는 상당한걸….


탭


툭
툭


사상 최강의 인조인간 17호한테 감히….
뭐라고…? 어디서 잘난 척 헛소리를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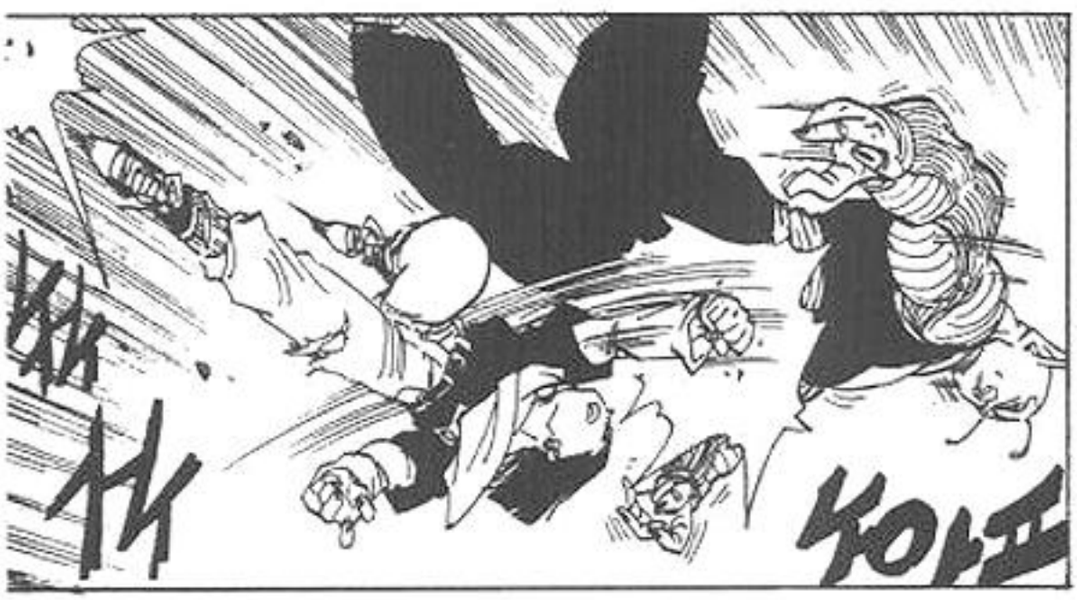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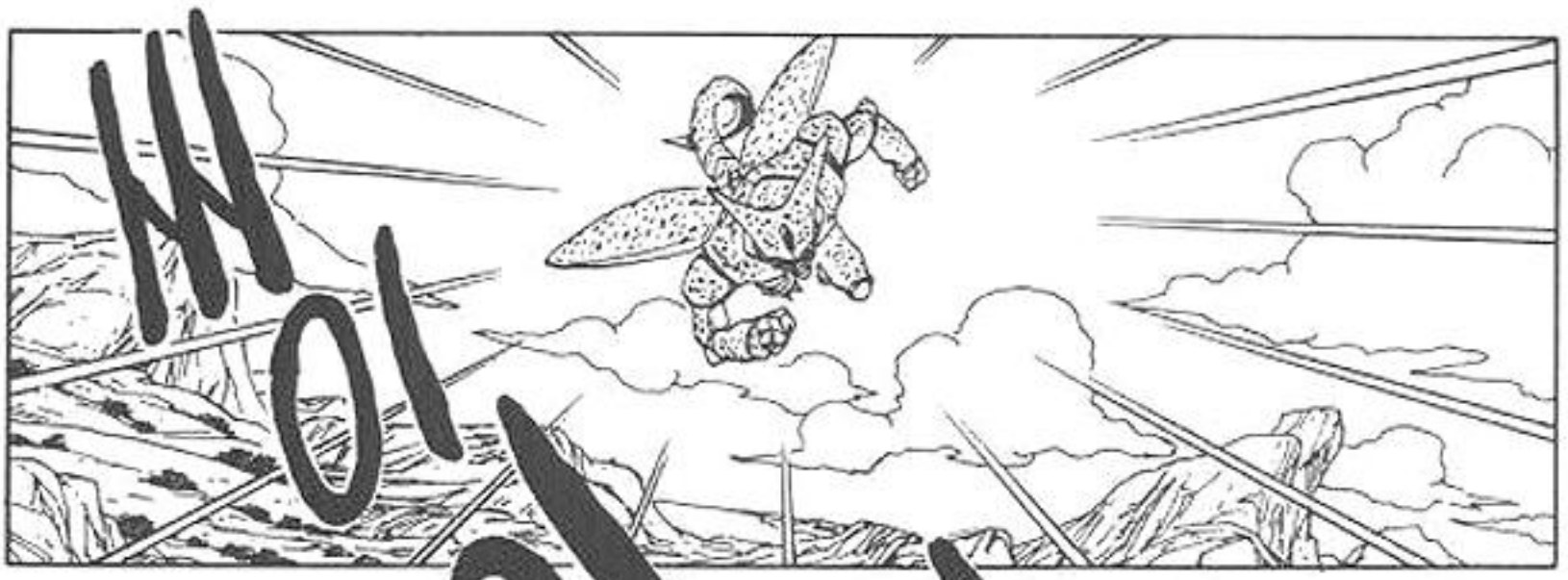





저 녀석…,
진짜 강한데.
17호와 막상
막하야….

scanned by raprnb






OOOO

진짜 오랫동안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완전체가
되는 날을…!

KAME HOUSE

으하하-
하핫!

피융

제… 제길…!
우린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나…

주,
죽여준다…!
피콜로는
아직 잘 싸우고
있나봐!

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 하필 이럴 때
접근해오잖아….

세….
셀인가…!

크리링!
부르마한테서 전화야.
인조인간들의 약점을
찾아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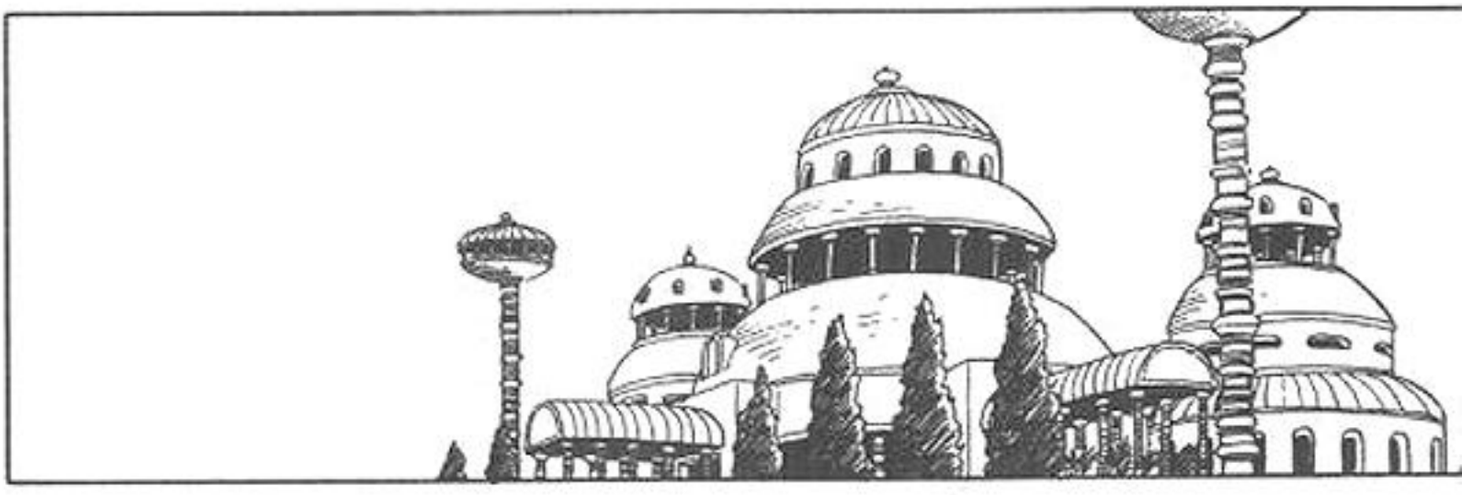
엥!?

그래! 17호와 18호는
긴급정지용의 회로가
부착되어있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간단히 파괴할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 컨트롤러는
이미 만들어 놨어!

미, 미안하지만
빨리 가져와 줄래!
지금 피콜로가
인조인간과
싸우고 있어!

그래,
금방 갈게!


왜 그래…?
아… 아냐….
파괴라고….
……
17호들을 파괴해 버리면 셀은 완전체가 될 수 없어!
됐다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겨버린 다구….
아직 멀었나…? 서둘러라. 베지터…!


셀이…, 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빠
나도 알아….


초사이어인의 벽은 이미 넘었을 텐데….
베지터는 천재다….



!!

툭

헉!

헉

헉

스테미너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군…. 내 에너지는 영원히 줄지 않으니까….

후후…. 파워는 비슷하지만….

다음은, 제369화 인조인간 대 셀

세…,
셀…!!

정신 없이
싸우다보니
접근하는 걸
느끼지
못했잖아
…!

크,
큰일
났다…!

멍게 같이
생긴 놈이네….

저건
뭐지…?


17호들은
셀에 대해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잖아…!?




바로 내가
17호·18호와
합체해서
완전체가 되는
날이…!
드디어
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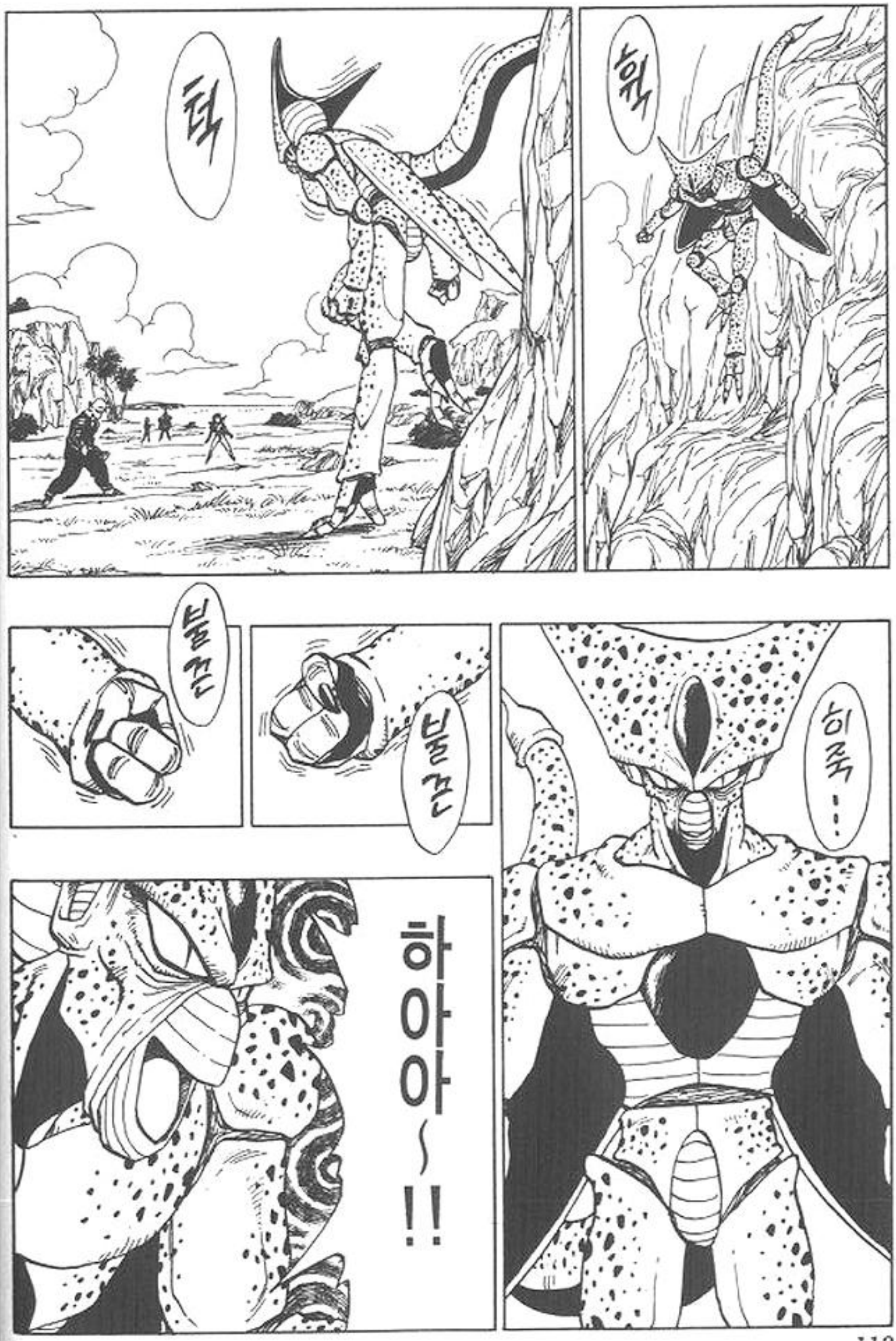

……!?


18호
….




무시해도
되겠지….
뭐, 어쨌든
옛날 구형
모델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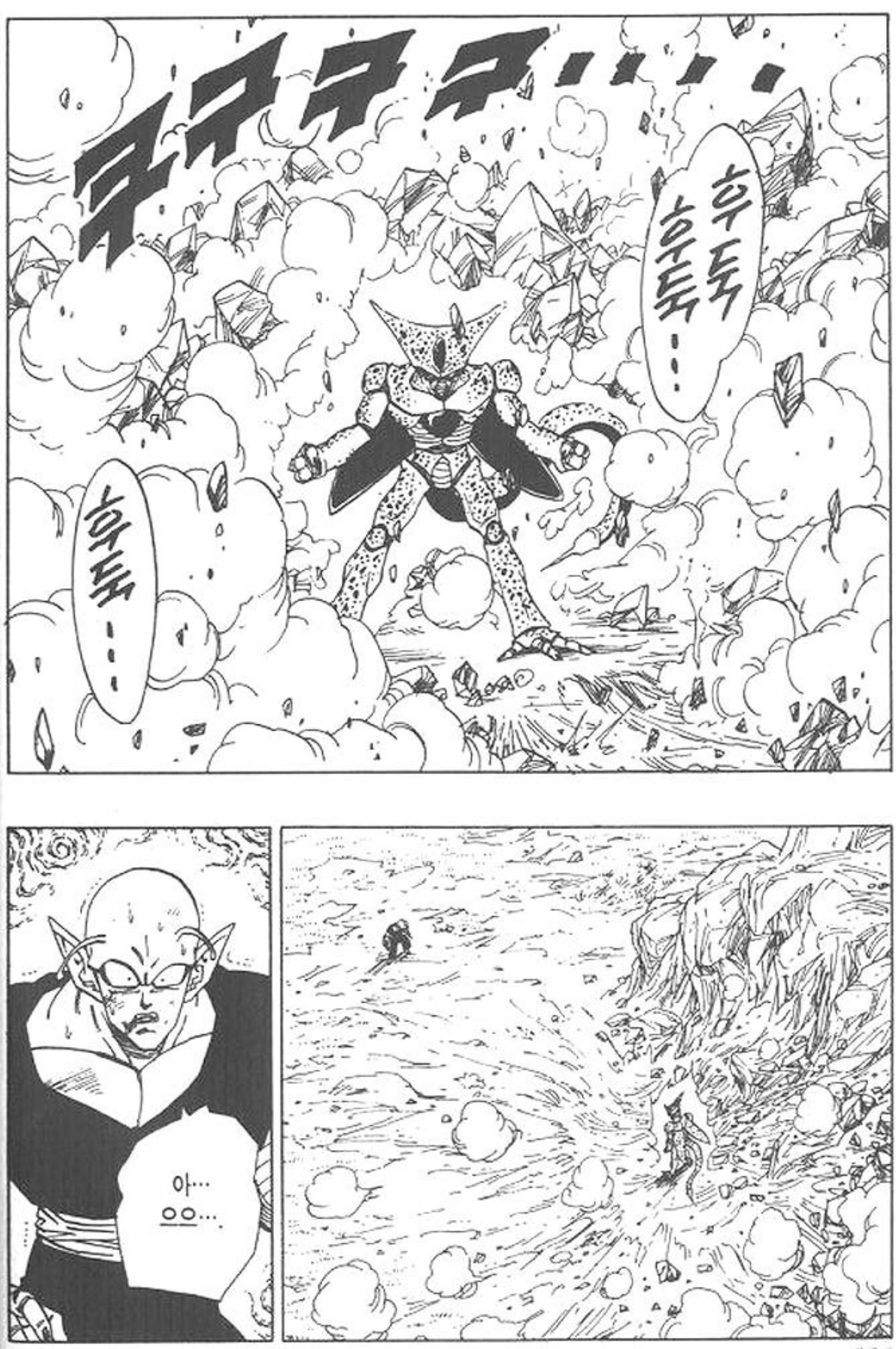

가슴에 붙어있는
레드리본군의
마크를 보면
저놈도 닥터 게로의
인조인간 같은데….


휙
턱
히죽…
빌끈
빌끈
하아아~!!






ドドド


ヌヌヌヌ…
후둑 후둑…
후둑…
아… 으으…

왜 그래, 피콜로…!?

방해하고 싶으면 사양 말고 어서 해보시지.

후후후….

그… 그 정도까지 파워업을 하다니…. 이… 이놈,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 거냐…!!

희생? 내 파워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걸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

세…, 셀의 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승했어….

이… 이게 뭔 일이래….

KAME HOUSE

이젠 틀렸어…. 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구….

소, 솔직히 얘기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날면 분명 비행기보다 빠를걸요!

내, 내가 날아가서 가져올게요!

부르마가 17호들을 정지시키는 컨트롤러를 갖고 올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20분 정도는 걸리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대로 그냥 구경만 할 순 없어요!

나, 난 피콜로를 도우러 갈게요!

크리링….

저… 저 녀석…. 지금의 나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일주일만 젊었어도….

빠작

개… 개죽음 당하고 싶은 거나…!

……

털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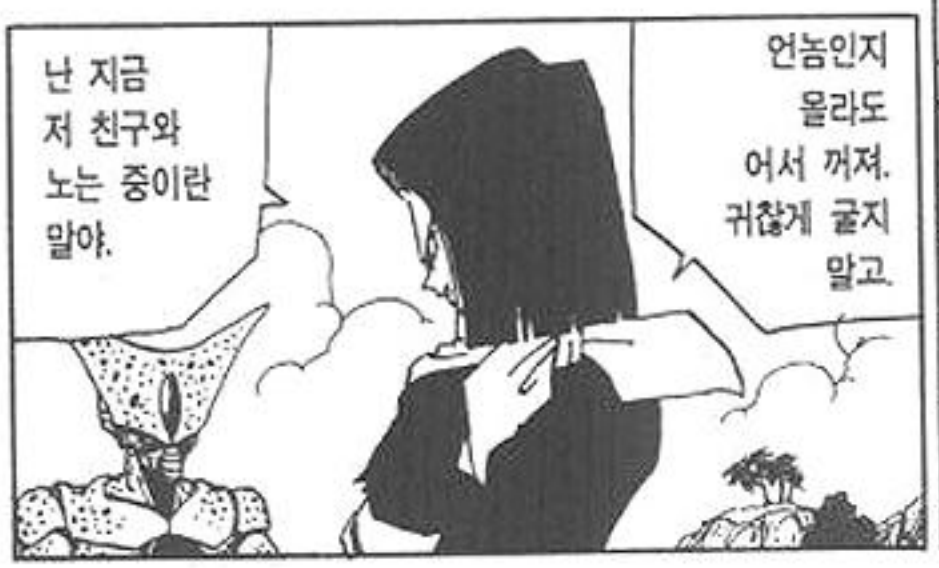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무천도사라 불렸던 시절이 그립구나….

아, 안 돼! 천진반!

돌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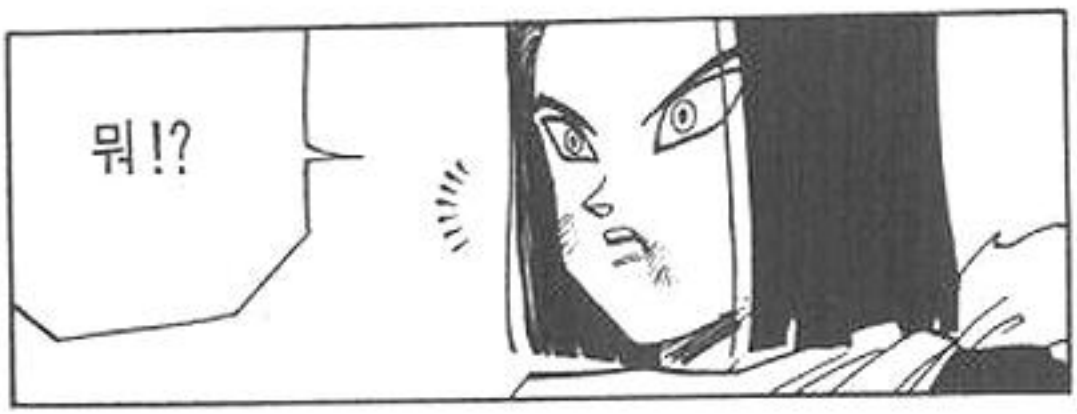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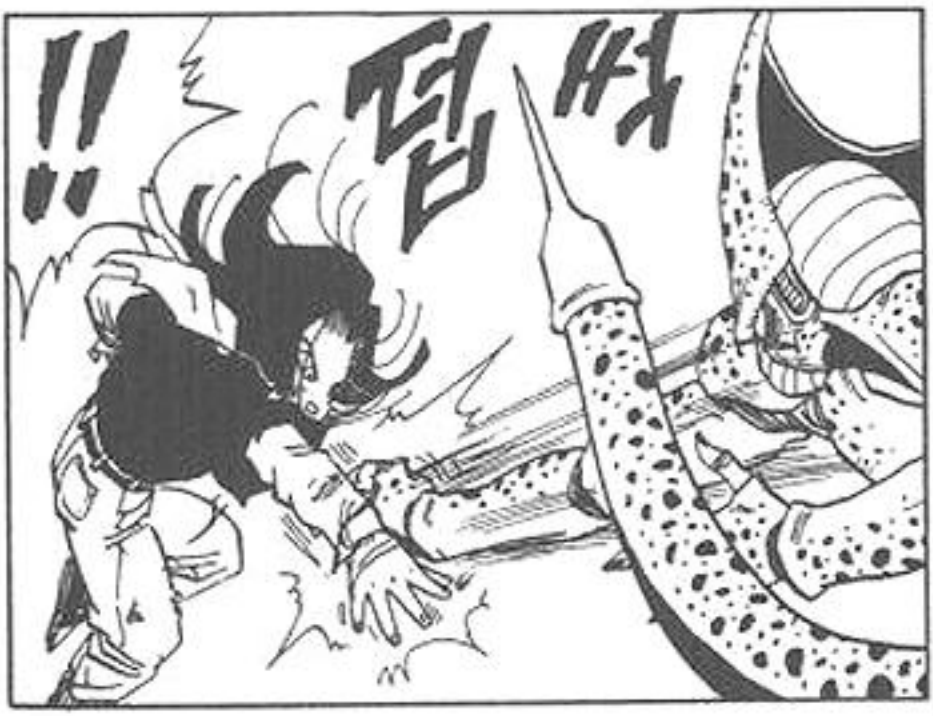

난 지금
저 친구와
노는 중이란
말야.
언놈인지
올라도
어서 꺼져.
귀찮게 굴지
말고.


17호!
그놈은
널 죽이고
자신에게
흡수하려는
거야!
도망쳐
!!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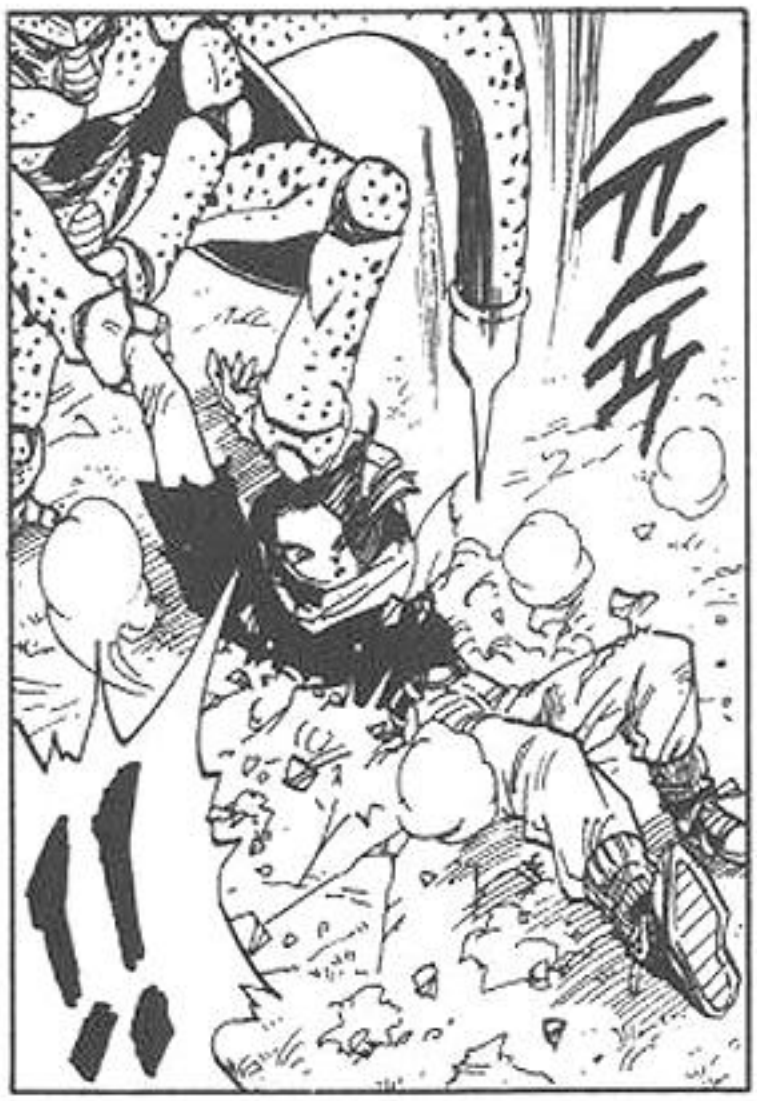

뭐!?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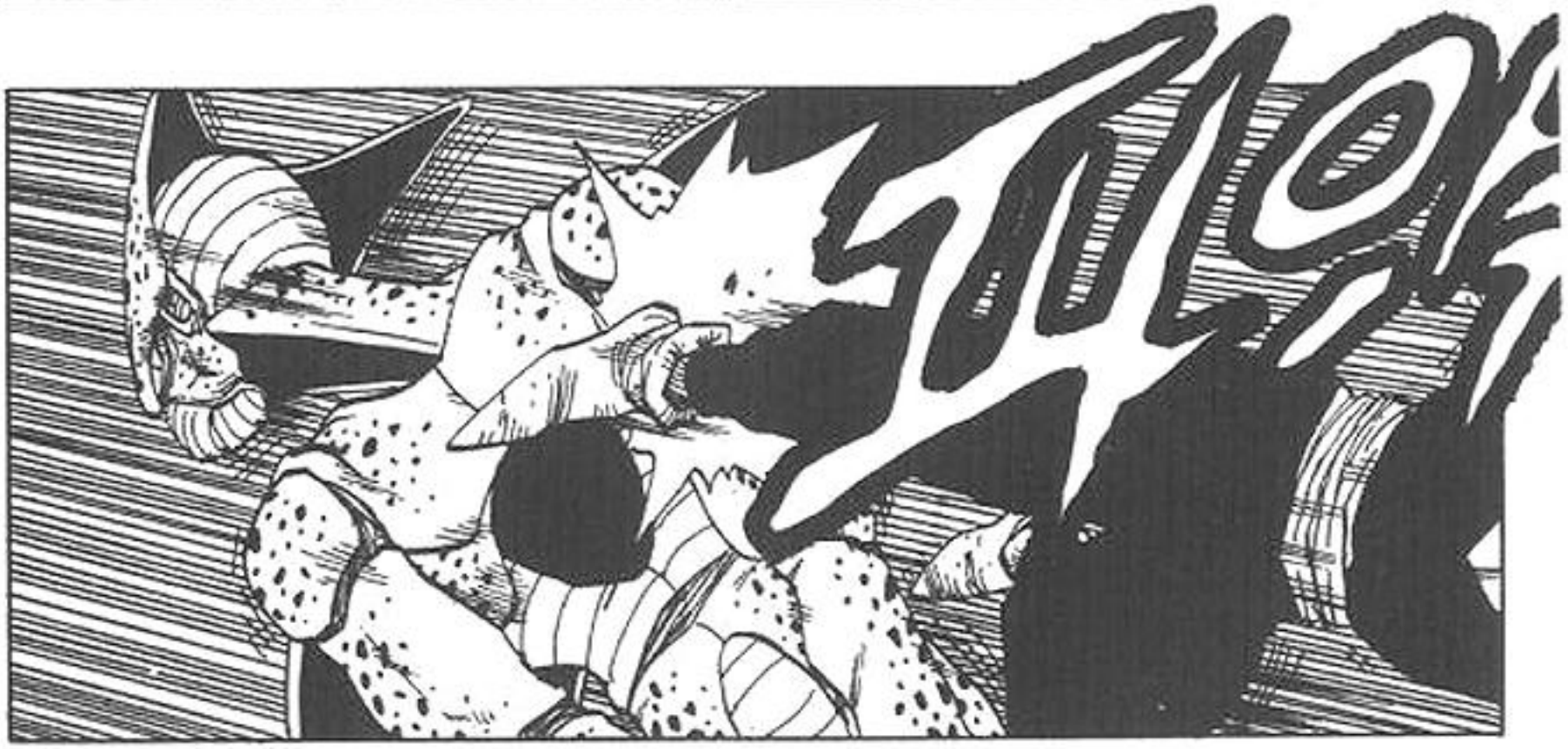

!!
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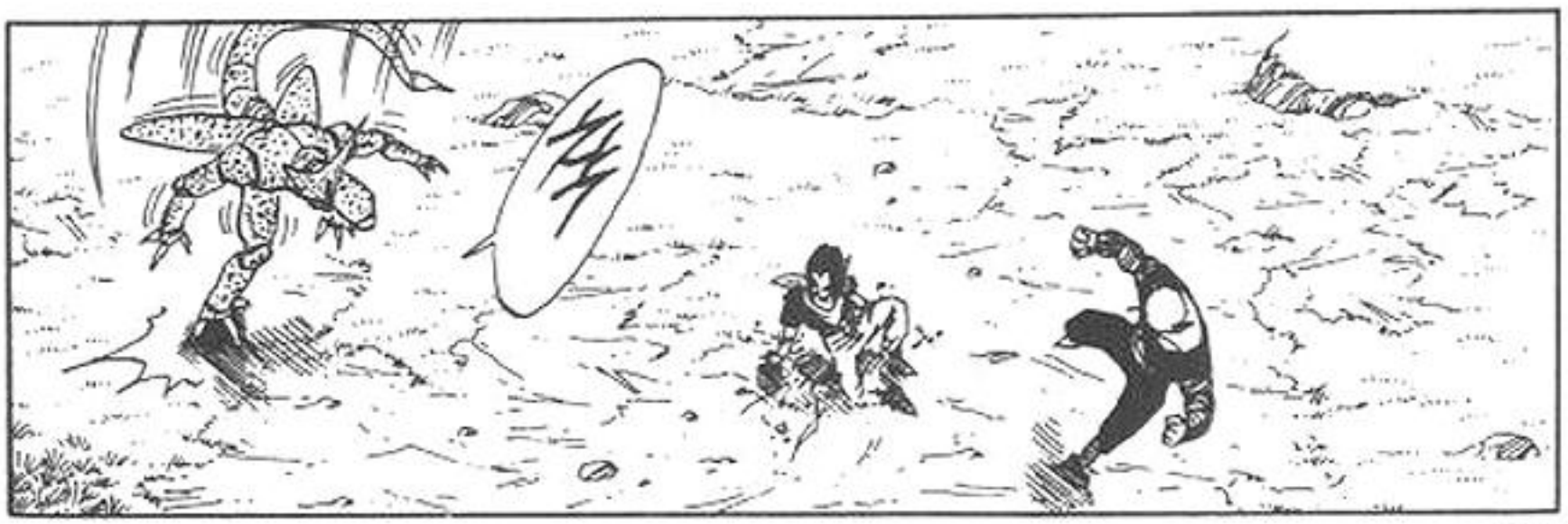

슈슈슈
샤샤


헉!!










쓸데없는 짓을 하셨군…!
기습 이신가….


……


싸아아!!


지금은 아직 미완성인데, 너와 18호를 흡수해야 겨우 완전체가 되는 것 같아.
간단히 이야기하지…. 저놈 이름은 셀인데,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이 괴물이 날 흡수한다고?


그것이야말로 닥터 게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궁극의 전사다.
기뻐해라, 형제여! 내 몸의 일부가 되면 어떤 힘에도 이길 수 있는 퍼팩트한 초인이 탄생하게 된다!!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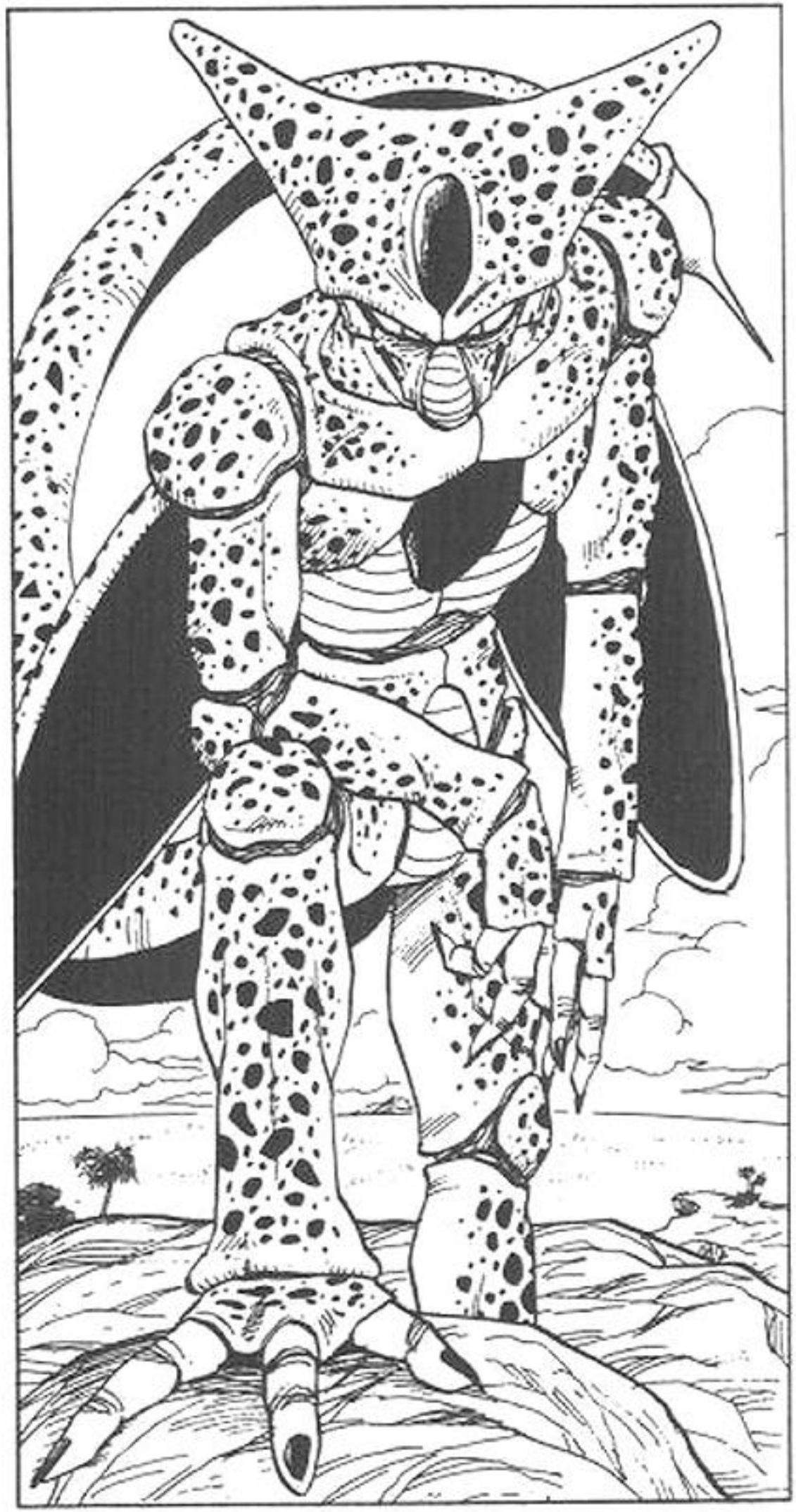

네 의지 따윈 아무래도 좋아. 흡수당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니까.
궁극의 전사라면 이미 여기 계신 이 분이라구….
놀구 자빠졌네…. 적당히 좀 하셔. 누가 너 같은 놈한테 흡수당할 줄 알아!


도망쳐, 17호!
그 건방진 조둥아리를 뭉개주마!


어쭈구리. 겨우 제대로 문이 트였나 더니 날보고 도망가라고?
그놈의 목적은 이미 손오공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멸망시키는 거다!
그놈을 완전체로 만들어주면 안 돼.

날로 물로 보지 마!!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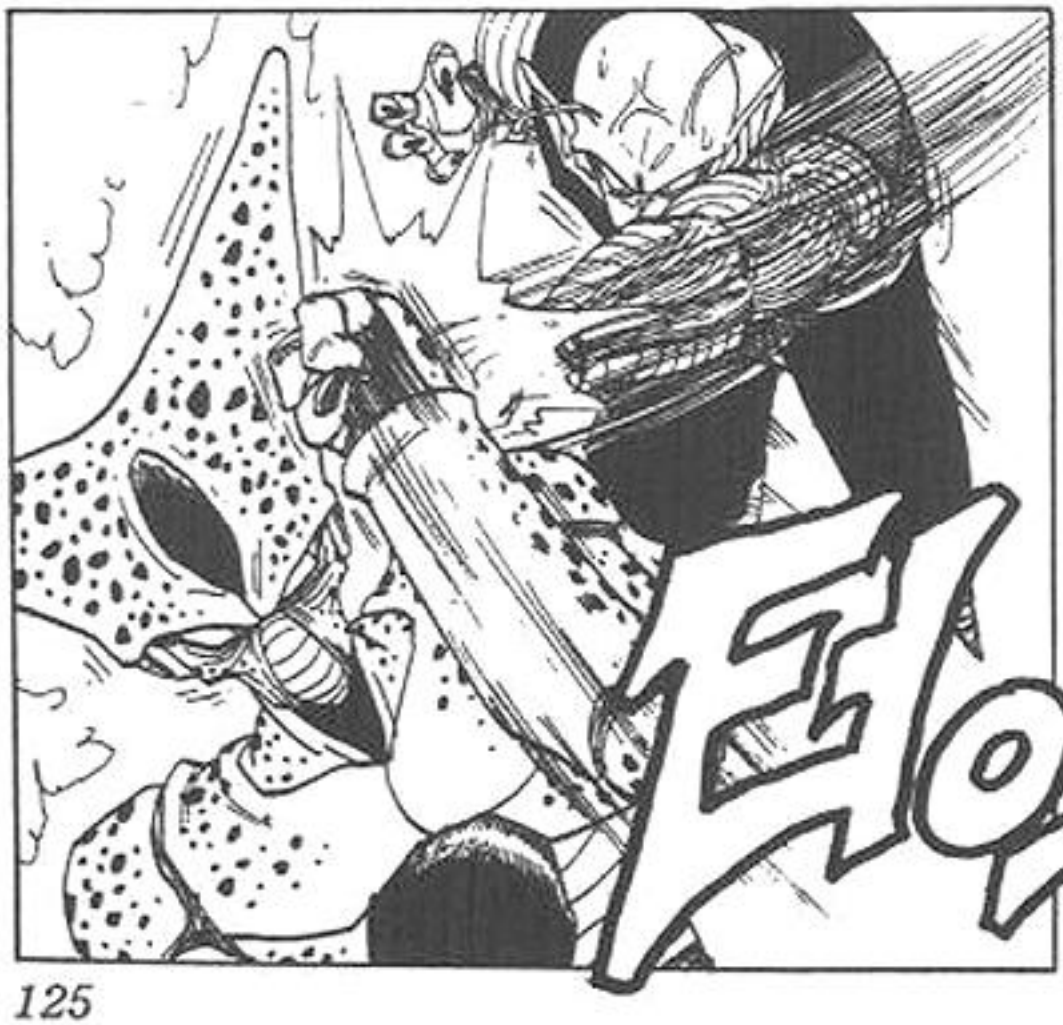


제370화

신생 피콜로 결사의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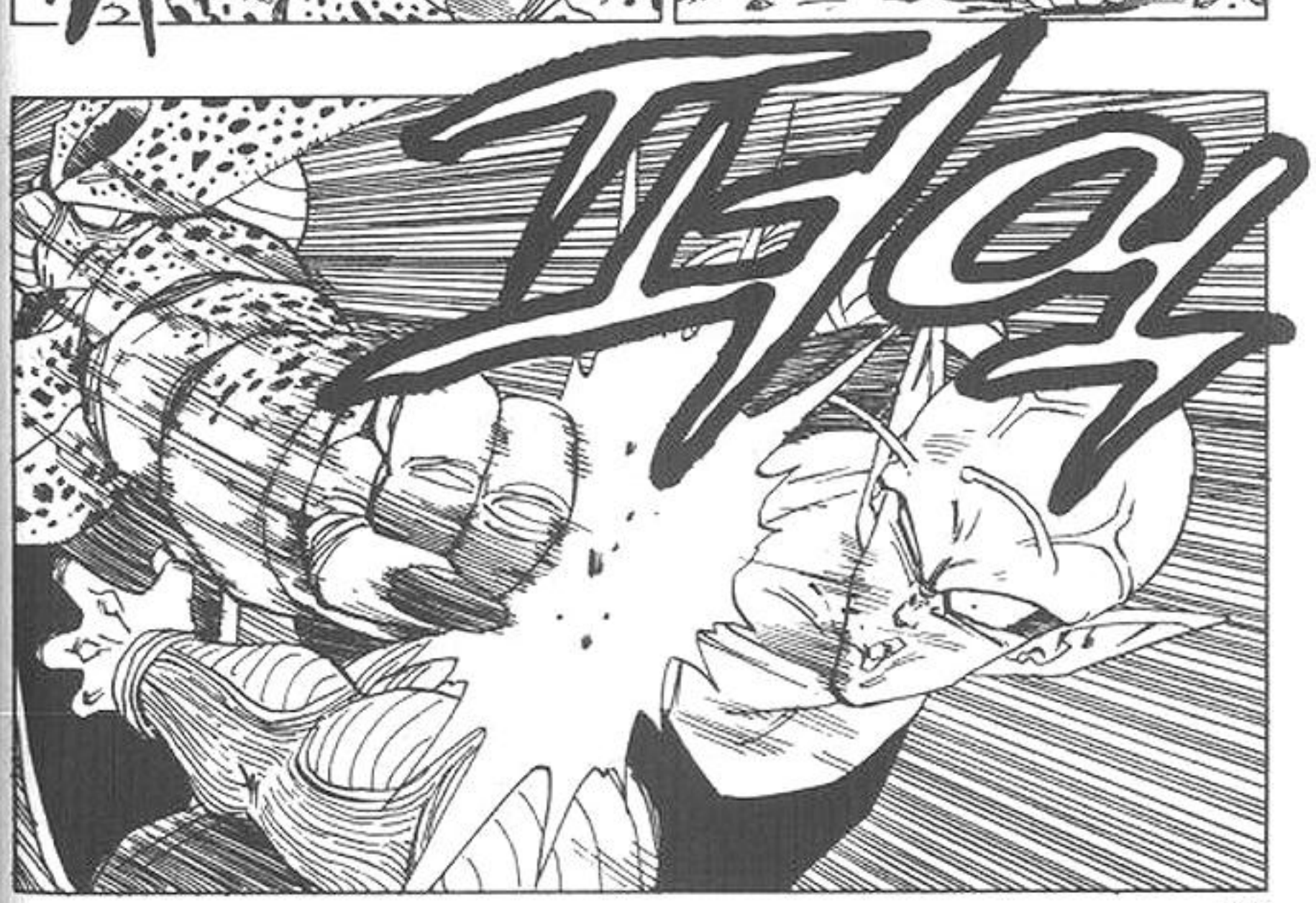







KY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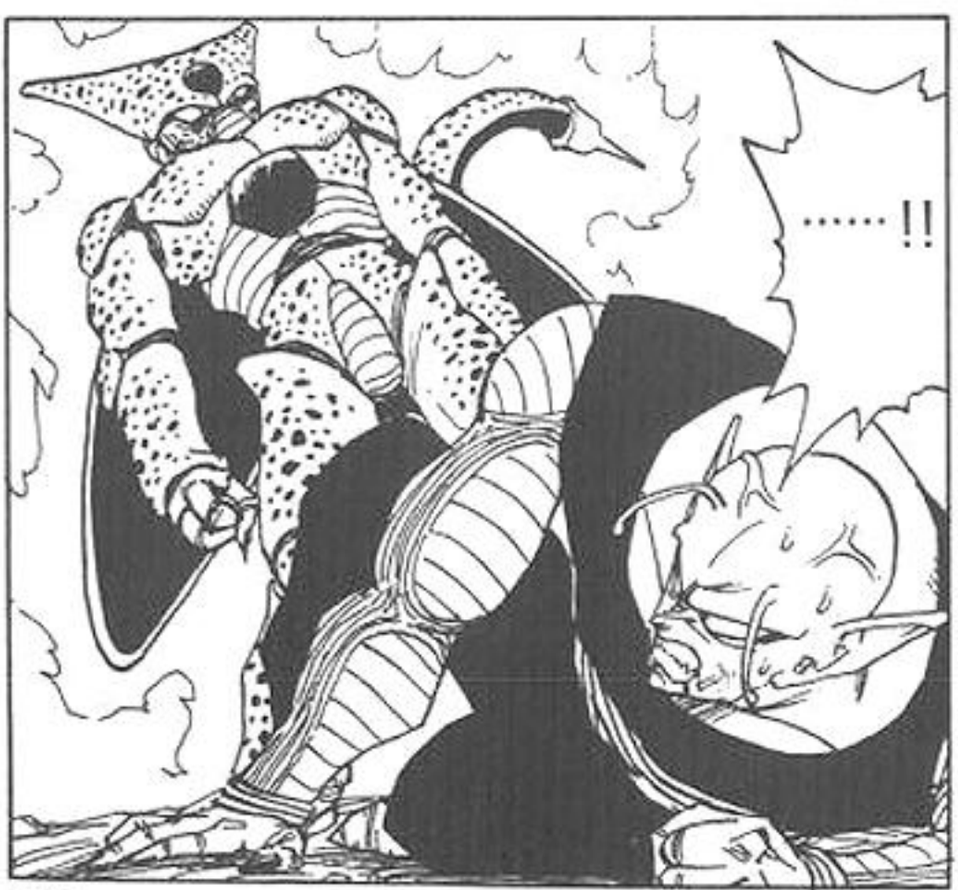

EH


UFO


콰당당!


아으윽… !!


커헉…!


…… !!


빌어…
먹을…!!

17호랑 피콜로 같은 놈은 지금 괴물을 봐주는 건가…?

그렇지 않아.

저 셀이란 놈이 너무 강해서 그래.

……

만약 17호가 흡수되고, 너까지 흡수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세계는 끝장이라구….

18호, 너만이라도 도망쳐라. 17호는 충고를 듣지 않으려해.

헉….

헉….

넌 어쩔래, 16호…?


부우우우우웅
쿠쿠쿠쿠쿠
위험해…!!
빌어먹을 자식…!!
파앗




TH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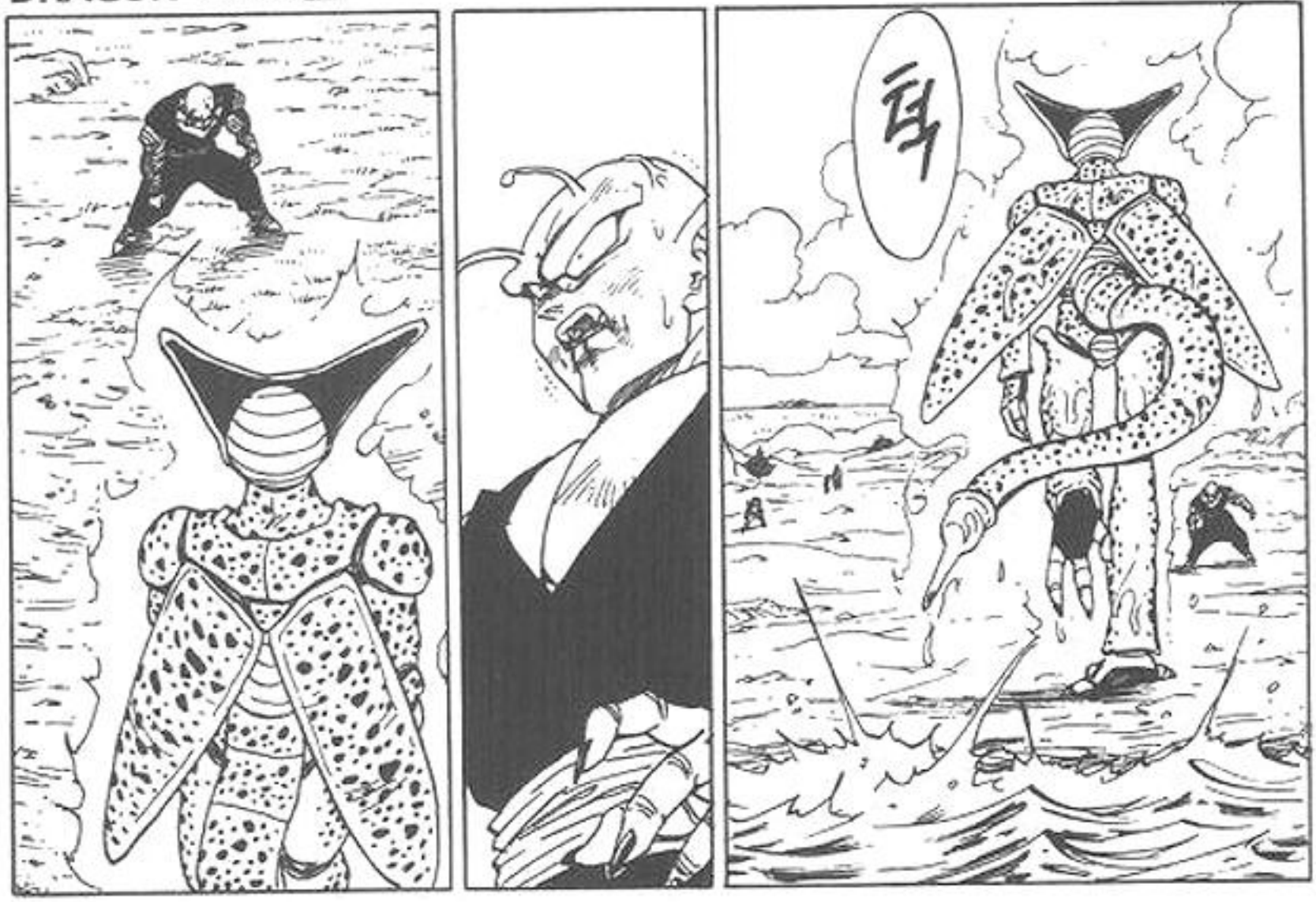

휘이잉---
쿠쿠쿠쿠.....
파파파팟---

그렇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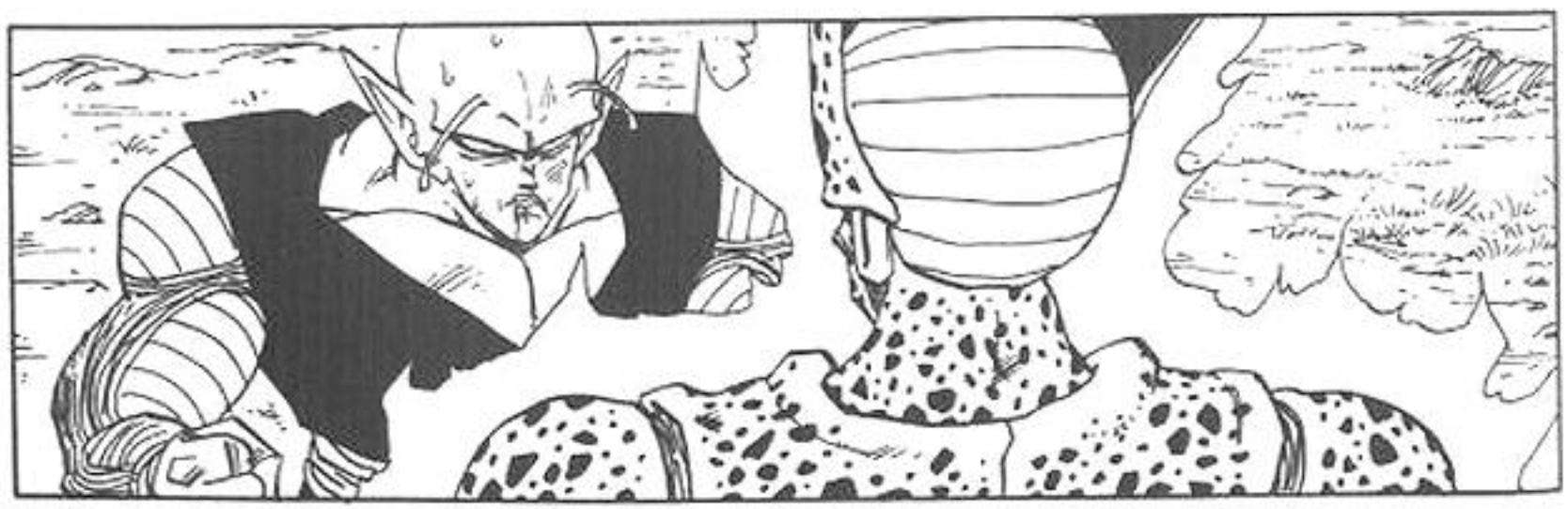
거의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어.

뭐!?

해치웠다!


턱


도…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길 방법이 없어….
이… 이럴 수가…. 노는 물이 너무 차이나잖아….



도망쳐, 17호—!!

터어

콰당탕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엽심히 에너지를 흡수했으니 당연하겠지….

크크큭….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린 것 같군….

크, 큰일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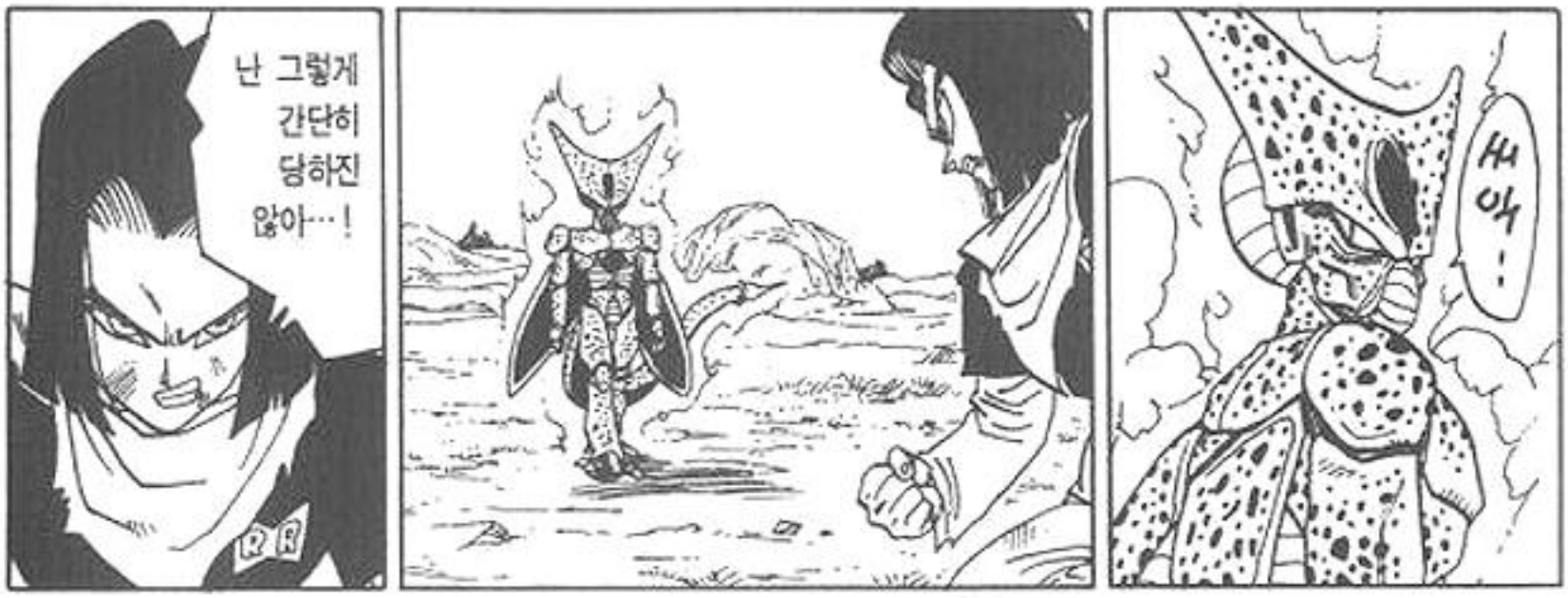
모, 목이 부러졌어….

잘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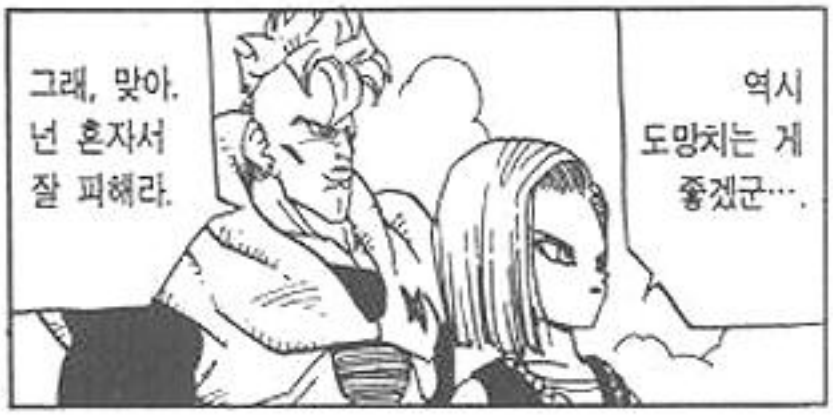



!!
해…
해치웠어…!
꿈틀…
꿈틀…
부웅
첨…벙
……!!
기가
사라졌다….
이… 이거
너무 늦어
버렸나…!


피…
피콜로
아저씨…!!
베…
베지터는
아직 멀었나…!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간단히
당하진
않아…!
R R
싸아!


싸울 때가
온 거야.
손오공도
만나기
전에….
R R


그래, 맞아.
넌 혼자서
잘 피해라.
역시
도망치는 게
좋겠군….


뭐!?


넌 어쩌
려고…?
셀을
파괴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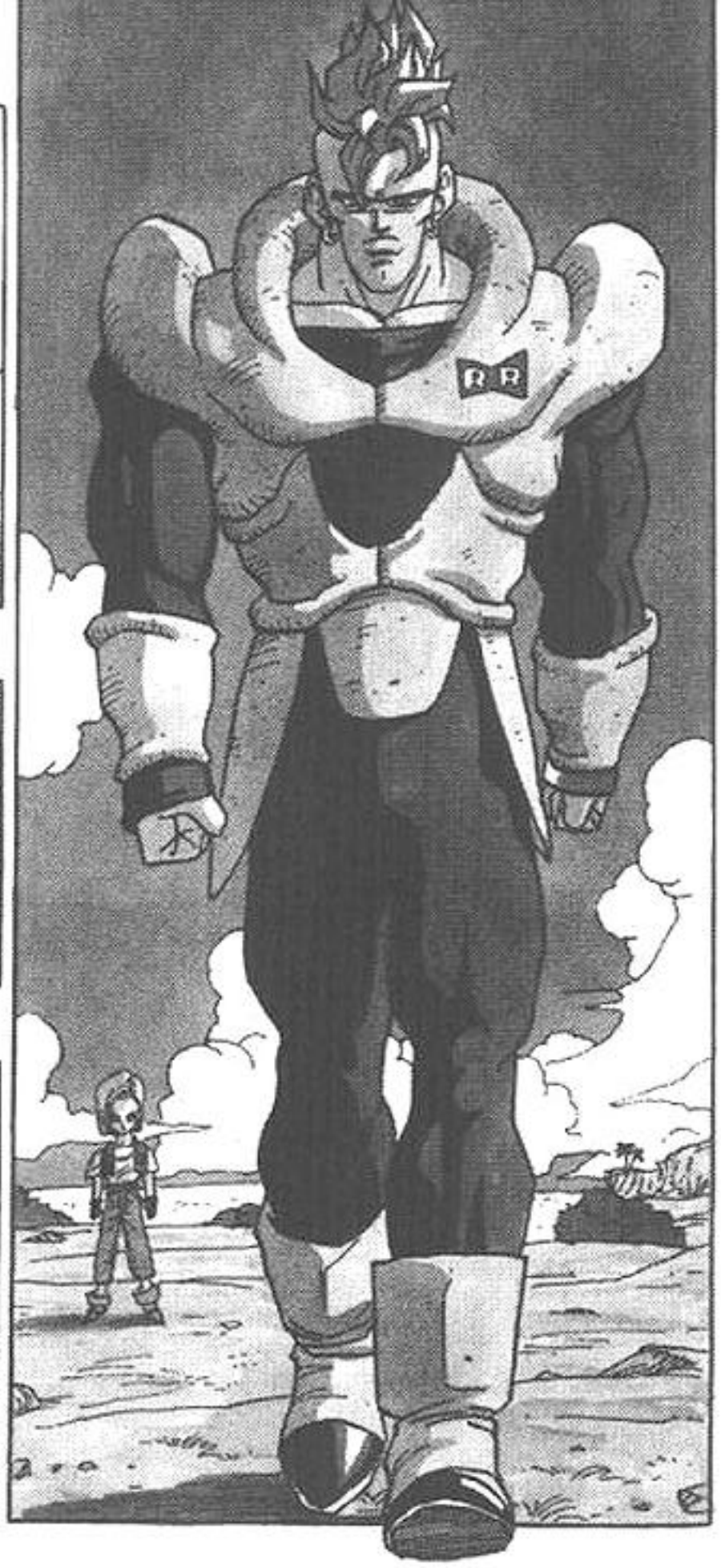
제371화 움직이기 시작한 16호




그만둬! 죽고 싶냐?
뭐, 뭐 하는 짓이야, 16호!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기뻤다….
너희들은 착한 애들이야. 사람이나 동물을 장난삼아 목숨을 빼앗진 않았잖아.




셀과 싸우려는 건가…?
쟤… 쟤가 어쩔 셈이지…?


……

커헉!!

헛된 저항은 이제 끝이신가!

그럼 슬슬 맛있게 흡수해 보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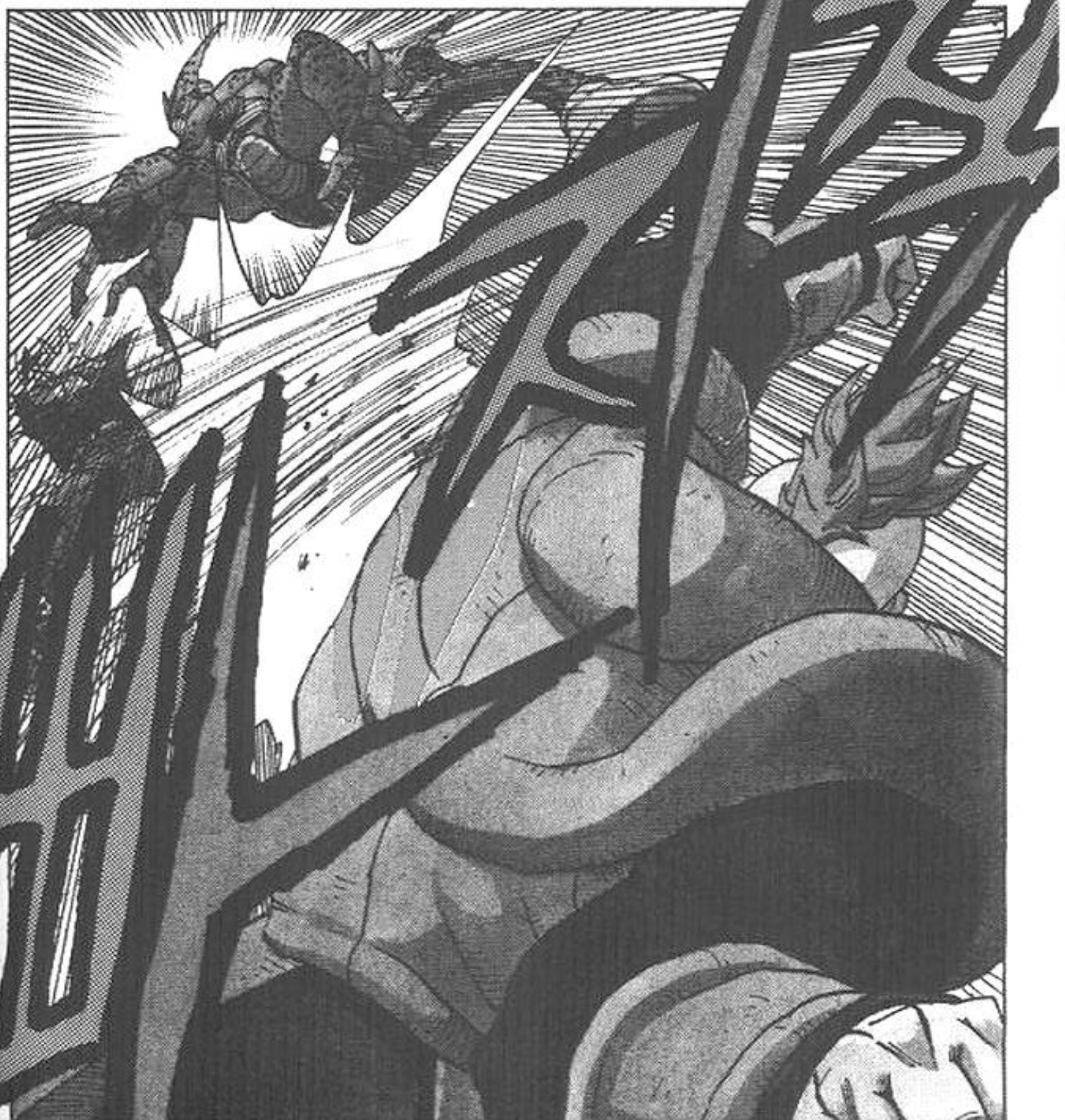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덕
엥!?


음….
우욱….




R R

그 방법밖에 없잖아….

뭐… 뭐 하는 거야, 16호…. 설마 싸우려는 거니?

후후후.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멍청이가 또 나타나셨군….

주…, 죽고 싶어서 그래…!?

내 계산으론 저놈과 내 힘은 거의 대등하다.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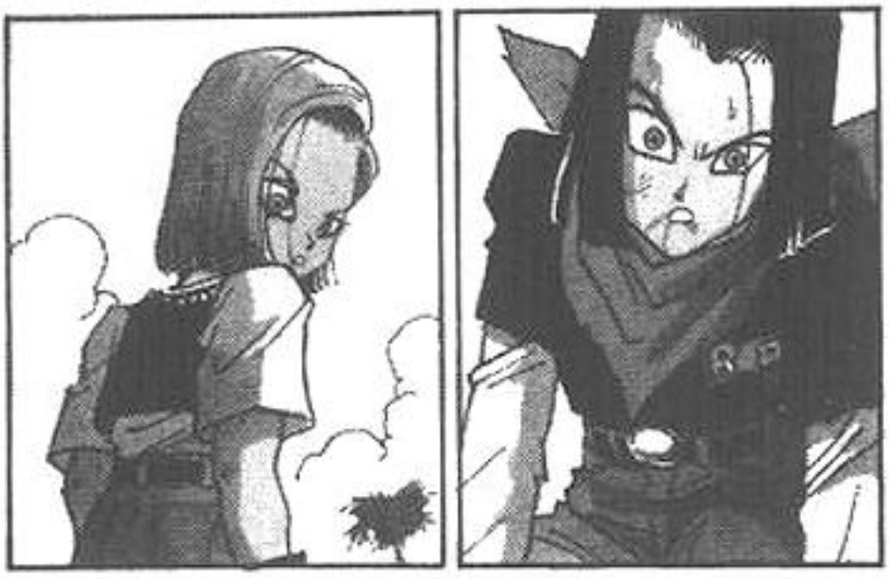




스윽
파아악
쭈욱
힐쭉!!
쭈욱
스윽
쭈욱
제길…! 완전한 로봇형이잖아!


이야압!!


핫!!
아윽!!
서, 성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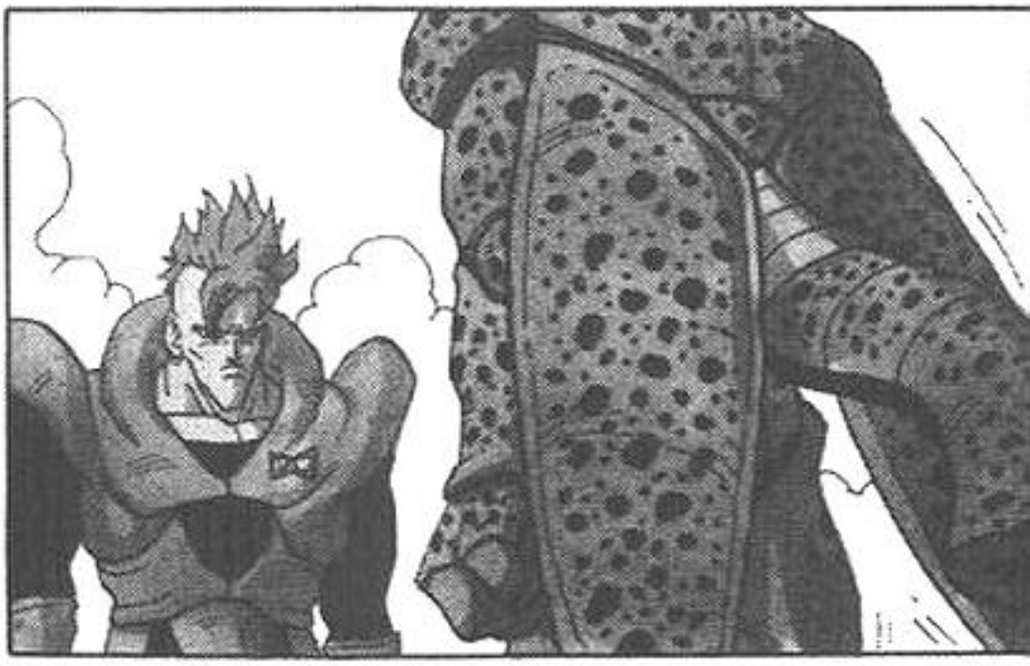



이젠 더
17호들
흡수할
없겠


내겐
피콜로의
세포도
들어있어….
미안
하지만….


?





!!

붙잡

하아앗…!!

숨통을 끊어놓는 수밖에 없단 얘기네….

네가 완전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재생할 수 있단 얘기지.

이 정도 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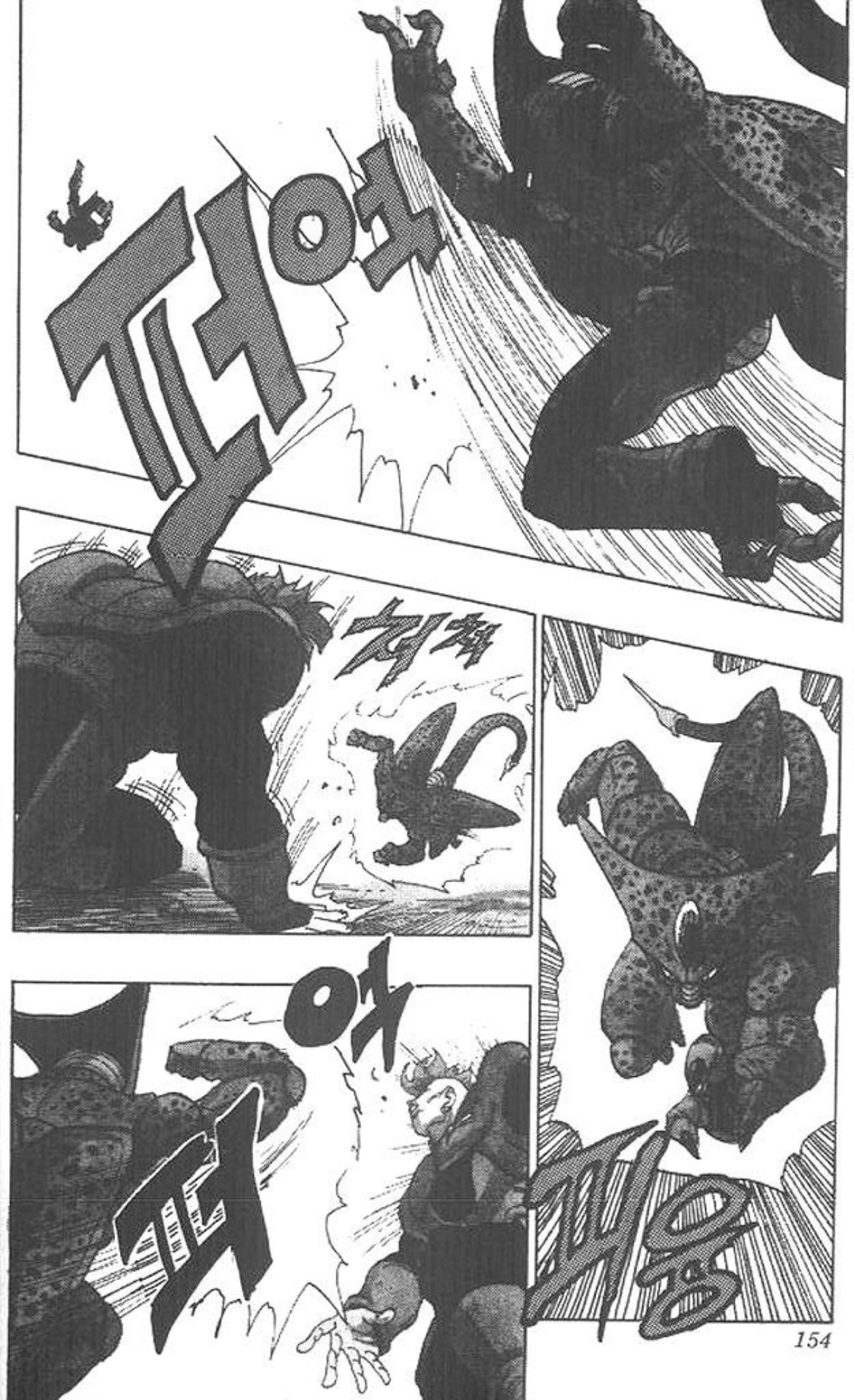
그런 건 불가능 하겠지만.

그건 붙어봐야 알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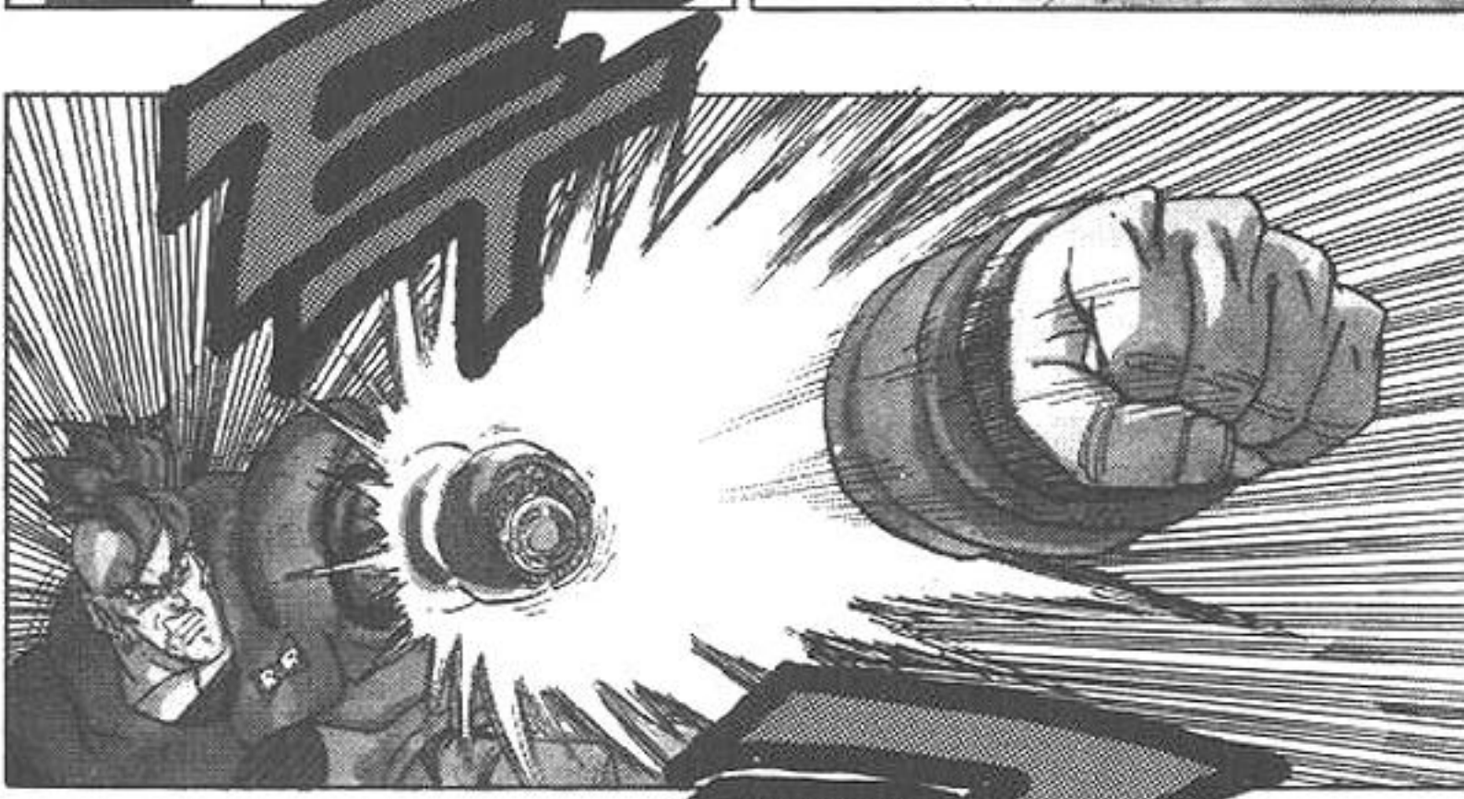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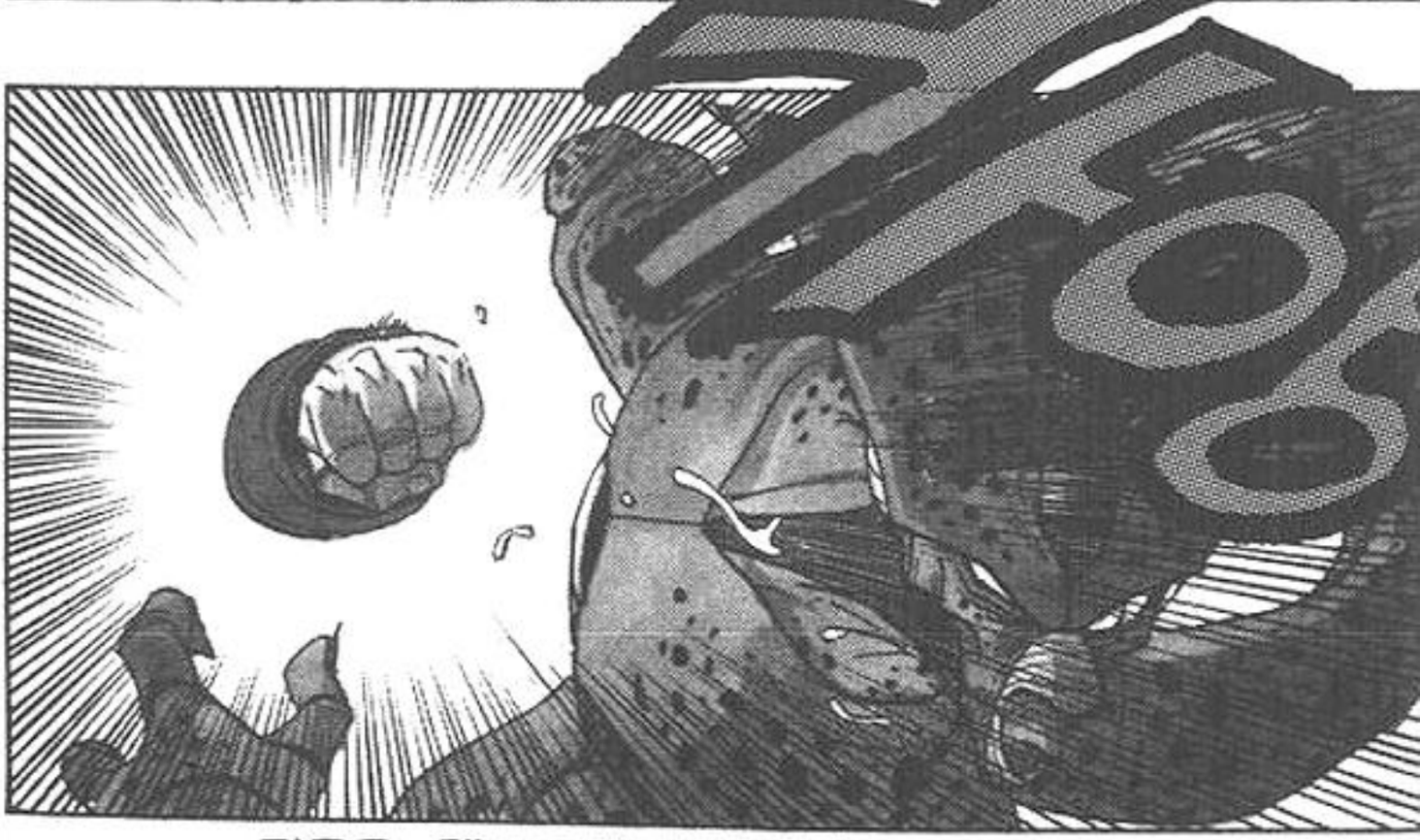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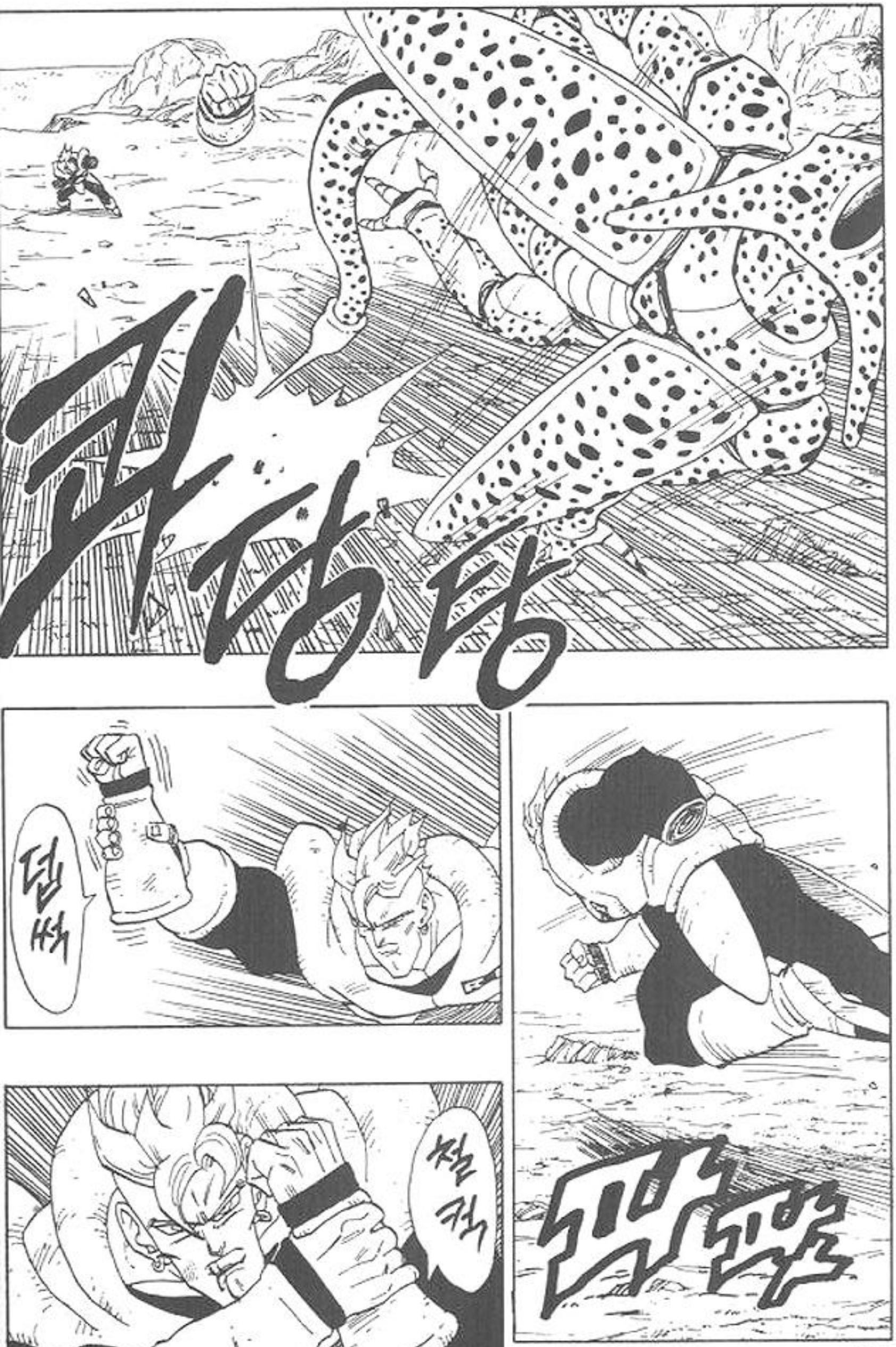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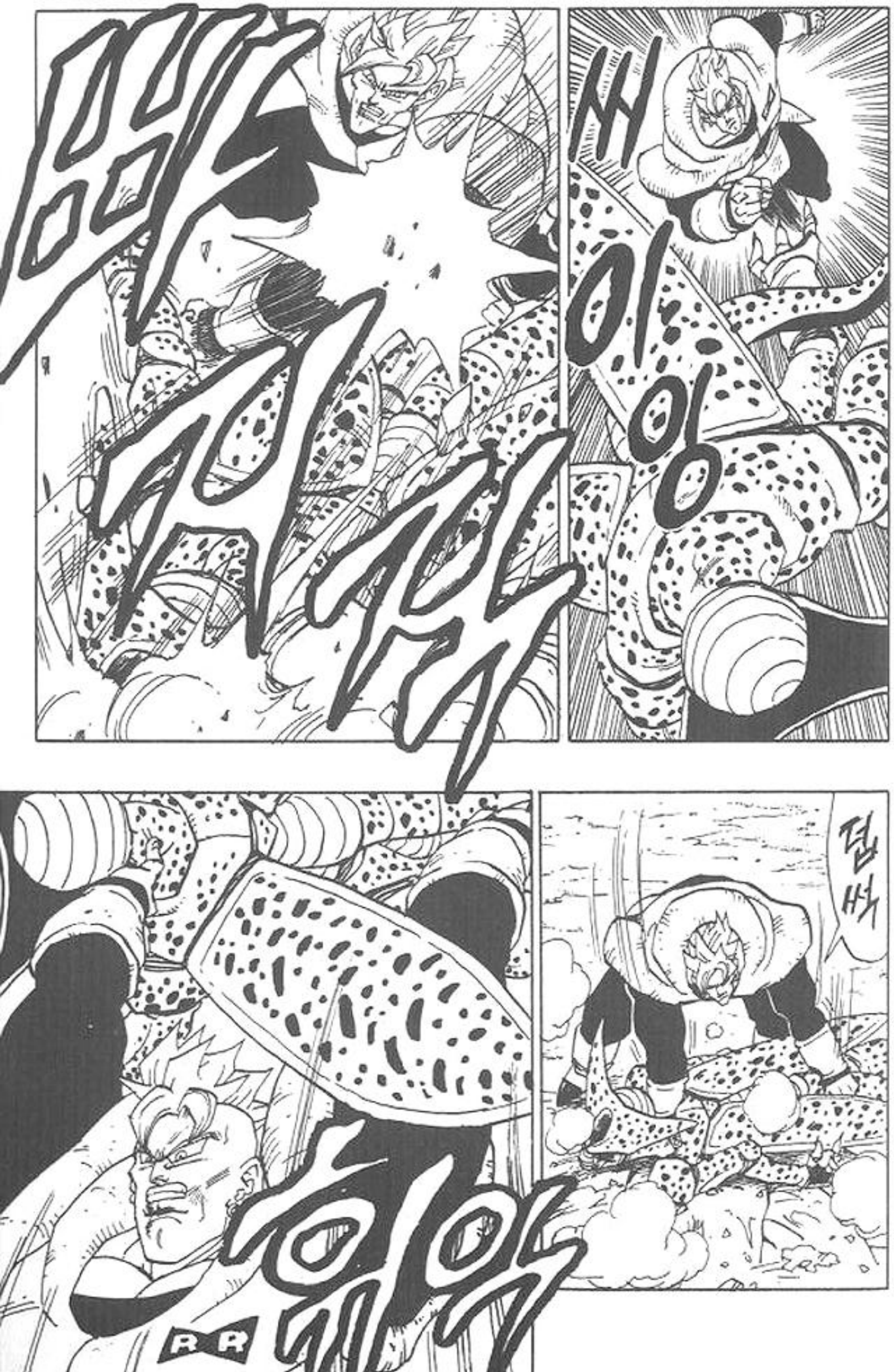




다음은, 제372화 결사적인 16호 파워!!



쾌
덥
썩
철
컥


HA
OI
OI
OI


이야아
아압—!!
……


펑
펑
쓱...
헬즈
프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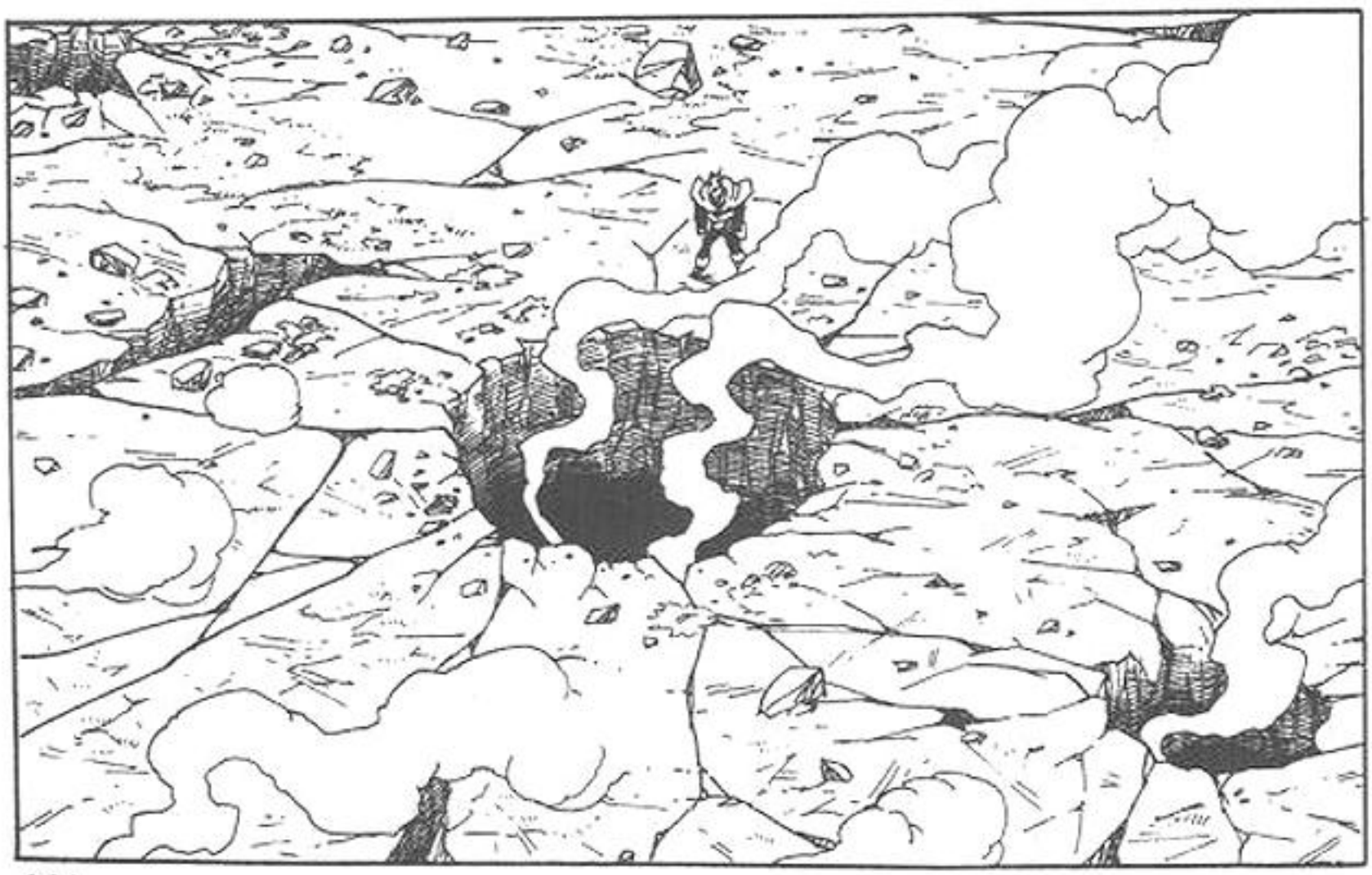





!!


그…
그 녀석의 기는
아까 사라져
버렸는걸….
이건
피콜로가
아니야….


무…
무시무시한
공격이네…!!
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철컥

철컥

.....

.....

어…
어떻게
16호
녀석이….

이…
이렇게
강했었나….

너무
멋져….





충격은
받았을 테지만,
이런 정도의
공격으로 죽을
상대가 아니라구!










나오기만
해봐라!


앗
!!


17호,
뒤다
—!!
셀이…
!!


뭐
!


아
니…
!!

네 소원대로
나오셨다!!


크ㄴ일났다ㅡ!!
쫘쫘
쫘쫘…
큭…!!
하아~앗!!


사…
삼켜 버렸어…!
부우우우---우
바지지---직
쿠쿠---

……!!

너도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도망쳐,
18호-!!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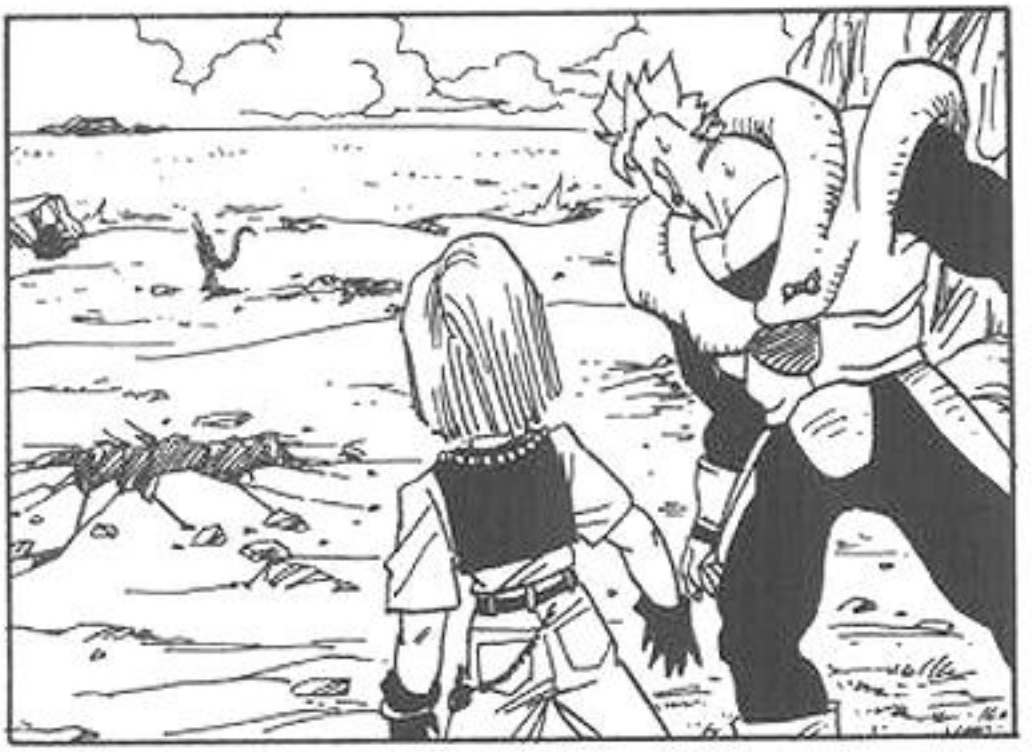




다음은, 제373화 셀의 완전체를 저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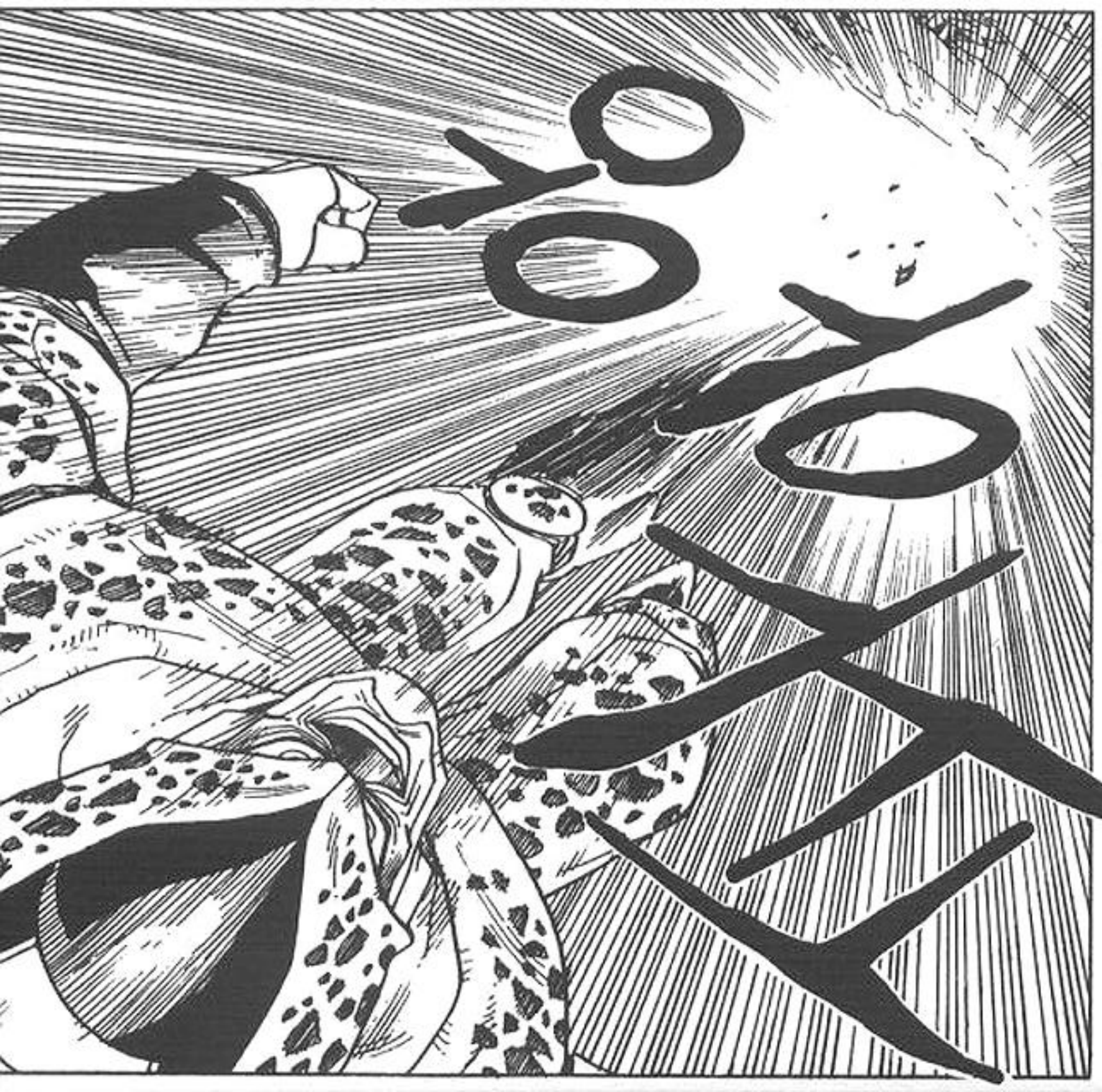





MOM


KLOK


빨리 !!
도망
치자,
18호!!


ゴゴ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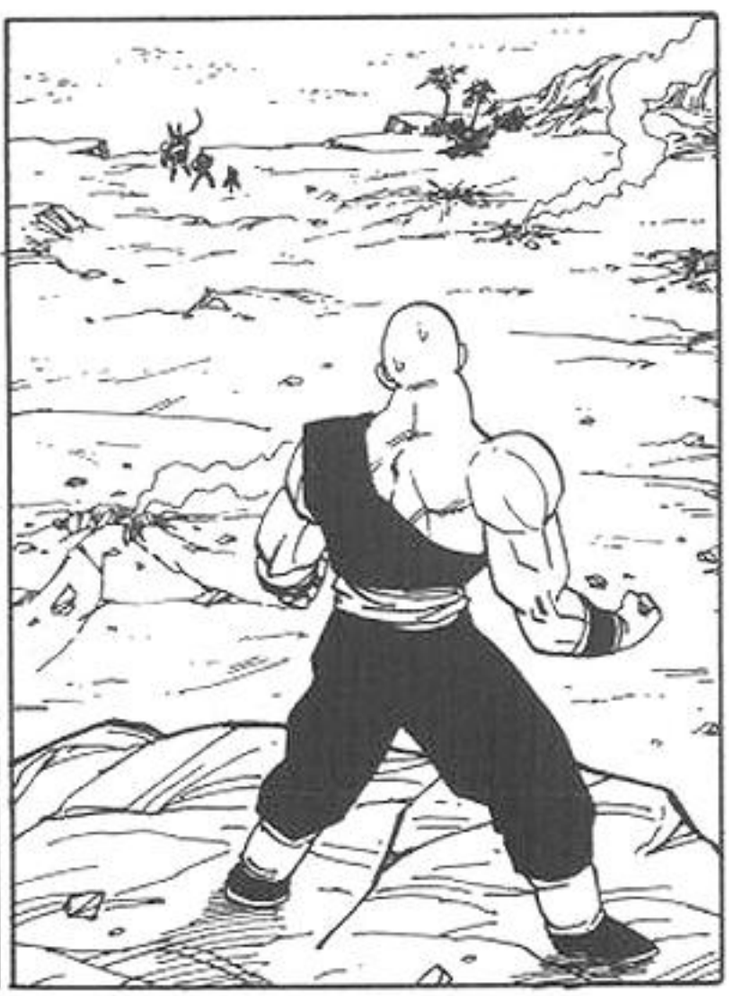

ゴゴゴ


어…,
엄청난
스피드다…!




큰일
났다…!
이…
이런….





난
죽을 지도
몰라….

차오즈,
미안하다….

감히
내 손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
했나?

물론
17호를
흡수한
덕분이지만….

나 자신도
이런 무시무시한
스피드에
놀랐는걸….

과연
내 파워쪽은
어느 정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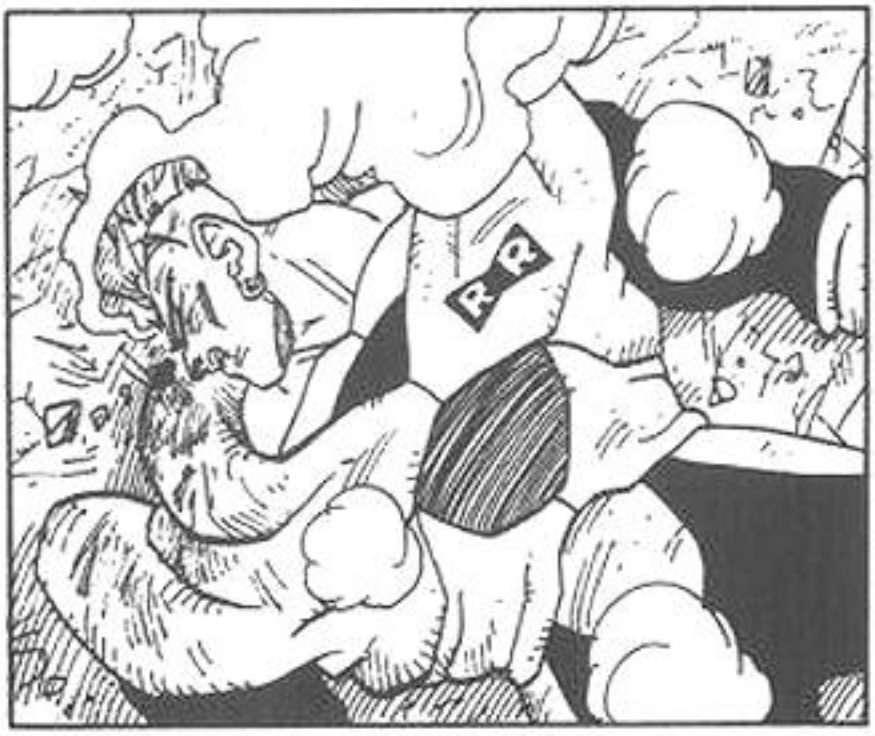













!!


이쪽도 상당히 파워업한 것 같군….
호우….

싸움


후후후….
잘하는 짓이군.
도망쳐도 전혀
소용없는 노력이란 걸
알고 있다니, 머리 좋은데….


그럼
이제….


……


함께
완전체를
만들어
보자구.
자,
이번에는
네 차례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접근하면
나 스스로
자폭할 테니까!

휙

.....

내가
죽는다면
너도 곤란
하겠지?

!!

나야, 나.
17호다.

18호…,
이 목소리
들리니?

지금 난
셀과 합쳐져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 진짜
대단하다고!

너도 빨리
흡수당해.
그것만으로
궁극의 생명체가
될 수 있단 말야!


그, 그 소리는 셀이 단지 17호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소리일 뿐이야….
소…, 속지 마라, 18호…!!


……


그리고 닥터 게로 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손오공을 해치우고, 전 세계를 우리 손에 넣자고!
자, 18호!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합체하여 최고의 파워를 얻어보자!


넌 쓸데없이 참견 말고 꺼져 있어!
로봇 따위가 우리들 기분을 알 턱이 없지.


그 따위 계로한테 '님'자 따위는 죽어도 안 붙인단 말야!
넌 17호가 아냐! 우리들은 맘대로 우릴 개조한 닥터 게로를 저주하고 있는걸!



네가 에네르기탄을
쏠 때 분명 순간적인
멈춤이 있을 거야….
난 그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네가 자폭하는 걸
막는 게 가능할 거다….

흥…!
이렇게 된 이상
무리해서라도
널 흡수해
주마….

……

후후후….

포기
하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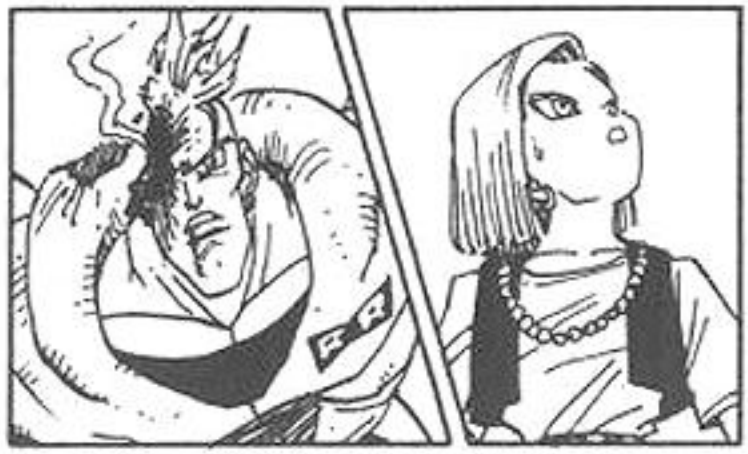
……

……!?

신기공포!!

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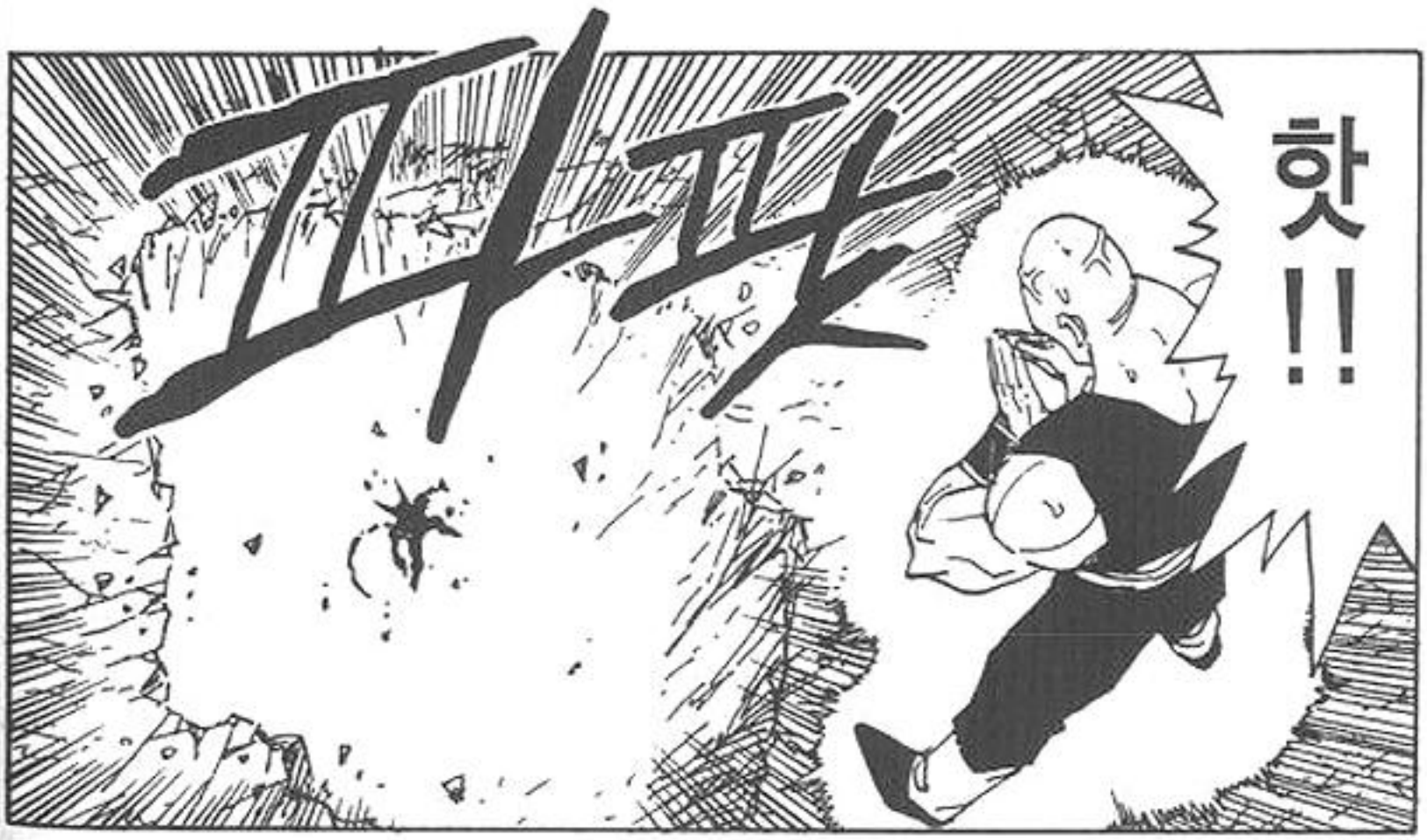
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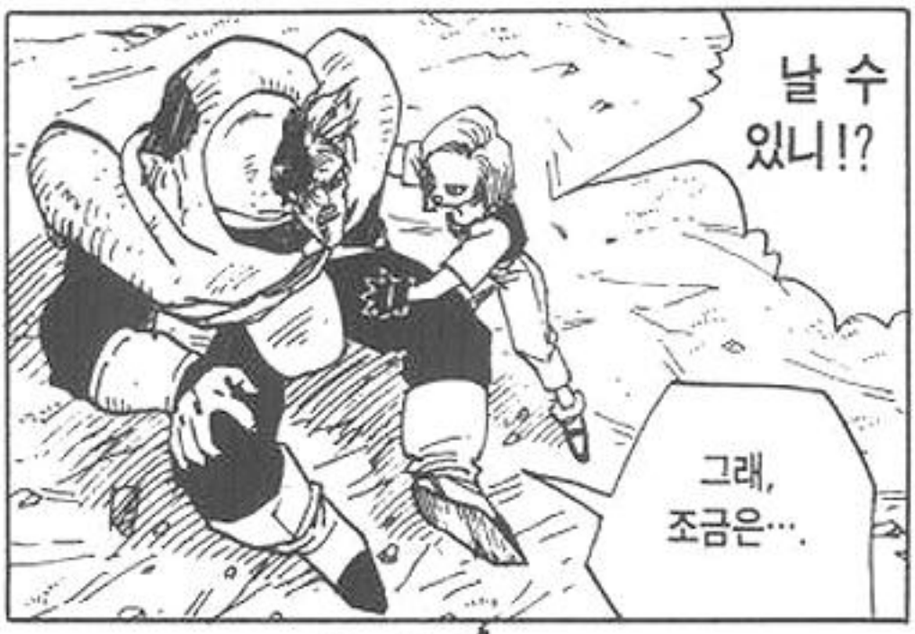



빨리
도망쳐!
뭐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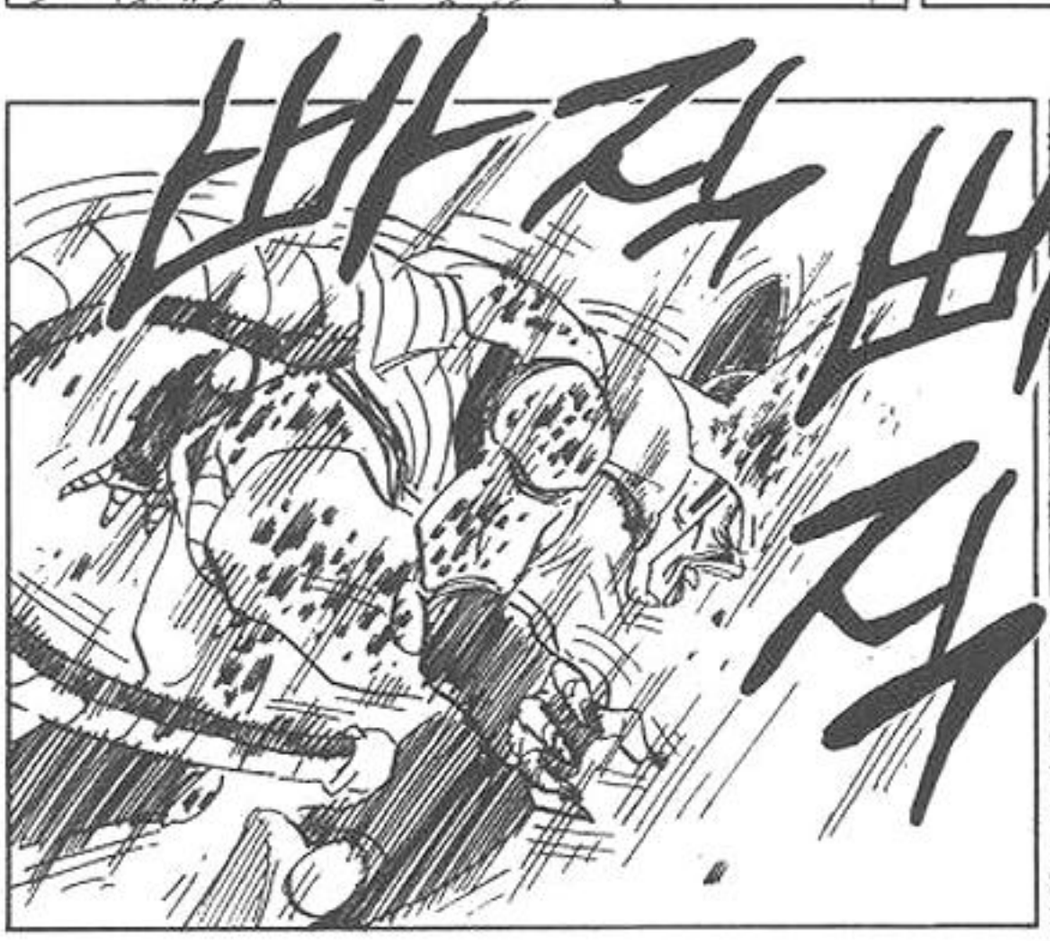

이
자슥…!


뉴아아아---


퍼퍼퍼
핫!!


날 수 있니!?
그래, 조금은….


타닥


빠지지직


핫!!
핫!!
핫!!


더 이상 기공포를 쓰면 넌 죽게 돼!!
피, 피해! 이제 그만! 그만 하라구! 천진반!

표지 페이지 대특집XXX



완전체까지 이제 한걸음 앞으로 다가선 셀!!
절망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천진반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오공들의 수련 완성은 언제…!?
우선, 주간 IQ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으로 한숨 쉬고 보자구!!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64화
셀의 웃음

鳥山明
BIRD STUDIO



sc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67화 신생 피콜로 대 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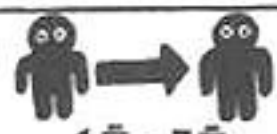
BIRD 鳥山明 STUDIO



이것이 닥터 게로 인조인간의 모든 것이다!!

8호 이후는 레드리본군을 전멸시킨 손오공을 쓰러뜨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호~7호
모두 문제 발생.



8호
성격이 부드럽고, 오공과 친해져버려 실패.



15호~9호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13·14·15호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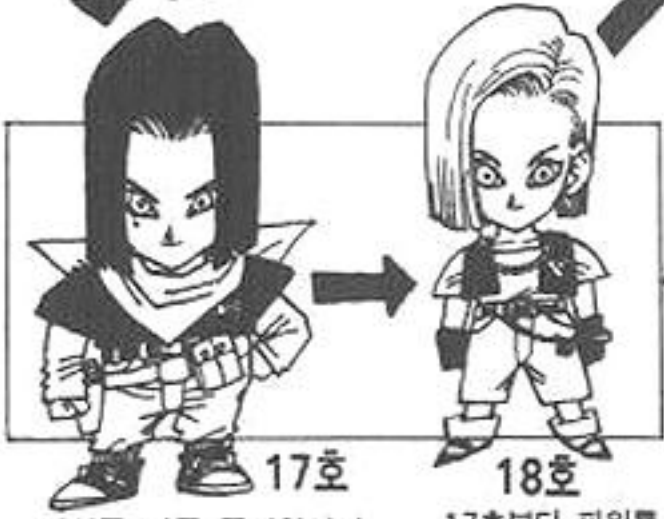
16호
잘 모르겠는데, 닥터 게로는 실패라고 했다. 아마 그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그밖에도 수수께끼가…!?
〈전체 인공 재료〉



19호
겨우 성공했지만 베지터한테 파괴당했다.
〈전체 인공재료〉



20호
마침내 스스로를 개조. 하지만 17호한테 파괴당해 버렸다.
〈인간+기계〉



17호
파워를 너무 중시하였기 때문에 명령을 듣지 않아 실패. 〈인간이 기초〉

18호
17호보다 파워를 억제했지만, 역시 명령을 듣지 않아 실패.
〈인간이 기초〉

셀

이전에 닥터 게로는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인조인간을 생산하려 했지만,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컴퓨터에게 실험을 계속하게 했다. 오공, 베지터, 피콜로, 프리더, 프리더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생물 세포를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이 상태에서 다시 17호와 18호를 융합시키는 것으로 완전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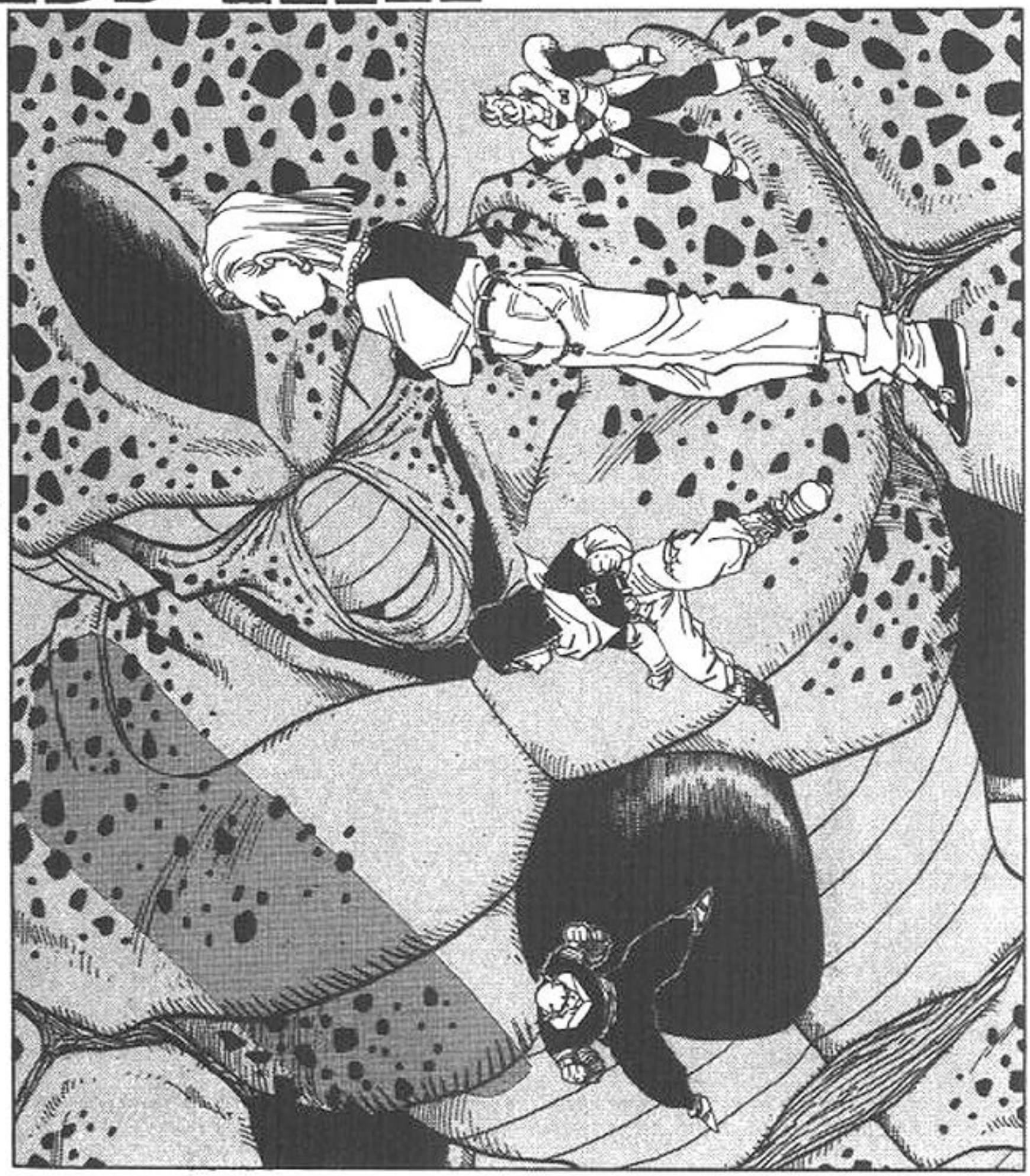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368화 셀의 정체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제369화 인조인간 대 셀



수련을 서둘러다오!
베지터, 트랭크스!!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72화
결사적인 16호 파워!!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73화
셀의 완전체를
저지하라!

鳥山明
BIRD STUDIO